연구보고서
JILES-2021-02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방안 연구

홍숙희·김상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연구보고서
JILES-2021-02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방안 연구

연구책임
홍 숙 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략사업부장

공동연구
김 상 미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

발 간 사

우리는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비롯하여 초고령시대로의 진입으로 인해 누구나 생애 경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와 노년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생애재설계는 어느 때보다 오래 살아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장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년대상의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비로소 「노후준비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적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삶의 목표 재설정과 생애재설계, 일 탐색과 사회참여 활동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전 생애에 걸친 중장년 인생재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전개해 왔으나 실제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사회는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여전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장년의 삶이 흔들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이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중장년의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체계가 성인계속교육으로 통합적 관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로서 전 생애발달과정으로써 중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전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그리고 연구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을 확립하고, 중장년 세대가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개발 및 정책실행의 성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24일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허 정 옥**

연구 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근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누구나 체감하는 일상과 삶의 여정에 놓여 있음. 더구나 정보사회를 넘어서 AI의 등장 등 디지털화 된 세상과 맞닥뜨림과 동시에 저출산·초고령화시대라는 사회 기저의 큰 변화로 인해 누구나 생애 경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은퇴와 노년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생애 재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아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를 계기로 범부처 인구정책TF를 두 차례 구성(1차 '19.4., 2차 ' 20.1.)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로 4대 분야(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의 정책 과제를 발표함.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 계획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을 3대 인구 리스크로 규정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총론인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을 발표(' 21. 7.7.)하였음

❍ 여기서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대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은퇴가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까지만 해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음. 당시는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고,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음. 제1차 (' 16~' 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 16. 12.)에 이어 현재 제2차

(’21~’25) 기본이 발표(’20. 12.)되어 시행중임. 더불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 신중년일자리 확충방안(2018),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을 통해 범부처 기획 형태로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주에서도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관 공동의 논의를 거쳐 “탐나는5060 프로젝트 -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을 수립(‘17. 4.)하였음. 제주지역에서 매년 9천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 대두되면서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였음. 202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17. 8.)’에 의거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으로 전환하여 수립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만남을 누리던 일상은 어느새 특정한 일터에서 생활공간으로 확장된 재택근무가 익숙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상회의와 교육이 넘쳐나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음. 이제 원격의료와 비대면 종교 활동도 어색치 않게 되었음. 이와 같은 사회적 대전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장년의 삶 또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이제 중장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 재설정 및 생애재설계, 일 탐색과 사회 참여 활동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즉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전 생애에 걸친 인생재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이 같은 인생재설계는 학습의 선행이 그 토대를 이루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여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찍이 영국에서는 1919년에 성인교육위원회가 창설되었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 성인교육 개념이 정착되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부터 성인의 문해력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공공정책으로 성인계속교육(Roumell & Martin, 2021, pp. 38~46)이 등장하였음. 대체로 지역사회가 주도하거나 컬리지(College)가 주도하여 비학위 프로그램과 학위과정 프로그램으로 제공함

❍ 우리나라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더불어 2000년 초기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마련하였음. 이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옴. 더불어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대학중심의 평생교육체제로 개편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제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애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삶 전체를 관장할 수 있어야함. 이를 위해 중장년 세대의 다양한 학습과정과 사회참여가 필수적이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대체로 노인 세대를 위한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어 왔음
- 무엇보다 중장년 세대가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의 중요하고 현저한 발달 영역인 관점 전환이 요구됨. 관점 전환은 이해와 행동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천, 즉 프락시스(praxis)를 의미하는데, 프락시스를 통해 변화된 존재 상태로 만들어 감. 이는 중장년 세대가 자신의 역할 검토 및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을 동반하는 전체 전환 사이클로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 자율성, 자기통제, 삶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되는 과정으로, 새 관점에 대한 재프레임, 자기결정권의 확대와 삶에의 재몰입 등 전환적 프로세스를 통해 성숙해감(김애순, 2006)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5.3%(106,533명), 그리고 중장년 세대(50~64세)가 23.3%(162,632명)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제주지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를 위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생애재설계를 위한 전환학습을 통한 생애 관점의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진단과 재조명은 시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의 재정립에 중요한 정책 과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정책과 실태 및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두 집단과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 생애발달 과정으로써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전환학습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중장년 대상 교육의 주요 특성과 정책 지원 분석
❍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 제주지역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화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당사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초접집단면접(FGI) 조사

- 대상 : 제주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10명,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7명
- 주요 질문 내용 : '중장년'의 의미, 교육 참여 경험,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교육(프로그램) 참여할 때 주요 장애요인,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 일자리 지원기관의 중장년 지원 현황과 과제, 취·창업 활동지원 영역의 중장년 지원 현황과 과제, 중장년 대상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 중장년 생애재설계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자료 분석

- 국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분석
- 국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전환학습 지원 사례 및 정책 분석

❍ 전문가 FGI : 제주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20명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7명

❍ 전문가 검토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2명

제2장.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및 정책 현황

1. 외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 외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에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확산 등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음. 중장년을 위한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임. 이는 중장년의 은퇴를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중고령기 노동시장을 단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임

❍ 또한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과 관계없이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인 커뮤니티컬리지와 지역사회학습센터, 공민관, 시민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 후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대학중심의 학위과정 등 고등교육 프로그램도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운영체계가 대체로 일원화되어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성인계속교육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평생에 걸쳐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음. 고령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보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여 소득을 확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독일도 중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중장년 근로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적 계속교육을 위해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계속교육은 연방교육연구부 소관이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는 연방 내 부서간 연계,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평생교육사업 연계를 위한 주정부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교육과 관련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고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산화 체계로 운영 및 관리되어 있어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독일의 중장년층은 독일사회의 견고한 복지체계와 직업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상담, 직업중개, 계속교육지원, 직업진입지원 등을 포괄적인 근로지원을 받고 있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우리나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전개해 왔음. 실제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노년세대는 일찍부터 복지적 접근을 반영한 정책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겨난 노년 부양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촉발되었음.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여전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장년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어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6~'20)'이 시행 마련되었으나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실제적으로 정년제 정착이 미흡하고, 공적연금제도의 한계 등을 비롯하여 생애설계서비스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서비스 내실화에 한계가 등장하였음. 이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비로소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서비스의 개발,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을 일자리 지원기구 및 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모델로 제시하였음

○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에서 5060세대를 고령자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반영하였음.

또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의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기회 확충,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 훈련을 강화하였음

○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 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 그리고 국가단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확산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 확대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름. 국가 단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삼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특히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5060세대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준비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2015년 4월에 제정하고 관련 조직으로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신설하였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기관, 일자리관련 기관 등 기존의 관련기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교육 및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중장년(50+세대)은 노인층과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가족관계, 사회참여, 근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소득 구성, 건강,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사회참여활동을 비롯한 창업·창직·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중장년(50+세대)은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임에 주목하여, 점진적 은퇴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외국의 교육지원체계와 비교하여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외국은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누구에게나 일

상적 학습을 보장함으로써 별도의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학력은 높으나 인생 전반 삶에 대한 설계를 비롯하여 진로설계와 경력관리 등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무엇보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등장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달라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학습이 요구되는 것임

○ 그러므로 서울시 50+정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담-교육-커뮤니티-일자리로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와 50+당사자 기획과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의 제공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접근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수요자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 중심의 접근성 확보가 요구됨.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대학에서의 교육 지원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이 우선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정보의 제공으로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제3장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1.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인구 특성

○ 제주지역 2020년도 총인구는 69만 7,578명(내국인 674,635명, 외국인 22,943명)으로 2019년(696,657명)에 비해 921명(0.1%) 증가함. 이는 2020년 총인구가 10년 전인 2010년(577,187명)보다 20.9% 증가하였음

○ 2020년 제주도 노령화지수가 109.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유소년인구(14.0%)와 생산가능인구(7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15.3%)의 비중은 계속 상승 중이고 고령사회로 진입함

○ 제주지역 중장년(50~64세)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162,532명으로, 전체 인구 697,578명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음. 중장년(50~64세)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임.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106,533명(15.3%)에 비해 중장년 인구가 162, 532명으로 1.5배 더 많게 나타남. 향후 중장년이 65세 이상 노년기

로 전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제주지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제주도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율은 2020년 기준 32.2%로 2019년 34.3%보다 낮아졌음. 65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1.9%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장년에 해당되는 45~54세는 33.9%, 55~64세는 30.0%로 나타남. 대체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에도 다른 연령대보다 7~8%가 낮으나 20%정도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정 정도가 직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2.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가.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 제주지역에서의 공공 정책으로서의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정책은 「노후준비 지원법」의 본격 시행(2015. 12. 23)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2016년 당시 제주의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서면서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제기되었음. 당시 제주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본격 은퇴 및 노인층 진입에 따른 고령화 문제 발생을 예상하였음.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7.8.9.)하였으며,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인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과 후속으로 2021년부터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국가의 정책 시행 배경과 같이 고령화 대비 예비노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됨. 제주지역에서의 고학력 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으로 편입되기 시작되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반면에 수명 연장과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한편 기존 노인일

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남

○ 그러므로 제주 예비노년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은 두 가지였음. 하나는 예비노년층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수행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임. 2017년 시작된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은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음. 우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련하여 2017년에는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발전의 시기로 삼았음. 추진전략은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설정하였음. 각 전략별 접근성이 쉬운 지역 내 관계기관이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21년부터 조례에 근거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으로서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로의 전환됨. 새롭게 시작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은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중점 전략을 수립함. 비전을 장년세대의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 2막 지원으로, 목표를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내실화로 설정하였음.

○ 사업 추진방향은, 우선 고학력 전문직 장년층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컨설팅 등 지원 강화, 지역수요 및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정책 추진 내실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관 설치로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등에 두었음. 2021년 기준 총 28개 사업에 4,860백만원 규모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2017년 '탐나는 5060 프로젝트' 당시의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중심의 사업수행 체계가 유지 운영되고 있음

○ 이전 '탐나는 5060프로젝트'에서의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으로 2018년 8월 노

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전담조직으로 노인장수복지과 일자리지원팀이 신설되었으나, 초기 계획에서의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미완료되어 2021년 계획에 '제주5060센터 설립'이 지속과제로 남아 반영됨

나. 제주지역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 교육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의 일환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제주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으로 4개 학과(건강뷰티향장, 관광융복합, 부동산관리, 실버케어복지)가 신설되어 운영 중임

○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운영하고 있음. 특성화 고졸자들이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제공, 취업 후 진학 등 고졸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대학교는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체제 전환을 유도함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17학년도 신입생 99명으로 출발하여 2021학년도 졸업생 58명을 배출하였고, 복수학위 취득 학생 12명, 대학원 진학 16명으로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계함. 수요기반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창·취업관련 융합교육 교과과정 확대·운영하고, 학과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을 극복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창취업 공통과목 개발 및 융합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학력보완교육과정 10개 과목, 성인문해 교육과정 4개 과목, 직업능력 교육과정 21개 과목, 인문교양 교육과정 1개 과목, 예술문화 교육과정 5개 과목, 시민참여 교육과정 1개 과목을 운영함. 또한 학과 특성에 맞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인학습자의 욕구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제도로 재학연한제 폐지, 최소학점 기준 완화,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및 K-MOOC공동 교양과목 개발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정착화 ·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더불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비부담 경감 및 장학금 프로그램 확산 · 운영을 비롯하여 컴퓨터 기초, 기초 영어 등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지원을 운영함

다.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201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아 도 노인장수복지과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가장 격동기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바탕이 되었음. 그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공동체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전담하여 구심적 역할을 맡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미설치됨. 그 동안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체계로 사업을 추진되어 왔음. 이와 같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기반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의 사업체계는 기존 유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점에서 행정적·재정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함

○ 반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체로 자체 고유 업무를 갖고 있음에 따라 각각 별도로 부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업무는 별도의 추가 업무로 추진됨에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즉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한 다양한 중장년의 경력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임. 지난 5년 동안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제주의 중장년이 은퇴를 앞둔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새로운 일과 사회 활동의 탐색, 그리고 참여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서울특별시의 서울 50플러스 재단 및 지역 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한 종합 상담 체계 운영 사례에서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도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마련이 급선무임. 이를 통해 국가단위 지원정책과 제주 지역의 지원 현황,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중장년을 위한 지원 현황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이를 통해 지역에 산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된 은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로서 전 생애 발달과정으로써의 중장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함. 또한 이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 일 탐색 경험을 통한 전환학습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는 관점의 전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제4장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 및 전문가 FGI 결과

1. FGI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10명,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7명 등 총 27명임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표 4-1>과 같이 구분하여 2021년 9월 25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진행함

나. FGI 방법 및 내용

❍ 각 초점 집단별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와 관련 주요사항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된 내용을 면담 질문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구분함

❍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4-2> 참조)

〈표 4-2〉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 '중장년' 의 의미와 삶의 변화 · 교육 참여 경험과 결과의 활용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과 과제	· 제주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지역 취·창업 활동지원 영역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2. FGI 결과

가.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1) '중장년'의 의미와 삶의 변화

❍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하는 '중장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활동과 일자리 찾기,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만학도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동료들과의 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중장년기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체감하며,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베이비붐, 인생이모작 세대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명퇴와 퇴직 이후 새롭게 주어진 과제와 일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

음. 또한 나약하다는 생각과 도전이라는 말을 쓰기의 어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까하는 마음에서 오는 먹먹함 등을 토로하고 있음

- ❍ 한편, 중장년 시기를 상하관계 없고 자녀들의 독립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꿈꾸기도 하나 남은 시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느끼며,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함을 체감하고 있음. 또 중장년 시기를 100세 시대 전반기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로, 인생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로 알차고 의미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인식하기도 함
- ❍ 더불어 퇴직 이후 겪게 되는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노력,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한대 시기로서의 중장년 삶의 방식을 체득하며 사회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감정적 기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껏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지난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음
- ❍ 중장년층은 삶의 현안 과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이 퇴직 후에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현실에 대한 감회와 부담감을 내려놓자고 하는 내적 요구가 등장함. 더불어 자신이 부재할 시에 나타날 가족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선되고 있으며, 노후설계에 대한 미진함으로 인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준비와 사후에 나타날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고 있음
- ❍ 중장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한 자신감과 당면한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로서 중장년 시기를 인식하고 있음. 또한 새롭게 살아갈 앞날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만학도로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래 준비로 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중장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고 여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타격을 겪으면서, 사회초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의 안정화가 나머지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전제하여 배움의 결과를 일의 방향 재설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 또한 만학도로서 젊은 학생들에 맞춰 주고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계속 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주변인과의 관계 맺기와 성장에 도움이 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2) 교육 참여 경험과 결과의 활용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참여자들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음. 지역 내 대학과 도 및 행정시,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학습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원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양성 과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 참여하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 중장년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로서, 계속 학습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취업하거나 문단에 등단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칠 수 있음. 이는 달라진 중장년기의 삶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으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준비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해가는 과정임을 제시함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의 일환인 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활동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발견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함. 다양한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좋았으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유지, 그리고 같은 생각과 일의 공유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함

○ 만학도로서 늦깍이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로 무엇보다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는 데서 엿볼 수 있음. 상급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한으로 남아 있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는 회상을 통해 대학 입학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는 제도적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음

○ 성인학습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맞닿은 전공 수업에의 참여로,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업 참여 과정에서

협력하여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맛보면서 큰 만족감을 나타냄. 또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과과정인 에니어그램을 비롯한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교육적 성취로 나아가고 있음

○ 한편 자원봉사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배움을 시작하기도 함.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격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하였음. 근래 디지털 시대의 등장으로 인한 노년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펼치고 있음

나.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1)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 중장년 당사자의 희망교육 프로그램

○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시간과 생업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지역 간 격차, 교육환경의 온라인화,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몰이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 및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활동의 전개를 희망하고 있음

○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사자들은 풍요로운 노년의 삶 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기회를 요구하고 있음

-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자신을 위한 치유와 힐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및 웰다잉(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함
- 노후 설계 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음

○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 역량 강화가 필요함으로 토로하였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

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의 적용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높은 효과성을 발휘하는 학습 경험으로 지속적인 기대하게 함
-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 업무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 지속적인 배움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음

○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온라인·온프라인의 경계가 희석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음

- 실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기초를 익히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요구됨
-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와 영상으로 집약되면서 정보 접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2) 중장년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

□ 학습 환경의 제약 요인

○ 성인학습자 학습 여건에 따른 참여 제약 요인으로 배우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생업으로 인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참여의 어려움, 거주지와 먼 거리의 교육 장소, 산남(서귀포시 지역)과 산북(제주시 지역) 지역 간의 교육참여 기회의 격차, 학교 입학에 대한 가족의 반대 등이 학습 지속의 제약 요인을 제시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의 온라인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강신청부터 비대면 수업의 강화 등 변화 상황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만학도)에 대한 교수자(강사)의 몰이해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식의 한계로 인해 학습 참여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였음.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강사)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요구됨

□ **교육 운영 방식의 한계와 교육비 등 환경 조건의 제약 요인**

○ 퇴직 이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음에 아쉬움을 나타냈음

-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지속 활동을 위한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지원체계의 마련을 요청하기도 함
- 교육기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대상 구분 없는 참여자 모집으로 인해 생겨나는 기존 교육생 중심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과 자격과정 신청을 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또 어렵게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시작할 때와는 달리 교육 수료 시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무책임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함

○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끼리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모임과 자원활동을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음. 더불어 제공되는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3)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통한 성장**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함.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나눔을 펼치면서 보람을 만끽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수료 후 사회적 일자리로 이어졌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에 참여한 결과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 전문교육과정 참여 후 후속과정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음
-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을 유익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담당 실무자의 사전 안내와 교육 지원이 학습 동기의 강화로 이어졌음

-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지와 학습 지원, 학습방법의 적용이 성인학습자의 성장에 영향력을 끼침
- 또한 늦깍이 대학생으로 시작한 만학도로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위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식을 바꿔 냈고, 학교 생활을 통한 성장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한 성취감을 나타냄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의 과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 중장년세대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 삶의 형태와 노년기 준비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살아 온 삶을 조망하고 앞으로 닥칠 삶의 변화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또 중장년세대가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아쉬운 사항으로 공유 공간 및 필요 시설의 제공으로 나타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위한 기제로 교육과정 참여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위한 기회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 특히 인생학교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 마련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참여 범위가 50~64세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제고를 요청함. 특히 사업 참여 제한 연령인 64세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사회적으로 젊은 세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중장년 세대의 사회 참여 및 실천 활동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제공이 필요함

-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의 지속은 실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제공으로 보장할 수 있음. 이는 학습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며,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역량

개발의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생애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중장년 세대가 사회적으로 청년회와 노인회 사이에 위치하여,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장년회 조직·운영을 희망하며,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으로 중장년세대의 기존 활동공간인 특정 시설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의 제공도 요구함

-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 준비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참여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과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선호하여, 인생설계교육 운영 과정에의 반영을 희망함

○ 중장년세대가 부모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 참여의 범위를 기존 50~65세에서 69세까지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장년 대상에게는 일과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노년 세대를 위해서는 건강, 여가와 관련된 교육 및 디지털화된 환경의 실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함

- 더불어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로 지역의 행정,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 수료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봉사 활동 지원, 교육 참여자 중심의 단체 결성 등 종합 플랫폼 기능의 수행을 요구함

다.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 및 과제

1) 제주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차이로 인한 한계 상황 발생

○ 중장년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의 구직자 이용 대상은 만 40세 이상으로 중장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중장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또한 40대와 50대, 60대의 수요와 역량이 다름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따름

- 취업 교육과정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추진되면서 디지털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로 하고 있음
-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전문분야 퇴직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요구가 없는 반면, 생계가 어려운 대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이면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

○ 지역 중장년 일자리 여건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중장년 일자리 연계의 한계 상황 발생하고 있음

- 중장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할 수 기회가 부족하여 높은 경쟁률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중장년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의 확충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현황

○ 중장년인 만 60세 이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도 단순 활동 지원 일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재능나눔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음

- 2019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월 27만원의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던 일자리들이 70만원이 넘는 보수에 전문성을 갖춰 활동하는 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확대되어가고 있음
- 이를 위해 특정한 영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발 후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안 되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요구되었음

- 또한 이용자들이 지역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정보의 미비로 제공을 못하였음
- 향후 지역의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이 요구됨. 시니어클럽에서 2022년부터 노인 전문취업 과정 교육이 종료되어 지역의 관련 기관의 교육과 연계한 전문교육 운영이 필요해 졌으며, 관련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발생함

○ 노인일자리에서의 사회서비스 사업 급증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해짐. 그러므로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바, 업무 담당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2) 제주지역 취 · 창업 활동지원 영역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지역 중장년 창업 지원 현황과 현안 과제

○ 사회적 경제의 여러 유형들이 관련 부처를 통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 사업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장년 당사자의 수요도 많지 않음

- 사회적으로 취·창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제 중장년들의 창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충분치 않아 실행이 어려운 환경으로 창업 활동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기존 창업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분석과 실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충분이 훈련된 이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연계하는 마을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공공정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 사업과 마을 및 주민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사업적 경제 기업 및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접근 바람직함

□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살펴보면, 50대 이후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아야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해서 시작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지만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삶의 지표를 재정비하는데 참여의 의미를 둠

○ 은퇴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소집단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활동은 상호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일의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일자리 모색을 위한 계속 학습도 필요함
- 이제 일자리들이 4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장년 및 노년세대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임. 이미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과 중장년 일자리 현황

○ 코로나19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자활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수급권자의 급증과 일자리가 소멸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자활기업의 경제 활동 주체의 형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활기업에서의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경력 관리 등이 필요함.
- 중장년이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이어가던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비해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충분히 제공해야함

3)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참여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중장년과 노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기관을 두어 50세부터의 삶을 지원하는 접근 필요하며, 공공 행정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 조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년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한 전환 노력 필요**

○ 60대 이상이 다수 창업한 6차산업 인증기업인 농업기업 등에서도 참여층이 40대 전후 세대로 창업이 확대되고 있음. 또 관련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며, 세대 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 중장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세분화하여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므로 세대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들을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지원정책의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일자리와 생애재설계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는 영역별로 균형잡힌 교육과 접근이 필요하나, 생애경력설계 중심의 일자리 지원 기관에게는 일자리 성과에 초점을 맞춰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일자리 지원에서의 직무특화교육과 복지 지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배제되어 있음
- 또 국가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제주에서의 확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 후 종료되었음.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제외되어 실시되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교육 지원 이후의 활동 지속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신중년 경력 일자리 지원사업 이후 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사업 개발 지원 및 공유 공간 제공, 인큐베이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이 필요함

□ 노년기 삶 준비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노년기 진입에 앞서 중장년 세대의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연계 노력이 중요함

□ 중장년 이전 세대부터 삶의 전환 준비 지원 필요하며, 중장년을 위한 센터 필요

○ 5060세대를 넘어서 40대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브랜드로서 '중장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마을 중심의 중장년의 참여 활동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되새김하는 접근이 가능해야함

- 은퇴 전 생계 중심의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서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돕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
-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로서 자원봉사도 일자리로서 재정립할 수 있으며, 5060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 집단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감으로써 사회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가.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성인계속교육 지원 체계 구축, 전환학습 및 일자리 연계 원스톱 지원 활성화,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 기반조성, 중장년 인생재설계 지원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분류하였음

1) 성인계속교육 지원 체제 구축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과 관계없이 생활공간 가까

이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 기관에서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은퇴 전후에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성인학습자 대상의 고등교육이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계속교육 지원이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재정립이 요구됨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계속교육의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동시에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에도 중장년 인생재설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2) 전환학습 및 일자리 연계 원스톱 지원 활성화

○ 우리사회는 중장년 세대의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실제 상황은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2017년부터 연장된 60세인 정년제 정착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불안에 놓여 있음.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한계 등으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우선 중장년 세대가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점 전환을 위한 학습과 다양한 일자리의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이로써 중장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상담, 계속교육지원 및 일자리 진입 지원 등을 자리매김할 수 있음

3)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 기반 조성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음. 중장년(50+세대)은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써 노인층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교육 참여와 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창업·창직·일자리 찾기 서비스 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중장년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치유와 힐링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관리, 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한 노후 설계 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인간관계 맺기 훈련, 사회

참여 활동 준비교육 및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 지원이 필요함. 또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제고와 적정한 교수방법, 그리고 교육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중장년 당사자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의 설치를 통해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4)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연계 ·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전달체계가 중요함.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가 단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삼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구심적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해 오고 있음. 공동의 방향성 설정과 사업 간의 호환을 위해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갖춘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나.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

○ 제주 중장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 학습의 선행과 새로운 일 탐색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는 전환학습으로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역량 기르기가 중요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들은 앞서 언급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질적 향상, 중장년의 학습-일 경험-관점 전환 중심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나누어 제언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안)

구 분	주요 과제	비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중장년 삶과 연계한 교육 지원 접근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의 역할 정립 및 제고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종합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확대	
	· 중장년 상호학습 및 소통을 위한 공유 공간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질적 향상	·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방향성 정립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마련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중장년의 학습-일 경험-관점 전환 중심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마을에서 시작하는 중장년의 삶과 전환학습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중장년 역할 강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개선	
	· 학습과 일 경험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성장 지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 내용 ····· 7

나. 연구 방법 ····· 8

제 2 장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및 정책 현황 ····· 9

1. 외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 11

가. 미국 ····· 11

나. 일본 ····· 18

다. 독일 ····· 23

2. 우리나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 29

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 ····· 30

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 34

다. 국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 52

3. 요약 및 시사점 ····· 59

제 3 장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 63

1.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인구 특성 ····· 65

가.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 ····· 65

나.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 현황과 특성 ····· 69

2.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 73

가.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현황 ····· 73

나. 제주지역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 86

3. 요약 및 시사점 ····· 97

제 4 장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 및 전문가 FGI 결과 ····· 103

1. FGI 개요 ····· 105

가. FGI 대상 및 기간 ····· 105

나. FGI 방법 및 내용 ····· 106

2. FGI 결과 ····· 108

가.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 108

나.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 119

다.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 및 과제 ····· 136

3. 요약 및 시사점 ····· 154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7

1. 요약 및 논의 ····· 169

2. 정책 제언 ····· 178

가.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 ····· 179

나.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 ····· 182

참고문헌 ····· 195

표 목 차

〈표 2-1〉 미국의 은퇴자 및 노년 교육기관 유형과 주요 활동 내용 ····· 14
〈표 2-2〉 SCSEP 프로그램의 개요 ····· 17
〈표 2-3〉 공민관의 학급·강좌 수강자 수(2004년도) ····· 20
〈표 2-4〉 독일의 중장년 및 노년준비 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주요 내용 ····· 26
〈표 2-5〉 신중년 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 36
〈표 2-6〉 생애설계 노후준비서비스 방안 (예시) ····· 36
〈표 2-7〉 평생교육 체제 운영 모델 ····· 48
〈표 2-8〉 지원대학 현황 ····· 49
〈표 2-9〉 지원자격 ····· 51
〈표 2-10〉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관련 정책 및 사업(2020년 기준) ····· 53
〈표 3-1〉 연도별 성별 인구(2013~2020) ····· 65
〈표 3-2〉 읍면동별 성별 인구(2020) ····· 66
〈표 3-3〉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13~2020) ····· 66
〈표 3-4〉 행정시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2020) ····· 67
〈표 3-5〉 2020년 전국 및 제주 중장년 및 노인 인구 현황 ····· 70
〈표 3-6〉 행정시별, 성별 중장년(50~64세) 인구(2020) ····· 70
〈표 3-7〉 2020년도 제주도민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 72
〈표 3-8〉 2016년 시 · 도 베이비붐세대 지원사례 ····· 75
〈표 3-9〉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추진실적('17. 9.~'18. 8.월말 기준) ····· 82
〈표 3-10〉 2020년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 ····· 84
〈표 3-11〉 2021년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 85
〈표 3-12〉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입학 현황 ····· 88
〈표 3-13〉 학과별 온 ·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현황 ····· 89
〈표 3-14〉 성인학습자 융합교과 비학위과정 운영 현황 (2021-2021년도) ····· 90

〈표 3-15〉 학과별 수업 운영형태 ····· 92
〈표 3-16〉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법 · 교수법 운영 ····· 93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 105
〈표 4-2〉 조사 내용 ····· 107
〈표 5-1〉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활학습 활성화 대응과제(안) ····· 194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8
[그림 2-1] 독일 시민대학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 ····· 25
[그림 2-2] 독일 시민대학 연령대별 참여 현황 ····· 25
[그림 2-3] 독일 시민대학 운영 주체별 예산 분담 현황 ····· 26
[그림 2-4] 노후준비 지원 추진 체계도 ····· 35
[그림 2-5]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모형(안) ····· 38
[그림 2-6]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체계도 ····· 40
[그림 2-7]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 46
[그림 2-8] 사업추진 경과 ····· 47
[그림 2-9] 2021년도 지역별 지원대학 현황 ····· 50
[그림 2-10] 2021년도 지역별 지원대학 현황 ····· 51
[그림 2-11] 50+지원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기반 ····· 55
[그림 2-12] 서울시 50+정책 실행주체와 역할 현황 ····· 56
[그림 2-13] 서울시 50+정책 인프라 구축 현황 ····· 56
[그림 2-14] 서울시 50+정책사업 영역 ····· 57
[그림 2-15]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체계 ····· 58
[그림 3-1] 연도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2012~2020) ····· 65
[그림 3-2] 행정시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비율(2020) ····· 67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 노령화지수 추이 ····· 68
[그림 3-4] 연도별 행정시별 총인구 추이 ····· 68
[그림 3-5] 연도별 인구성장률(%) ····· 69
[그림 3-6] 2017~2037 행정시별 중위연령 ····· 71
[그림 3-7] 행정시별 생산연력인구 및 구성비 ····· 71
[그림 3-8] '탐나는 5060프로젝트'추진 전략 및 과제 ····· 77

[그림 3-9]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추진체계도 ····· 81
[그림 3-10]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비전 및 전략목표 ····· 87
[그림 3-11]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88
[그림 3-12] 성인친화적 교수법 개발 운영 ····· 92
[그림 3-13]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Process ····· 94
[그림 3-14]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 95
[그림 3-15] 성인학습자 지원 운영 프로세스 ····· 96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근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누구나 체감하는 일상과 삶의 여정에 놓여 있음. 더구나 정보사회를 넘어서 AI의 등장 등 디지털화 된 세상과 맞닥뜨림과 동시에 저출산·초고령화시대라는 사회 기저의 큰 변화로 인해 누구나 생애 경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특히 은퇴와 노년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생애 재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아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를 계기로 범부처 인구정책TF를 두 차례 구성(1차 '19.4., 2차 ' 20.1.)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로 4대 분야(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의 정책 과제를 발표함. 이어서 관계부처 합동 계획으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을 3대 인구 리스크로 규정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총론인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을 발표(' 21. 7.7.)하였음

❍ 여기서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대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 명)의 은퇴가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까지만 해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음. 당시는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음.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고,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음. 제1차(' 16~' 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 16. 12.)에 이어 현재 제2차(' 21~' 25) 기본이 발표(' 20. 12.)되어 시행중임. 더불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 신중년일자리 확충방안(2018), 제4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을 통해 범부처 기획 형태로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주에서도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민·관 공동의 논

의를 거쳐 “탐나는5050 프로젝트 –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을 수립(‘17. 4.)하였음. 제주지역에서 매년 9천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 대두되면서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였음. 기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정점을 두고 있어 고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특히 실제 살아가야 할 수명의 연장과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을 갖고 있음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와 같은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비노년층 사회공헌형 중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탐나는5060 프로젝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17. 8.)’에 의거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으로 전환하여 수립 실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명 ‘낀 세대’라는 삶의 조건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그러므로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년준비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함. 그래서 무엇보다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마련함

❍ 한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쟁 후 한꺼번에 생겨난 세대를 일컬었는데, 특정한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높아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먼저 미국에서 보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4년까지 베이비붐이 일어난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후 세대, 특히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함.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예비노년층으로서 특정한 시기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에 대해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다가, 점차 저출산・고령화시대 등장에 따른 인구구조와 일자리 특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특정한 나이인 중장년세대(50~64세)로 변화하면서 국가의 정책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었음

❍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변화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 만남을 누리던 일상은 어느새 특정한 일터에서

생활공간으로 확장된 재택근무가 익숙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화상회의와 교육이 넘쳐나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음. 이제 원격의료와 비대면 종교 활동도 어색치 않게 되었음. 이와 같은 사회적 대전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장년의 삶 또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이제 중장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 재설정 및 생애재설계, 일 탐색과 사회 참여 활동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즉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전 생애에 걸친 인생재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이 같은 인생재설계는 학습의 선행이 그 토대를 이루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여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찍이 영국에서는 1919년에 성인교육위원회가 창설되었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 성인교육 개념이 정착되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부터 성인의 문해력과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공공정책으로 성인계속교육(Roumell & Martin, 2021, pp. 38~46)이 등장하였음. 대체로 지역사회가 주도하거나 컬리지(College)가 주도하여 비학위 프로그램과 학위과정 프로그램으로 제공함
- 우리나라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음. 더불어 2000년 초기부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다양한 지원체계들을 마련하였음. 이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옴. 더불어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대학중심의 평생교육체제로 개편한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 중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처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의 정체(2020년 기준, 40.0%)와 평생교육 참여자의 학력과 소득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이용자의 편중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평생교육 시설 분포 차이 및 이용 접근성 취약,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의 제한 등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202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 학령기를 지나면 거의 학습에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며, 특히 50~59세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5분, 60세 이상은 2분에 그치고 있음을 통해서 한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2017년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나이가 71.4세라고 하였는데, 실제는 학령기를 지나면 거의 학습에 시간을 활용하지 않은 채 일터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제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 세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애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삶 전체를 과장할 수 있어야함. 이를 위해 중장년 세대의 다양한 학습과정과 사회참여가 필수적이나,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대체로 노인 세대를 위한 사회참여에 중점을 두어 왔음
-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도 경제적 활동 분야에 국한되었고, 근래에 들어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안정과 더불어 자원봉사, 새로운 지식 및 정보 취득과 학습, 사회적응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홍숙희 · 정여진 · 고승한 · 이화진, 2020)
- 무엇보다 중장년 세대가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의 중요하고 현저한 발달 영역인 관점 전환이 요구됨. 관점 전환은 이해와 행동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천, 즉 프락시스(praxis)를 의미하는데, 프락시스를 통해 변화된 존재 상태로 만들어 감. 이는 중장년 세대가 자신의 역할 검토 및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을 동반하는 전체 전환 사이클로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 자율성, 자기통제, 삶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되는 과정으로, 새 관점에 대한 재프레임, 자기결정권의 확대와 삶에의 재몰입 등 전환적 프로세스를 통해 성숙해감(김애순, 2006)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5.3%(106,533명), 그리고 중장년 세대(50~64세)가 23.3%(162,632명)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보다 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제주지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를 위한 사회참여와 더불어 생애재설계를 위한 전환학습을 통한 생애 관점의 전환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진단과 재조명은 시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의 재정립에 중요한 정책 과제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정책과 실태 및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두 집단과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령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 생애발달 과정으로써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전환학습 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중장년 대상 교육의 주요 특성과 정책 지원 분석
❍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 제주지역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화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당사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초접집단면접(FGI) 조사

- 대상 : 제주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10명,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7명
- 주요 질문 내용 : ‘중장년’의 의미, 교육 참여 경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교육(프로그램) 참여할 때 주요 장애요인,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기관 수행 중장년 대상 지원사업 현황,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개선점, 중장년 대상 교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 변화, 중장년 대상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 중장년 생애재설계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장년 생애재설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

나. 연구 방법

❍ 선행연구 자료 분석

- 국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분석
- 국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전환학습 지원 사례 및 정책 분석

❍ 전문가 FGI : 제주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20명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7명

❍ 전문가 검토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 학계 전문가 2명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검토	➪	• 해외 및 우리나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및 관련 정책 검토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3단계	FGI 실시	➪	• 중장년 당사자(제주 장년층 생애설계 지원사업 및 미래융합대 재학생) 대상 초점집단면접 조사 실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 면접 실시
4단계	전문가 검토	➪	•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 확인
5단계	분석 · 집필	➪	•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집필

제 2 장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및 정책 현황

1. 외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2. 우리나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3. 요약 및 시사점

○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등장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길어진 인생주기를 살아야하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관련된 사회적 정책의 수립과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노년 세대의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넘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의 노년기 삶 준비와 질 높은 노후설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는 중장년 시기를 노년기 이후 생을 마감할 때 까지 계속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서 접근하는 성장지원 관점의 적용이 요구됨. 그러므로 기존의 일자리 지원 중심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사회변화 이해와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미 선진국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본 장에서는 외국(미국, 일본, 독일)과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교육 지원과 일자리 지원 사례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더불어 제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함

1. 외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가. 미국

1) 중장년 교육 지원

○ 미국의 중장년의 교육 지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제정된 「성인교육법」과 「평생학습법」을 통한 성인 교육에 포함되어 있음. 「성인교육법」은 성인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기초교육의 이수, 활동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의 양성, 직업훈련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함(김종서 외, 2009). 「평생학습법」은 직업훈련, 기초소양교육 등으로 내용과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미국의 모든 국민이 연령과 성별, 경제

적 조건, 교육배경과 무관하게 공평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의 평생교육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

○ 1925년 교육부에 성인교육과가 설치되었고, 1951년 성인교육협회가 설립되면서 성인대상 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조사가 활성화 되었고, 1956년에는 전국 공립학교의 성인교육협회가 성인교육협의회 산하기구로 발족된 후 전국성인계속교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Roumell & Martin, 2021, pp. 38~46)

□ 공공부문의 법·제도 지원체계

○ 미국의 성인교육 및 문해교육제도는 「직업능력투자법」과 「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지원함. 초기 소외계층의 성인학습에 초점을 두던 문해교육프로그램이 확장되어 직업기초 소양을 위한 문해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미국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은 대체로 지역사회에 배치된 1,000여개의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와 '테크니컬 컬리지(Technical College)'가 주로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음.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는 대다수가 공립(89.5%)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2017년 기준으로 학습자의 등록금 비중이 27.8%임.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학생 중 학위과정은 58%(700만명), 42%는 비학위과정(500만명)이며, 전일제 학생은 37%(260만명), 시간제학생은 63%(440만명), 여학생은 56%, 남학생은 44%임. 그리고 학생의 연령 구성에서 22~39세 38%, 40세 이상이 9%를 차지하고 있음. 대체로 학위수여자 중 다른 학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수로 성인대상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음

○ 한편 미국의 대학 또한 19세기부터 수업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이러한 대학평생교육은 확장교육(extension program) 서비스에서 성인계속교육(adult &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으로, 최근에는 학력취득과 전문자격을 제공하는 전문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으로 변천하고 있음(권인탁, 2009)

▢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사례

❍ 미국의 중장년 교육 지원[1]은 노년 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되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1950년도에 연방노인위원회는 설립되었고, 노인의 독립과 건강 개선 및 미래세대 위한 지속적 활동 지원함. 백악관 노년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는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회의로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1982년 회의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을 천명하여 자조의 개념을 강조하여 모든 연령층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 개방이 제안됨. 이런 제안은 노인의 자원봉사와 직업교육, 퇴직 후 재취업 교육, 리더십 교육, 자아개념 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발전하게 됨.
- 1995년에 '21세기 노인정책'을 주제로 노인의 성공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논의됨. 여기서 노인문제를 노인 자신만의 단세대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세대 간 공통과제로 인식하고 가족 문제로 확장하여 세대공동체 노인정책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 2015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주제로 회의가 열렸음

❍ 1986년에 시작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연방 포럼'은 12개 연방정부 부처와 지역사무소 간의 공동으로 개최되어 노인 관련 국가적인 자료 수립과 활용을 위한 회의로 발전하였음

❍ 미국의 은퇴자 및 노인교육 기본방향은 주로 상담, 정보제공, 학습활동 참여 독려, 지원 등을 통해 은퇴자 및 노인으로 하여금 주체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적 교육욕구 충족을 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 지도자로 전환하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있음

❍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은퇴자 및 노년교육기관의 유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학 주도형, 지역사회학교, 개인기업 차원의 오아시스, 시니어센터, 종교단체 연합 프로그램인 세퍼드 센터가 있음. 이들 은퇴자 및 노년교육 기관들의

---

1) 한정란 외(2006)「세계의 노인교육」, 교육인적자원부(2007)「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교육 발전 방안 연구」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고, 홍숙희정여진·고승한·이화진(2020).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발취하여 수정 사용함.

주요 활동을 요약한 내용은 <표 2-1>과 같음

<표 2-1> 미국의 은퇴자 및 노년 교육기관 유형과 주요 활동 내용

기관 유형	주요 내용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과 지역사회 학교	· 50세 이상이 참여하는 일반대학과 연계된 전문 학사학위 취득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한 저렴한 수업료로 학력 보완 프로그램, 학습욕구 충족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음
은퇴자 학습센터	· 지역 내 거주 노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식 인가 받은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의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 · 최소한의 회비와 수업료만으로 대학의 다양한 범위와 내용의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제적 궁핍 정도에 따라 학비를 보조해 주며, 교수자와 지도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학습자에게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경험을 제공함
엘더 호스텔	·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는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1975년에 뉴햄프셔 대학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됨 · 초창기 5개 대학에서 1981년에는 406개 대학으로 급속도로 확산됨. 또한 1991년에는 45개국 1,300개 기관이 연계됨. 현재는 90여개국에서 55세 이상 노인 30만명이 참여하고, 프로그램 수도 1만여개 제공함 · 덴마크의 공민학교와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여행, 학습, 휴가의 개념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중산층 전문직 퇴직자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노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됨 · 대학과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달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머물면서 고등교육 교과과정을 접하는 기회를 가짐 · 야외활동, 공예, 집중학습, 봉사 공연, 탐험,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노년교육 프로그램 사례	· 캠퍼스 내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 세대공동체 협동연구, 자원봉사, 복지, 은퇴 계획 등의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 은퇴 후 자신의 전문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 집중학습반에서는 지역정치지도자, 노인협회 지역사무소 관리자, 산업체 대표, 시민지도자들의 강의 통해 지역사회 이슈와 정보 제공 · 노인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공헌하도록 함
UCLA 플라톤 소사이어티	· 은퇴했거나 은퇴 준비하는 50세 이상 은퇴자 대상의 학습동아리 활동 · 회원은 예술, 자영업, 전문직, 자원봉사 분야에서 20여년 동안 종사한 남녀로 구성 · 년중 25개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수준 높은 것으로 지적 호기심 충족 · 동료 회원의 전문적 경험을 듣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능동적 분위기로 자기주도학습으로 질적 교육 운영

출처: 홍숙희 · 정여진 · 고승한 · 이화진(2020).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pp18~19. 수정하여 사용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미국은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1970년대 말부터 노동자들의 조기 은퇴 감소와 사회보장

연금 예산의 부족 문제 해소 위한 단계적 퇴직 연령 향상과 고령기 근로 인센티브들을 확대하였음. 특히 석유 파동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로 미국 노동자들의 증가된 근로수명과 함께 은퇴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남. 1990년대 말 이후 미국 고령자들의 은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 연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중고령기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여혜수, 2021)

❍ 미국의 중장년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은 중장년층들의 은퇴 전과 후로 구분됨. 우선 은퇴 전에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지속성 확보 정책을, 은퇴 후에는 중장년들이 유연하게 고령친화적인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정책임.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정책으로 ① 정년제 폐지, ② 단계적 퇴직, ③ 유연 근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실제는 중장년들이 경제활동의 지속을 원하나 녹록치 않은 노동시장의 한계로, 미국 내 노동시장의 제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데 두었음. 또한 은퇴 후 정책으로는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고숙련화와 취업지원 정책이 있음(김인엽 외, 2017)

▢ 공공부문의 법·제도 지원체계

❍ 여러 법에 나누어져 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노동력투자법」 제정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 고용, 소득 수준 향상으로 복지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 하였음. 이로써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인력개발 시스템을 지역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김인엽 외, 2017)

❍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노동력혁신기회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인력투자법」을 대체하고 있음. 이 법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American Job Center’ 시스템의 향상과 실직근로자 및 구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짐. 구직자들이 고용주의 요구에 맞게 기술 습득 및 자격 취득과 능력향상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함(민상기 외, 2015)

❍ 한편 고령 고용자들의 실패와 승진・실업・재취업 시 임금 삭감 등 부당한 대우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이 국가 문제로 부각됨. 노인인구 증가와 소득보장 및 의료비 등 국가 부담 예산 문제가 연령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

의 계기가 되어 1967년 최초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됨. 법 제정 당시는 미국은 40~65세까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정년 연령의 연장에 따라 대상자의 폭이 1978년 40~70세로, 1986년에는 정년연령의 폐지에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장되었음(Adams, 2004; 김인엽 외, 2017 재인용). 다만 55세 이상의 경찰·소방관 등 신체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강제퇴직이 가능한 주법을 제정할 수 있음. 또 65세 이상의 경영간부직이나 고위정책 입안 직에 2년 이상 고용된 자 중 4만 4천달러 이상의 퇴직 연금 수령이 가능한 자의 강제 퇴직은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됨(이기한, 2010)

▢ 중장년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 ❍ 미국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연장된 노동생애를 보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공급 전략으로 직업훈련과 같은 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특히 저소득 노동자들이 축적된 저임금 및 불평등으로 은퇴준비가 어렵고, 중고령기에 안정적인 직업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우선 지원함(김인엽 외, 2017; 여혜수, 2021)
- ❍ 미국의 근로 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노동력 혁신기회법에 근거하여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행정국을 통해 성인 및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 무역 조정 지원,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관할함. 이 프로그램들은 통합적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 각 주 정보 및 지역사회 정부 부처들과 지역 복지 기관 등을 거쳐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여혜수, 2021)
- ❍ SCSEP는 유일한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1965년 미국 고령자법 제정에 따라 연방빈곤선 125% 이하의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 중고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임.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근로 경험 및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기간 동안은 주 20시간 이하 근무를 조건으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의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 것임. 더불어 지역사회센터의 SCSEP 담당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함.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영리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자의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한다는 것임(여혜수, 2021)

○ SCSEP 프로그램은 운영 목표는 ①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 ② 저소득 장년층 생활 수준 향상, ③ 지역사회 지속적 발전에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장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비영리기구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커뮤니티 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관련 일을 하게 됨

<표 2-2> SCSEP 프로그램의 개요

SCSEP(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개요	- Older American Act: OAA에 따라 1965년 시작되었으며, 4개의 주에서 농촌지역의 미화 프로젝트에 약 300명의 노인을 고용하였음
대상	- 55세 이상 - 미국에서 일할 법적인 자격을 갖추었으며 실직한 자 - 소득가구 수준이 최저 임금수준(최저 소득수준)의 125%가 넘지 않는 자 - 특별대상(65세 이상, 장애자,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농촌지역 거주자, 제대군인, 고용가능성이 낮은 자, 노숙하거나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는자)
관리	- 연방고용부의 고용, 훈련 관리(The U.S. Department of Labor Empolyment and Training Adminstration DOLETA)가 담당하며 56개주 및 준주 정부에서 담당 - 연방 보건 서비스부에서는 SCSEP를 제외한 모든 OAA프로그램을 담당
분야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서비스에 종사(아래에 국한되지 않음) - 아기 돌보미(Child care provider) - 고객 서비스 담당(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 보조교사(Teachers' aide) - 컴퓨터 기술자(Computer technician) - 빌딩 유지보수 근로자(Building maintenance worker) - 보건의료 관련 근로자(Health care worker)
경제적 지원 및 제공 서비스	- 1주에 20시간 작업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의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이 적용 - 좀 더 영구적인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전 6개월간 참여 - 최종 목표는 참가자의 30%정도가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 개별 고용계획의 개발, 오리엔테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에 배정 및 구체적인 훈련, 개별 고용계획에서 필요한 훈련, 급료, 부가적인 복지혜택, 일정주기의 신체검사, 고용진행시 지원, 미국 지역 아메리칸 잡센터로의 연계
배치	- 보육센터, 노인센터, 학교, 병원을 포함한 비영리 및 공공시설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다양하게 배치됨
성과 및 예산	- 4억 2,48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2013) / 2019년 기준 4억 341만 2000달러 집행 - 22%는 각 주에 배분, 78%는 SCSEP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은 반드시 10% 이상의 매칭 기금을 마련 - 71개의 기관(15개의 비영리기관과 56개의 주 및 준주정부)들이 관리 및 운영 - 등록된 참가자: 69,800명(2012~2013 기준) / 2019년 기준 47, 331명 대상 - 원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비율: 42.5% - 남성 35%, 여성 65%, 소수민족 46% - 빈곤수준 이하: 88%

출처: 민상기 외(2015). 중장년 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p100. 수정 보완하여 사용

나. 일본

1) 중장년 교육 지원

○ 일본의 교육관련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이 존재함. 1949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일본의 사회교육체제는 전쟁이전의 사회교육의 반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사회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자리매김함(김종서 외, 2009). 이와 함께 「생애학습진흥법」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중장년 교육 지원과 관련성이 깊음

○ 일본의 사회교육법은 시정촌 단위에 공민관을 설치하여 전국에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시설로, 그리고 지역거점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확립하였음. 사회교육법에서 공민관은 시정촌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제 20조)을 '시정촌 그 외 일정구역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 생활에 맞는 교육, 학습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행함으로써 주민의 교양의 향상, 건강의 증진, 정서의 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하였음(김윤정, 2008)

○ 일본의 평생교육 정책은 문부과학성 이외에도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해양농수산성, 환경성 등 다양한 부처와 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시니어계층 고용정책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실버인재센터, 시니어계층사업단, 인재은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권기창, 2014)

□ 공공부문의 법·제도 지원체계

○ 공민관은 사회교육법 제3조에서와 같이 실제 생활에 입각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니기 편한 생활권(중학교 학구)에 위치하는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배움의 장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에 공민관은 근로 청년들과 주부 등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학습하는 '장' 이 되었음. 공민관은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지자체에 약 18,000개의 공민관(분과 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음. 공민관에 개설되어 있는 학급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 이용자는 2억3천 명 이상임(정현경, 2013). 일본에

서 공민관은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자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중장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이후, 공민관은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대에 환경문제에서부터 고부갈등, 빈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음. 나아가 학습자 개인의 만족에 그치는 학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학습을 지역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중시되고 있음(홍숙희 외, 2020)
- 「생애학습진흥법」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보의 범람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대두가 제정 배경임. 법 제정을 통해 ‘도도부현’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체계의 기준을 정하고 ‘도도부현’생애학습심의회의 설치와 지역의 생애학습 진흥계획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고 있음(김윤정, 2008)
- 1998년에 제정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민간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그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민주시민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함.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들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평생학습을 실행하는 평생교육 활동의 추진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김윤정, 2008)

□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사례

- 일본의 중장년 교육 지원은 별도의 대상별 교육지원보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공민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전개되었음
- 공민관의 역할 중 대표적인 것(정현경, 2013)은 공민관 주최의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하는 ‘기획강좌운영’임. 예를 들면, ‘00사회학급’, ‘00인권학급’, ‘ 00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으로 강좌가 끝나면 후속 소모임인 ‘자주학습집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를 지원함

〈표 2-3〉 공민관의 학급·강좌 수강자 수(2004년도)

학급강좌	개설 건수(%)	수강자 수(%)
교양의 향상	252,973(61.7)	6,052,038(51.0)
체육·레크리에이션	51,815(12.6)	1,752,902(14.8)
가정교육·가정생활	39,519(9.6)	1,458,902(12.3)
직업지식·기술의 향상	16,742(4.1)	333.698(2.8)
시민의식·사회연대의식	24,388(5.9)	1,246,338(10.5)
기 타	24,577(6.0)	1,034,433(8.7)
합 계	410,014(100.0)	11,878,119(100.0)

* 출처 : 문부과학성(2006). 2005년도 사회교육조사 보고서에서 산출, 데우치 아키토시, 오지마 미와(2010). p132, 김윤정(2008); 홍숙희 외(20200) 재인용

○ 다음은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자주 기획 강좌' 임. 각 강좌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담당하면서 회의기법과 토론 방법, 실무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강좌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줌. 이를 통해 공민관은 지역의 다양한 주민모임의 거점이 되고, 유아부터 노년세대까지, 여성·남성 모두가 이용함

○ 더불어 공민관은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 장소임. 많은 공민관에 작은 카페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를 두어 지역의 장애인, 여성, 노년층 등이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도 활용함

○ 이와 같은 공민관은 전후 6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지자체에 약 18,000개의 공민관(분과 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었고, 각 공민관 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음. 공민관에 개설되어 있는 학급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 이용자는 2억3천 명 이상임(정현경, 2013)

○ 일본은 199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 대한 대응으로 「고령사회대책법」 제정에 의해서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함. 이에 따라 일본은 노인교육을 우선 사회적 과제로 삼아 노인의 경제적 자립, 노년기의 삶의 보람,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과 연계하면서 고령화에 따

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책으로 부각되었음

- ❍ 한편, 1979년 가케가와시가 세계 최초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계기로 평생학습도시사업이 전개되었음. 이는 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② 근로자 학습 기회 확충에 의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③ 평생학습시설을 상호 연결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에 중점으로 두었음. 이를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 중심의 사회 참여 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함
- ❍ 일본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장년을 비롯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공민관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등에서도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음
- ❍ 일본 정부는 기존의 노인교육이 공민관과 노인클럽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실시된 점을 반성하고 대신에 다양한 노인층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도록 수요자 중심의 노인교육에 부응하기 위해 1989년부터 장수학원을 개설하였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노인 학습기회 제공 및 정비 중점에서부터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인교육 시책의 중심이 이동하였음. 1990년대 이후부터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광역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제정비, 사회교육 설비 장비 및 시설의 기능 향상, 민간의 평생학습 관련 교육사업 지원 등에 힘을 쏟아 오고 있음
- ❍ 더불어 퇴직 근로자를 위한 인생 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 근로자가 노후에 의미있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중고령층 및 퇴직 전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를 개최함. 주된 프로그램은 교양, 시사 문제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화제가 되는 주제와 강사를 초빙하여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강좌는 매달 1회씩 개설됨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 ❍ 일본은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종신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 일본은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였음. 이는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28.4%(2020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의 노동시장 높은 참여율을 반영하는 것임.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 숙련된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활용하려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정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일본은 먼저 2013년 3월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에 기초해 정년을 65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한 바가 있음. 이로부터 보면 7년 만에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것임. 일본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심은 장인을 비롯한 전통적인 고숙련자를 중요하게 보는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이우영 외, 2013)

□ 공공부문의 법 · 제도 지원체계

○ 일본의 중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은 1995년에 마련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한 「고령사회대책대망」에서 정한 지침이 기준이 되었음. 일본의 중고령자 고용취업 대책을 살펴보면, ①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부합하는 일할 수 있는 평생현역사회 실현, ② 중고령자가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반 지역 기반 확대, ③ 중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 지원, ④ 65세까지 중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법적 의무화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음. 특히 중고령층의 고용 및 재취업에 있어 '공공직업안정소'의 역할을 강조함(일본 후생노동성, 2017; 김인엽 외, 2017)

○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은 2012년 9월에 개정되었음. 정년의 연장,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에 의한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의 촉진, 고령자 등의 재취업 촉진, 정년 퇴직자 및 기타 고연령 퇴직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보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 이로써 고령자 등의 직업 안정 및 기타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민상기 외, 2015). 2012년 당시 이 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45세 이상 55세 미만, 구직자 및 중고령 실업자(45세 이상~65세 미만 실업자, 기타 취직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한 책정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은 고령자에 대한 의식개혁, 동기 부여 및 능력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6개 분야의 기본적 시책들을 마련함(김인엽 외, 2017). 이를 살펴보면, ① 고령자에 대한 의식 개혁, ②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③ 고령자의 동기 부여 및 능력의 활용, ④ 지역 취업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일자리 실현, 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실현, ⑥ 젊은 시절부터 인생 90년 시대의 준비 실현 등이 있음

□ 중장년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일본은 지속적인 고령화를 전망하여 중고령자를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민간과 지역 복지기관들이 연계해 다양한 취업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중고령 노동자들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조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음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과 '생애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은 도쿄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조정 능력, 협상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관리 능력을 살려 중소기업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임 (금민수, 2021)

-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쌓은 5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함
- 해당 프로그램의 직무 유형은 7가지 직종(경영, 인사노무, 재무경리, 해외영업, IT시스템 관련, 기술관리)으로 구분됨. 취직에 성공한 시니어 중 시니어의 전문성이 직종에 합치된 경우는 약 70%이며, 비전문 영역으로 취직된 경우는 30%임
-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의 보수는 근무시간, 주간 근무 일수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주 5일 기준으로 25만 엔(약 264만 원)에서 30만 엔(약 317만 원)사이임

다. 독일

1) 중장년 교육 지원

○ 독일의 중장년 교육은 노년을 위한 준비교육, 제3시기를 위한 교육, 시니어교육, 50세 이상을 위한 학습과 더불어 노화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 독일도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연령과 고령자 근로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독일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5세였으나 2015년에는 60~64세 인구의 56.2%가 일하였으며, 법적 연금 수령연령도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이고 있음(김인엽, 2017)

▢ 공공부문의 법·제도 지원체계

❍ 독일의 교육은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 16개 주 정부의 책임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중장년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평생교육 기관인 시민대학과 대학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음. 독일의 시민대학은 성인교육 100년의 역사를 거쳐 20세기 초반부터 교육제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성인교육은 다른 교육영역과 다르게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 출발함

❍ 독일의 시민대학은 정치체제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함. 독일 시민대학의 역사는 독일의 참사와 단절 그리고 재건시기 등의 시기와 함께 함. 그리고 시민대학은 100년의 긴 역사와 함께 시민대학 자체로서의 고유한 정체감을 가지고 성인교육의 모델시설로서 시민들의 발전과 국가발전 및 개개인의 능력개발, 세계관 정립, 국제 감각 확립,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함. 이를 통해 독일의 시민대학은 시민교육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음(홍숙희・라해문・홍선영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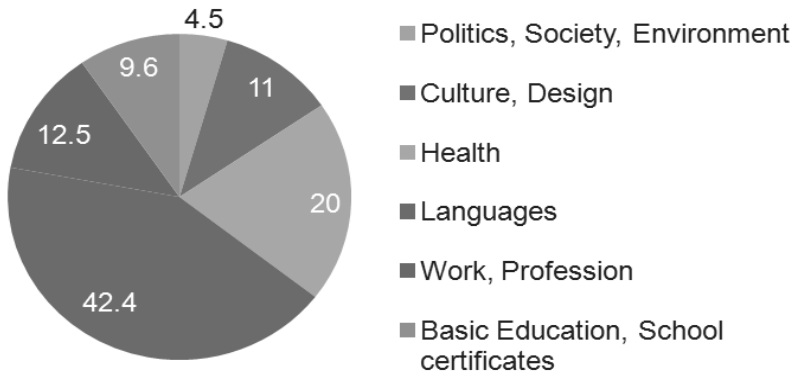
❍ 독일 시민대학의 특성 1) 지역사회 공동체 지원과 함께 하는 성인교육 제공, 2) 독일에서의 최대 성인교육 제공 기관, 3) 900개가 넘는 시민대학과 3,000개의 지역 현장 사무소, 4) 연간 약 60만 명의 성인교육 강사의 참여, 5) 연간 600만명이 넘는 교육과정 참여자를 들 수 있음

▢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사례

❍ 독일 내 시민대학[2]은 누구나 1개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매년 6백만명이 참여함. 시민대학에는 60만개 이상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900개 이상 시민대학과 3,000개 지역현장 학습소가 운영됨

❍ 시민대학의 테마별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과정 중 언어가 42.4%, 건강 20%, 직업훈련과정 12.5%, 문화와 디자인 11%, 정치 4.5%, 기초교육 및 학력인정과정 9.6%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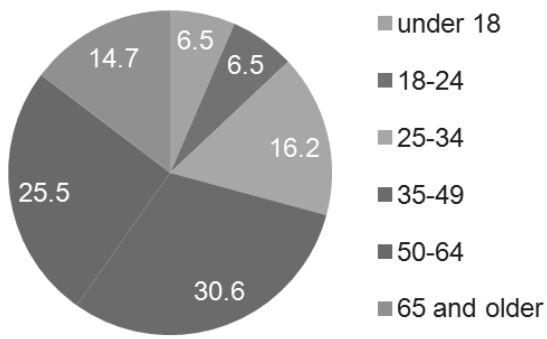
2) 독일의 시민대학에 대한 현황자료는 홍숙희정여진·고승한·이화진(2020).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게재한 내용을 재인용하여 사용



[그림 2-1] 독일 시민대학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

* 출처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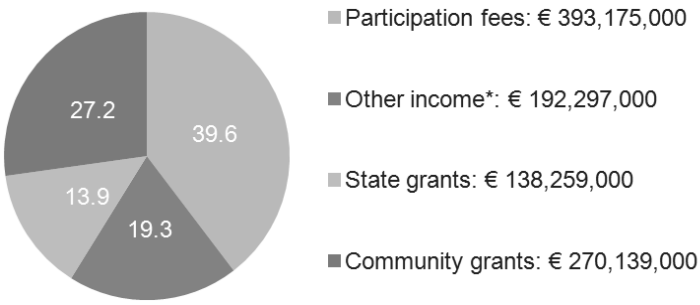
○ 시민대학 참여 연령대별 비율은 35-49세가 30.6%로 가장 많이 차지함. 그 다음 50-64세가 25.5%, 25-34세가 16.2%, 65세 이상이 14.7%를 차지함. 18-24세와 18세 이하도 각각 6.5%가 참여함



[그림 2-2] 독일 시민대학 연령대별 참여 현황

* 출처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 시민대학 운영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자치정부, 사단법인, 협회 등으로 나타나며, 시민대학의 운영 예산은 참여 학습자의 수강료가 39.6%, 기초자치정부 27.2%, 주정부 19.3%, 연방 및 EU 지원예산 13.9%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림 2-3] 독일 시민대학 운영 주체별 예산 분담 현황

* 출처 : DVV(독일성인교육협회) 소개 자료

○ 그리고 독일시민대학의 연합체인 독인시민대학협회의 주 파트너는 DIE(독일성인교육연구소), 유네스코, 유럽성인교육협회 등을 들 수 있음

○ 독일의 교육은 시민대학이나 대학에서 성인들의 학습요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더구나 독일 대학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어 학비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대학이 개설한 정규과목 대부분을 청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그래서 독일 대학의 운영이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로 기능함

○ 독일의 중장년 및 노년준비 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이 <표 2-4>에 나타나 있음. 대학은 다양한 교육 강좌를 통해서 중장년 및 노인의 학문적 학습과정의 참여 촉진과 다양한 정보 및 지식 습득으로 노년기 생애설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자기역량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음

〈표 2-4〉 독일의 중장년 및 노년준비 교육 프로그램 유형과 주요 내용

사례 유형	주요 내용
시민대학	· 1970년 이후 새로운 시민대학 모델 정립을 통해 독일의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 · 14세 이상 독일 내 거주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성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주요 교육 대상자임 ·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매우 저렴하고 실업자는 전액무료임 · 독일의 16개 주는 학습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위해 주 단위로 시민대학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음
U3A 인생학교 사례	· 일정한 수준의 선수 학습을 마친 50세 이상의 성인후기 학습자로써 프랑스어와 영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 주요 학습 대상자임

	· 학점 중심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프로그램들은 기본교육과정(제3의 인생의 발달과 학습), 개인적 발달 교육과정(노인심리학, 창의성 기법, 지식과 자기표현, 인간관계 발달), 사회적 발달 교육과정(제3의 인생과 법, 예술과 삶, 여가심리학, 가치와 교육)으로 구성됨
은퇴자협회 프로그램	· 지역 도시마다 전문직 은퇴자들로 구성된 은퇴자협회전국연합체가 조직되어 있어서 퇴직 전 준비교육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노년준비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정보상담(재산상속, 노인소비자보호, 증여, 부동산, 이웃교제, 손자녀관계, 시민권리, 이혼, 연금상담 등), 체육·건강·레저(노인체조, 수영, 경보, 산책, 축구, 자전거타기, 테니스, 탁구, 조정 골프, 요가 등), 문화예술(영어회화, 꽃꽂이, 카드놀이, 합창, 스포츠댄스, 민속무용, 포크댄스, 컴퓨터, 미술, 자수, 비디오, 지역사회 회상, 사교모임 등), 사회봉사(거동불편 노인돌보기, 노인학대예방, 주거서비스 등), 대외 관계(클럽활동, 노년학 프로그램, 고령자네트워크 등), 직업교육(재취업알선)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출처: 홍숙희 · 정여진 · 고승한 · 이화진(2020).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p.22. 수정하여 사용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 독일정부는 장기간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2000년 초중반 노동정책 전반을 개혁하면서 중장년 고용지원정책도 대폭 강화하였음. 이후 정책의 성과와 독일의 경기 회복으로 50세 또는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 상황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어려움과 양질의 일자리 구직의 제한, 학력 수준 차이로 인한 근로여건 격차, 직업교육 및 교육수준에 따른 근로 연한의 차이 등이 지속 과제로 삼고 있음. 따라서 독일은 중장년 고용 촉진을 위해 중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중장년 근로자 개인이 디지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김인엽, 2017)

□ 공공부문의 법·제도 지원체계

○ 독일은 「사회법」, 「일반적 평등대우법」, 「부분제와 기간제 근로법」, 「고령자 부분제 근로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중장년의 계속교육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은 노동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혁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 「사회법 」Ⅱ와 Ⅲ를 전면 개편함. 이후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직업 중개, 고용촉진을 위한 서

비스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능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킴. 특히 고령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및 이주민 등의 구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김기선, 2009). 특히 직업상담, 직업예비교육, 직업중재를 국가의 의무 과제로 규정하고, 직업교육과 직업중개를 강화함

○ 「일반적 평등대우법」은 ① 선발 및 채용, 승진 조건, ② 고용 조건, ③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전환교육 및 직업상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 ④ 단체 가입 또는 활동, ⑤ 사회적 안전 및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 등의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음. 또한 성, 인종, 출신, 종교, 장애, 연령 등을 인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중장년층 고용촉진에 큰 영향을 줌

○ 「부분제와 기간제 근로법」은 부분제 근로를 촉진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허용 조건을 정하며 부분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둠. 「고령자 부분제 근로법」은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는 법으로 고령 근로자가 부분제 근로를 통해 노령연금으로 원만히 이전하도록 돕고 실업자 등의 기타 근로자의 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령자 부분제 근무에 따라 공백이 된 자리는 실업자 또는 직업교육 졸업생을 고용할 수 있게 하여 중장년 실업자 및 전체 고용촉진에 기여함

○ 독일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실업 예방 또는 실업 감소를 위한 체계적 근로지원으로 고령자를 포함한 보편적 근로지원과 고령자를 특별히 고려한 근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중장년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계속교육은 일차적으로 연방교육연구부의 소관임. 연방 교육부는 중앙서비스부서와 전략과 정책 발간, 직업 훈련 및 평생학습 7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음. 특히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가 연방 노동・사회부와 연방 이주・난민국과 같은 부서가 서로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음. 더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평생교육사업 연계를 위한 주정부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교육과 관련한 협력 업무을 담당하고 있음

○ 중장년층은 독일사회의 견고한 복지체계와 직업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상담, 직업중개, 계속교육지원, 직업진입지원 등을 포괄적인 근로지원을 받고 있음

○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고령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임금보장,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금 면제 등의 다양한 방안이 시행됨. 이 정책의 핵심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직업중개가 어렵거나 직업진입에 지원이 필요한 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함.

○ 직업적 계속교육 지원: 근로자의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해서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직업역량 함양을 위한 계속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중장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의 일환이 됨. 이 프로그램에는 실업자와 실업의 위험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중장년 근로자나 직업교육조차 졸업하지 못한 교육 수준이 낮은 자 등 특별한 상황의 근로자도 대상이 됨. 직업적 계속교육과정의 중간시험이나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고조시키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현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여 직업 재교육을 지원함

- 45세 이상 근로자 계속교육 지원: 직원 250명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45세 이상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체 외부에서 계속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
- 교육바우처: 연방 고용지원청과 잡센터는 교육바우처 지급을 통해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 교통비, 숙식비, 자녀 돌봄 비용 등을 지원함. 계속교육 참여 당사자는 연방 고용지원청에서 인증을 받은 다양한 계속교육기관 가운데 교육 받을 기관과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
- 상승을 위한 바펙 – 상승을 위한 재교육 지원법: 직업신분 상승을 위한 연방과 주정부의 재교육지원금 프로그램임. 연령제한이 없고 전일제, 부분제, 학교교육, 학교외 교육, 매체이용, 원격 수업 등 재교육 방식에 제한이 없음. 재교육 프로그램 대상으로 마이스터 과정, 기술자 과정, 경영전문가 과정, 전문간호 또는 전문 간병인 과정 등 상위직업교육인 마이스터급 교육과정을 지원함

2. 우리나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변화와 내용은 주로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어 왔음. 여기서는 중장

년 생애재설계 지원체계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운영 기관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발전과정

❍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청년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서 교육 및 돌봄의 대상으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음. 또한 노년 대상은 복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비교적 일찍 추진하였음.

❍ 먼저 노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부터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확산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계와 정책에 반영되었음. 연구조사 영역에서 한국노년학회(1970년대 말), 한국노화학회(1990년), 한국노인복지학회(1998년)가 발족되면서 학회 중심으로 노인교육에도 연구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음(한정란, 2006). 그리고 노인교육 정책 방향은 기존의 노인교육이 실시되어 온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예산 확충, 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참여 정도 등) 등을 개선하는 접근과 전략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홍숙희 외, 2020)

❍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노인복지 혹은 평생교육 정책 분야로 접근하여 이에 따른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노인복지 정책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홍숙희 외, 2020)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노인여가시설로 구분하여 여기에서 운영되는 종합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교육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교육부는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무 미미하게 실시해 오고 있음

❍ 반면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의 은퇴의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년부양비의 상승에 대한 우려로 2010년 이후부터 촉발되기 시작되었음.

즉 중장년 세대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노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준비의 일환으로서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정년 60세 연장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의 적용을, 2017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었음. 그 이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음
-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민간의 경우는 조기 퇴직이 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국한 된 것이 현실인 상황임.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0세 전후한 베이비붐 세대의 명예퇴직과 해고가 일반적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여,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가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의 책무라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에 따른 책임으로 인식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편,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된 가운데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었음. 이 법을 근거로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음. 제1차('16~'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6. 12.)은 소득·건강·여가 등 분야별 노후준비 정책기반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세부내용으로, 고용분야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생애설계·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를 담았음. 소득분야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 다층체계의 외형 구축 및 사각지대 축소, 급여제도 내실화 등 제도개선 진행을 담아 농지연금 도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제도를 시행하였음. 건강분야는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지역단위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 보장성 강화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기요양보장과 치매안심센터의 전국 설치를 추진함. 여가 및 대인관계 분야는 기존 중장년층 대상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일반적인 기존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을 통해 여가, 대인관계의 국민인식 제고하고, 이를 국가의 지원과 보장 범위내로 편입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16~’ 20)’ 이 시행되었으나 정년제 정착이 미흡하고, 공적연금제도의 한계 등을 비롯하여 생애설계서비스와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서비스 내실화에 한계가 등장하였음. 특히 정책 실행의 전담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조사 결과로,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4.1%,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0.4%, 들어본 적 없다 75.5%로 나타남. 대체로 서비스 대상이 노인에게 집중되어 5060세대에게 생활시간 활용과 대인관계 형성의 대한 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하였음을 제2차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음(보건복지부, 2020)

❍ 이후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및 법제도 정비, 노후준비 대상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인식 제고 등을 방향으로 설정하여 현재 제2차(’ 21~’ 25) 기본이 발표(’ 20. 12.)되어 시행중임. 제2차 기본계획에서의 특이점은 비로소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서비스의 개발,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을 일자리 지원기구 및 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모델로 제시하였다는 것임(보건복지부, 2020)

❍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 을 발표하였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017년 8월에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 최초로 발표한 것으로, 6월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되었던 계획에 따라 마련됨. 이 계획에서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속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이구 집단으로서,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왔다’ 고 밝히고 있음. 비로소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 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주된일자리→재취업일자리→사회공헌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 을 위한 종합계획임을 제시하였음. 더불어 신중년들의 성공적인 인생 3모작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았음

○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발표된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은 앞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을 통해 3모작 경로별 서비스를 확충하고 인생2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따라 신중년 일자리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신중년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계획으로써, ①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②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③ 민간일자리 지원 등을 담고 있음.

○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을 2018년 2월에 발표하였음. 제1차~제3차 기본계획(’03~’17) 추진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으로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고, 또한 학력보완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한 대학 우수강의 공개,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17년 35.8%에 도달하였음을 전제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격차 해소와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의 확충 등의 향후 5년간의 평생교육진흥 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았음. 특히 성인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유급학습휴가제 확산을 위해, 유급휴가훈련 지원,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함. 그리고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등 컨설팅 지원 및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 고령자 대상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사·지도사 등 양성과정 활성화, 노년층 대상의 대학(원) 학위과정 적합분야를 발굴·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을 확대하여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에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과정개설 희망대학에 운영 지원을 담아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정과제로써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이 있음. 이는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 확대가 명시되었음. 현 정부에서 중장년 교육은 성인 평생학습 학습화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현황

○ 정부는「제2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통한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비전을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장년 세대 자체보다 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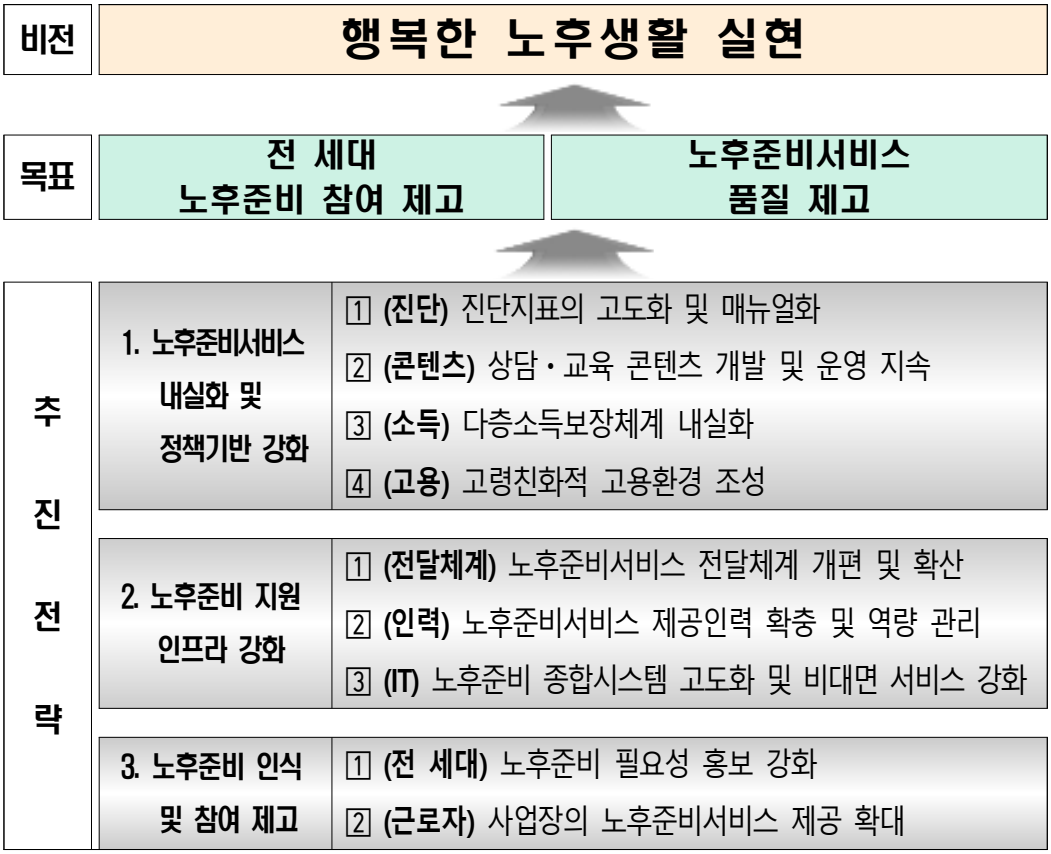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은 비로소 5060세대를 고령자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반영하였음. 또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을 통해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기회 확충,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 훈련을 강화하였음

○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이상과 같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최근의 정책 사업들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노후준비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발표된 「제2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21~'25)」은 다음의 추진 체계도에서와 같이 전 세대 노후준비 참여 제고와 노후준비서비스 품질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전략으로는 ①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②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지원, ③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를 반영함



[그림 2-4] 노후준비 지원 추진 체계도

출처: 보건복지부(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기반 강화

○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노후준비 콘텐츠 재정비: 2012년 개발 운영 중인 진단지표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 상담용 진단지표를 마련하는 것임. 이에 사회초년생, 은퇴준비기, 자녀성장기, 1인가구, 자영업자, 신혼부부,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상담은 4대 영역의 37개 지표로, 간편상담은 4대 영역의 24개 지표로 마련함

○ 상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속

- 노후준비 상담교육 콘텐츠 재정비(계속): 그간 개발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건강, 대인관계, 여가 분야에 대한 상담·교육콘텐츠를 추가 개발 및 공유를 확대

하고,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담·교육 콘텐츠 추가 개발 및 보완을 진행하는 것임. 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상담 참여율이 높은 은퇴 준비기, 사회초년생 순으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함

- 신중년 욕구에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개발 및 확대(계속): 신중년 특성별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신중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2020. 9월 기준 46개)를 중심으로 신중년 사업 확산

<표 2-5> 신중년 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커리어모색	(새로운 커리어 탐색) 작가탄생 프로젝트, 사진에세이 아카데미
일자리창출	(사회경제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기본 개념 및 창업 컨설팅
사회문제 해결	(커뮤니티 케어 아카데미) 거동 불편 노인의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자 양성 (공동체 주택 아카데미) 1인가구 증가, 공동체 해체로 인한 개인부담 가중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서비스 개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애전반의 노후준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선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표 2-6> 생애설계 노후준비서비스 방안 (예시)

	20~30대	40대	50대	60대
방향	노후준비 인식 정립, 생애목표 설정, 소비지출 습관 형성	자산·저축 확대, 노후자금준비, 건강 등 비재무 관심	자녀지원·노후준비 균형, 노후자금 확보, 재무·비재무 균형,	노후자금 확보, 상속·증여, 적극적인 건강·여가·대인관계

○ 다층 소득보장체계 내실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사업 중단, 질실 등으로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생애 최대 1년간 지원 및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단계별 조정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의무가입 단계적 추진 등으로 공적 자산운영 서비스제공(‘22~’26),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및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 주거안정성 확보 및 주거재구조화를 통한 노후소득 준비 지원(계속): 무주택 서민의 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과정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주택마련 계획 등의 상담·교육 제공, 중장년층의 노후대비 주거재구조화에 관한 노후준비 서비스 상담의 체계적 제공

○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중고령층의 오래 일하기 지원 강화(계속): 고령자 고용개선을 위해 청년고용 개선, 정년 의무화 효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하여 계속고용 등 고용연장 방안 논의(‘22), 정년이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활성화
- 퇴직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기반 조성(계속): 사회적 환경과 기술 및 정책 변화에 맞는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일자리 매칭 성과관리
-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계속):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및 일하는 모든 국민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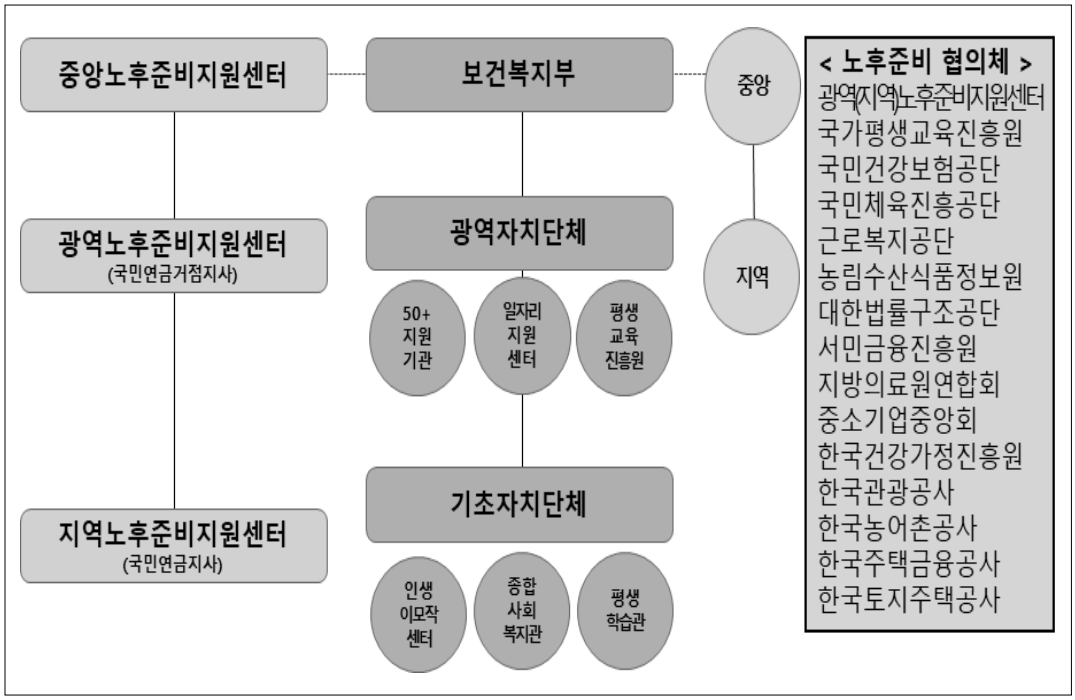
○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확산

-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모델 확산 : 광역·기초단체별로 운영중인 50+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예시)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확산(‘22~)

< 지자체 노후준비 추진모형(예시) >

■ 지역사회 홍보, 인식확산,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참여
■ 간편상담용 진단 및 상담, 연계서비스 제공
■ 전문 진단 및 상담, 지자체 전문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모형(안) >



[그림 2-5]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모형(안)

출처: 보건복지부(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역량 관리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자질 향상 및 관리 강화(계속): 노후준비 예비인력부터 전담인력까지 수준별 교육과정 체계화 및 지역센터 확대에 맞춰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의 단계적 강화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체계화 및 공신력 제고: 노후준비서비스의 공신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행 등록민간자격인 CSA를 공인민간자격으로 전환(’21)
- 신중년 적합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지원

○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고도화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

- 노후준비 4.0플랫폼(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1):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별 통합 데이터 구축 및 정보연계, 개인별 진단점수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고 4대 영역 관련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상담 시 활용
- 비대면 기반의 노후준비 진단·상담 제공(‘21): 청년층 및 직장인을 위한 원격 진

단 · 상담 비대면 서비스 확대 제공

□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 노후준비 필요성 홍보 강화

- 다양한 매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강화(계속): 온 · 오프라인으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채널별 콘텐츠를 차별화하여 효과적인 노후준비 콘텐츠 전달 및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확산
- 4060세대 핵심대상을 공략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적극 홍보(계속) : 4060세대 특성에 맞는 온라인 홍보 컨텐츠 개발 · 보급 및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홍보 추진

○ 사업장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확대

- 기업 주관 노후준비 교육 단계별 확대: 근로자 연령대별 노후준비 교육실시를 기업에 권고 및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21)

2)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및 일자리 지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2017)」 인생 3모작 개념도를 제시하고, '인생3모작으로 「활력있는 신중년(Active Ageing)」' 을 비전을 설정함. 인생 3모작을 미리 계획 · 준비 ·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 및 인프라 연계 강화로 신중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다음의 추진 체계도에서와 같이 고용 가능성 확충, 창업의 질 향상, 정착성공률 제고, 사회공헌활동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추진전략으로는 ①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② 비생계형기술 · 창업 활성화, ③ 귀농 · 귀어 · 귀촌 지원 내실화, ④ 사회공헌일자리 확충, ⑤ 체계적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반영함. 이와 같은 추진과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과제로 마련한 것임.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 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18-15 계획으로 마련되었고, 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으로 ①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②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③ 민간일자리 지원을 반영하고 있음

(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그림 2-6]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체계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고용부)

○ 신중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18): 중위소득 100% 초과 신중년에게도 취업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참여수당 지급은 제한), 생애경력설계를 바탕으로 경로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와 관계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신중년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성과 제고
-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적용 확대

○ 신중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 이·전직 준비기반 확대 추진: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 개발·제도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도입 추진 (' 18년 下)

- 신중년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및 재직자 훈련참여 부담 완화: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맞춤형 훈련 실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배후산업과 지역의 신중년 인력수요를 고려한 지자체 협업형 신중년 훈련과정 신설 (’ 18년)

○ 신중년 고용환경 개선

- 신중년 적합직무 개발·확산: 직업 변화를 감안하여 신중년 우선고용직종* 개편 추진, 중견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등 진단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 신중년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재직자 건강관리 강화, 신중년 근로자의 편의성·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개선자금 융자 확대, 신중년 근로자 친화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추진(산업별·업종별 협회 주도)

□ 비생계형 · 기술 창업 활성화(중기부 및 기재부, 고용부)

○ 과밀업종 진입억제 및 틈새시장 개발

- 준비된 창업 유도: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30→45개), 창업기상도* 구축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창업정보 제공 강화 (‘18년), 소상공인 과밀지역·업종을 지정하고, 과밀지역·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한 진입 억제 (‘18년)
- 과밀·생계형업종 소상공인의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 지원: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패키지 확대
- 틈새시장 창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확대, 성공기업인의 멘토링 지원과 졸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창업 후 안착까지 지원

○ 세대융합형 기술 창업 확대

- 신중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 확대
-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17년 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

○ 기술창업 교육의 내실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기술 교육 접근성 제고
-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창업실패 시 위험부담 경감

□ 귀농 · 귀어 · 귀촌 지원 내실화(농림부, 해수부)

○ 신중년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어・귀촌 실현
-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조선업 이직자에 대한 상담 확대 및 신중년 이직자에 대한 귀농창업 교육 확대
- 체류형 농어업 창업 지원
-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귀농·귀어·귀촌 희망자 지원 강화
- ‘귀농・귀촌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7년 下)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 농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 확대

○ 정착 및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활성화
- 정착 초기 부담완화,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진입장벽 해소
-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및 농어촌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귀농·귀어·귀촌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 취업 지원

□ 사회공헌 일자리 확충(행안부, 고용부, 복지부)

○ 자원봉사 저변 확대
-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 신중년층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중년의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
- 자원봉사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충
- 퇴직 전문인력 일자리 확충: 퇴직 전문인력과 NGO 및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 공익형 노인일자리 확대: 민간 취·창업이 어려운 고령·저소득 노인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사회적 경제영역 참여 확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편 등 신중년의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해소

□ 체계적 경로 설계 및 서비스 연계 강화(고용부, 복지부, 부처합동)

○ 생애경력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활성화: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40대, 50대, 퇴직 전후 각 1회)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 등 활성화

○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강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기관의 공간적 통합,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동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 추진,워크넷 신중년코너에 인생3모작 관련 서비스 정보 확충

○ 종합 홍보 및 교육 실시: 인생3모작 지원서비스 정보를 종합하여 관계부처 합동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경로별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공유,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통합 교육·워크숍 추진

(나) 신중년 일자리 지원

□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노동부, 행안부, 중기부, 해수부, 산림청)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설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

○ 신중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령화추세 등에 따른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플랫폼으로 일자리사업 지원

○ 자치단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사업 확대

- 개인(경력, 사회참여 의지 등)·지역별 특성(인구, 고용, 산업 등)에 따라 다양한 신중년 지역일자리모델 설계가 가능토록 지원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강화

-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지원 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 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 지원 확대

- 유통·행정 등 전문분야 경력자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령 상인의 유통 환경 대응력 향상 및 행정처리 지원

○ 장년인재 창업기업 서포터즈 확대

- 대기업 퇴직인력 등을 청년 창업기업에 파견 → 코칭활동 및 협업 프로젝트 수행 등 기술·경험 전수

○ 신중년 귀농·귀어·귀산 지원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임시주거 보조 등 귀농지원 확대
- 지역별 귀어학교를 확대하여 창업기술 교육 등 귀어지원 강화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예방,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노동부)

○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 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 과정 신규 개설 → 직업훈련교사 자격취득 후 폴리텍(비전임교원) 또는 직업훈련기관(훈련교사) 등에 취업

○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사업 확대

- 핵심 기술·기능, 창업컨설팅·마케팅 등 창업스쿨을 포함하여 기존 훈련과정과 차별화하여 운영

□ 민간일자리 지원(노동부, 금융위)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도 확대

○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 및 전직지원 강화

- 금융권 퇴직자를 서민금융 종합상담역*(신복위), 상호금융 컨설팅역으로 채용(자체 재원 활용) →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교육 실시
- 금융권 퇴직(예정)자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특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 민관협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신중년 대상 교육훈련 제공

○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도록 계속고용노력 지원 추진

3)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 교육부에서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추진 배경

○ 성인의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후진학 시스템은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됨
-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평생학습자는 '15년도 12만명 수준이 달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8.2만, 폴리텍 0.8만, 재직자특별전형·계약학과 등 2.9만명 등(방송대 6만명, 사이버대 3.3만명 등 9만3천명은 제외)
- 고령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 평생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평생학습 참여율(%): ('08) 26.4 → ('10) 30.5 → ('12) 35.6 → ('14) 36.8
-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과잉경쟁, 중복투자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

○ 대학은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운영으로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
- '1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자('13년, 3,375명),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13년, 22,670명)이 본격적으로 후진학 대상자에 포함
- 일부 재정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학과(부) 개설 및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다양한 모델 운영 시도하고 있으나,
- 정원문제,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등으로 인해 대학의 우수한 시설·인력을 활용한 성인교육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함
- 평생학습자의 평생교육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의 운영으로 질 관리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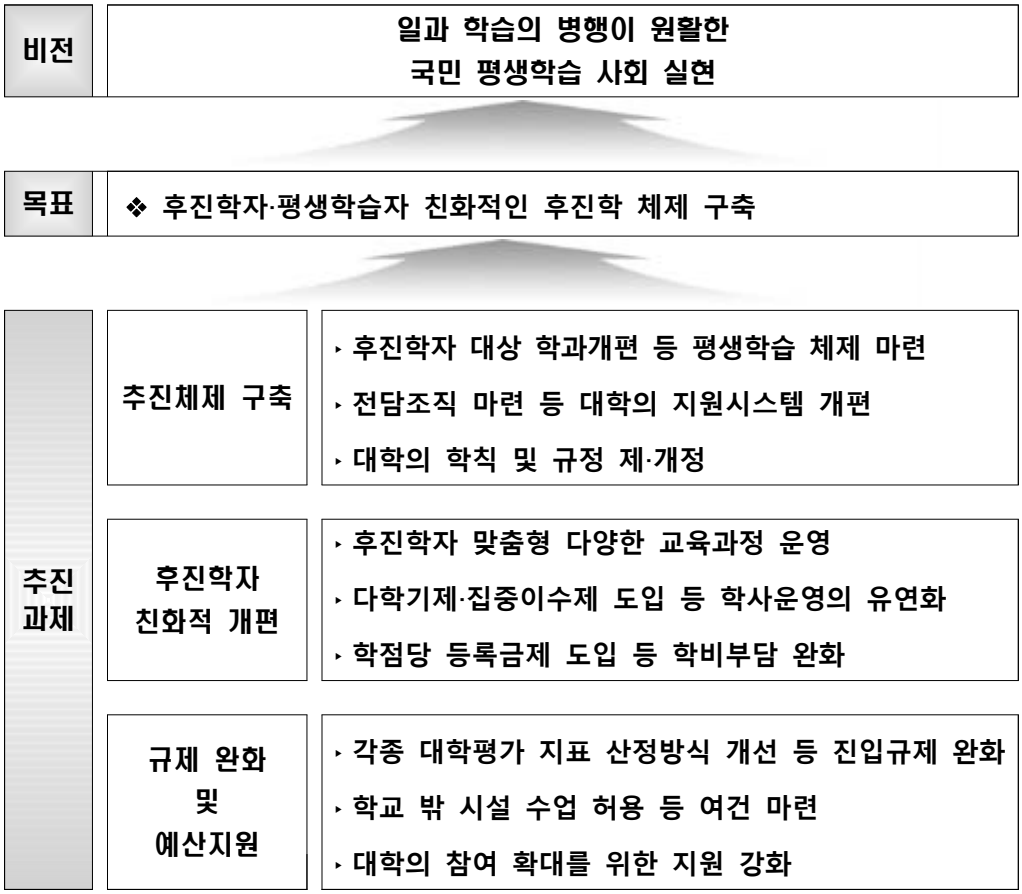
○ 따라서 후진학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고졸자의 선취업 활성화도 가능함

- 학령기 학생 위주 대학시스템을 선취업-후진학자, 성인학습 수요 흡수를 위한 체제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계속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함

○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성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 취득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림 2-7]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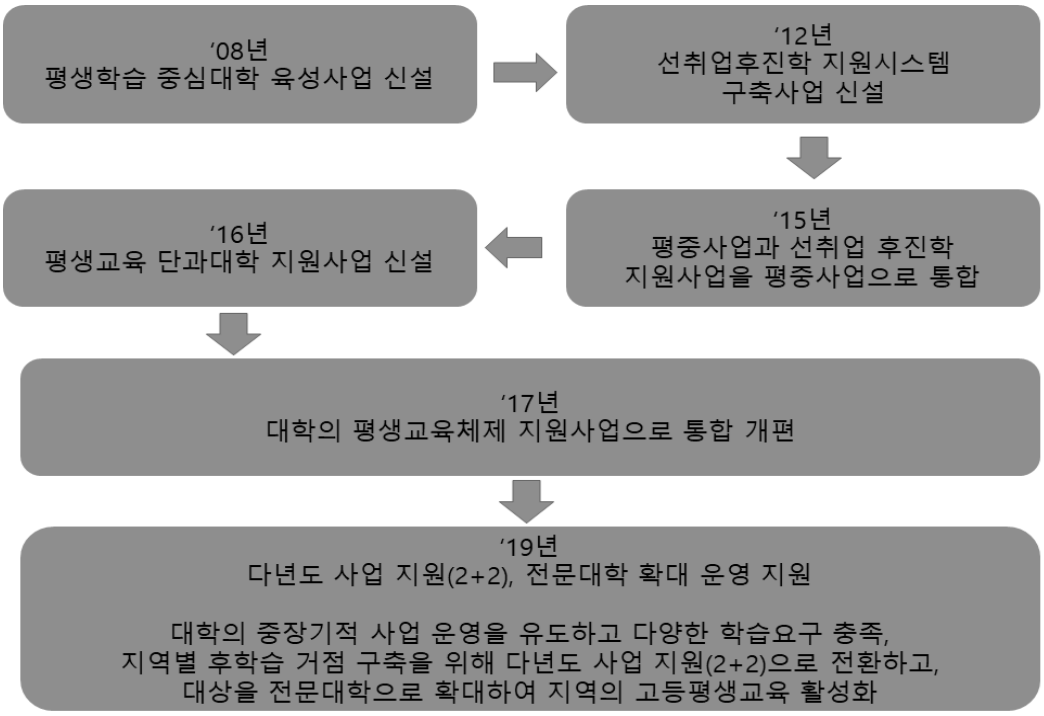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신설이 되면서 추진함

○ 2012년 선취업후진학 지원시스템을 위한 구축사업이 신설됨

○ 2015년 성인(평생)학부 실선 지원 등 후진학 활성화 보고

- 대학, 학생(재직자) 및 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실시
- 후진학자 등 성인의 학습장애요인 및 대학의 참여규제 제거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전국의 8개 대학 신설로 사업이 시작됨



[그림 2-8] 사업추진 경과

□ 사업 내용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모델을 설정함

○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운영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

은 필수 운영조건으로 한 운영모델 제시함

<표 2-7> 평생교육 체제 운영 모델

단과대학형	·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로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부형	· 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학과)으로 별도 학부 구성 - 학부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공탐색 후 전공 설정 -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단과대학에 학부설정 ·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과형	·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개설 · 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

○ 학습자 모집: 정원내(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와 정원외(재직자 특별전형)로 총 정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정원 규모는 운영모델 등을 고려하여 대학 자율 설정할 수 있음

○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운영

- 교육과정 개발: 성인학습자 수요에 맞는 지식·이론 또는 직무역량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 수업방식 다양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주말수업, 온라인 및 블랜디드 러닝 등 다양한 수업방식 활용
- 학사 유연화 확산: 선행학습인정제,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연한 상한 폐지 등을 통한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제도 구축

○ 성인학습자 지원 체계화

- 지원 인프라 구축: 성인학습자의 적응과 학업 안착을 위한 성인학습자 전담 지원체계(예 : 성인학습지원센터 등) 구축 운영
- 학비 부담 완화: 학비경감, 장학금 지원, 학비 납부 방식 다양화 등 성인학습자의 부담 완화 지속화

□ 지원대학 현황

○ 사업추진 연도별 지원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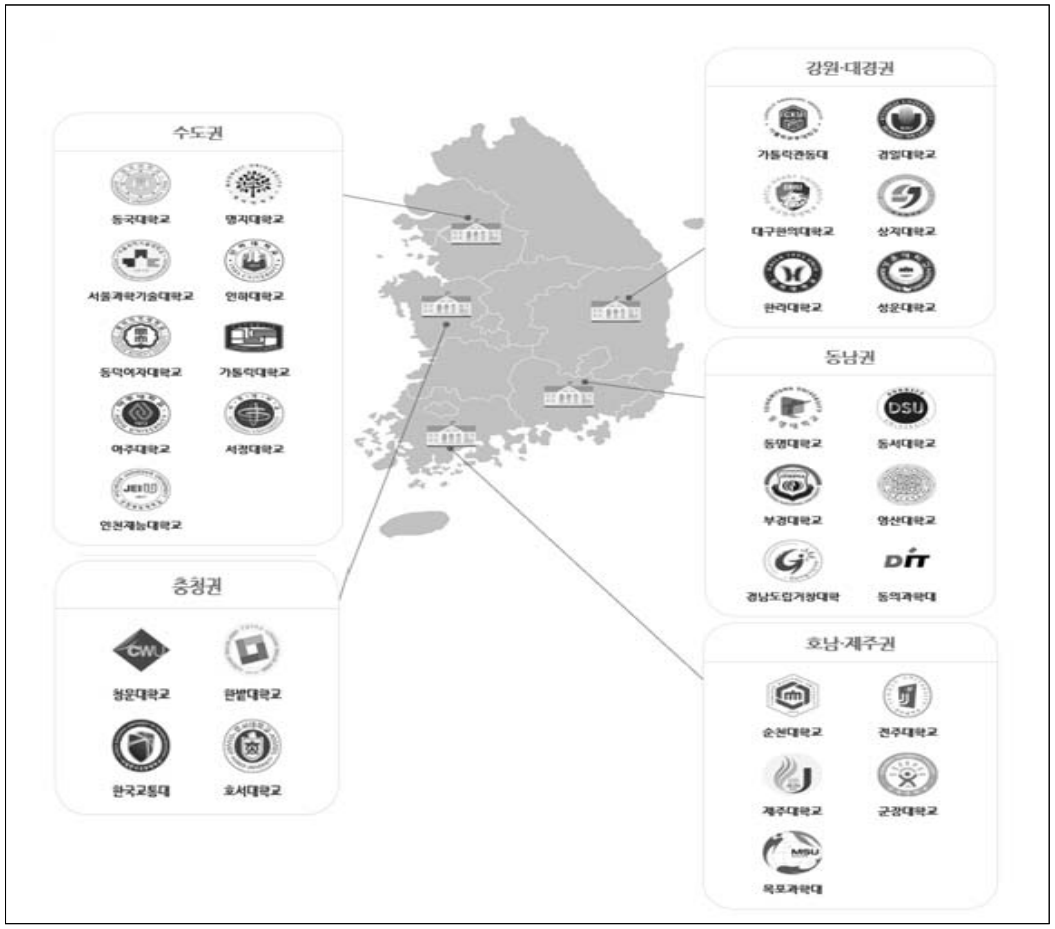
- 2016년도 8개 대학, 2017년도 15개 대학, 2018년도 21개 대학, 2019년도~2021년도

각 30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음

<표 2-8> 지원대학 현황

년도별	지역별	대학명
2016년도 (8개 대학)	수도권 (4개 대학)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하대학교
	대구 · 강원권(1개 대학)	대구대학교
	동남권(2개 대학)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충청권(1개 대학)	한밭대학교
	호남 · 제주권(1개 대학)	제주대학교
2017년도 (15개 대학)	수도권 (5개 대학)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대구 · 강원권(2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동남권(3개 대학)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충청권(2개 대학)	한밭대학교, 서원대학교
	호남 · 제주권(3개 대학)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2018년도 (21개 대학)	수도권 (8개 대학)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대구 · 강원권(3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남권(4개 대학)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서대학교
	충청권(3개 대학)	한밭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운대학교
	호남 · 제주권(3개 대학)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2019년도 (30개 대학)	수도권 (9개 대학)	명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성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전문대, 서정대학교
	대구 · 강원권(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라대학교, 송호대학교, 성운대학교
	동남권(5개 대학)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동서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
	충청권(4개 대학)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호남 · 제주권(6개 대학)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
2020년도 (30개 대학)	수도권 (9개 대학)	명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성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전문대, 서정대학교
	대구 · 강원권(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라대학교, 송호대학교, 성운대학교
	동남권(5개 대학)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동서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
	충청권(4개 대학)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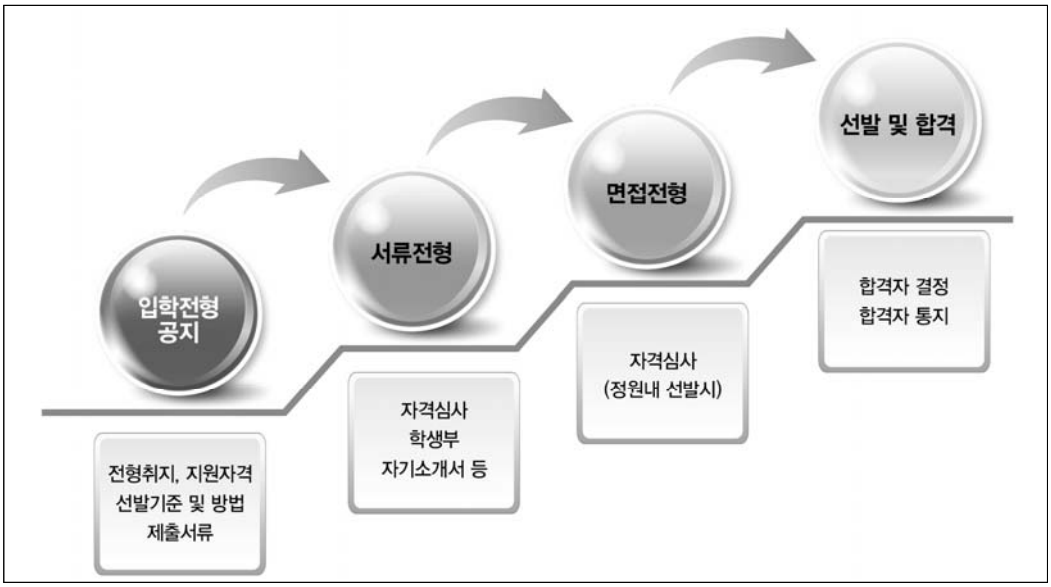
	호남 · 제주권(6개 대학)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
2021년도 (30개 대학)	수도권 (9개 대학)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하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대구 · 강원권(6개 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성운대학교
	동남권(6개 대학)	부경대학교, 영산대학교, 동서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과학대, 경상도립거창대학
	충청권(4개 대학)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호남 · 제주권(5개 대학)	제주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그림 2-9] 2021년도 지역별 지원대학 현황

▢ 성인학습자 입학전형

❍ 성인학습자 입학 맞춤형 전형 절차는 지원자격 선발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공지 후 서류전형(자격심사,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면접전형(자격심사 : 정원내 선발시),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통지 절차에 따름



[그림 2-10] 2021년도 지역별 지원대학 현황

❍ 지원 자격 기준은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두 가지로서 고근기회 전형은 만 30세 이상인 만학도, 재직자 전형은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표 2-9〉 지원자격

구분	지 원 자 격 상 세 내 용
지원 자격 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만학도 ■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아래 사항 중의 재직자 -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 전문계 학과(직업반) 졸업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원서 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기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입학일(2017. 3. 1.)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 재직기간은 3년 이상 ■ 재직기간은 제출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병역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

다. 국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확산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 확대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특히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정책의 연장이 아닌 중장년정책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서울시의 50+정책 현황을 50플러스재단 사업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지방자치단체 생애재설계 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5060세대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준비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시·도 및 특별시 전체 17개 중 11개(64.7%)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군·구 244개 중 시 16개, 군 4개, 구 16개로 총 39개(17.2%)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중장년(50+세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2015년 4월에 제정하고 관련 조직으로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신설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 이후 2017년부터 서울시 외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도 본격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조례’, ‘생애재설계지원조례’, ‘중장년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음

○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기관, 일자리관련 기관 등 기존의 관련기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교육 및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세대의 교육, 상담. 일자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

<표 2-10>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 관련 정책 및 사업(2020년 기준)

구분	내용
서울시	• 2020년 ‘공공의 역할 확대와 서울형 복지체계 혁신을 통한 공정한 복지출발선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생활안정 지원, 중장년 세대 체계적 지원 등을 세부과제로 수립하고 50+세대들의 일자리와 생애 전환 등을 지원함
부산시	• 신중년 활력-UP 종합계획(2019)을 발표하고 신중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경험 자원화, 일자리 확충, 재능공유와 소통, 건강·여가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동, 재능공유·소통, 건강·여가에 대한 3개 전략과 기반 구축 및 11개 중점과제 제시함
대구시	• 50+세대 생애재설계지원 종합계획(2016.6)을 발표하여 ‘50+세대 新행복문화 창출과 안정적 노후’라는 비전하에, 일자리, 사회참여, 교육·문화, 기반구축의 네 영역에 대해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생애재설계지원 정책, 50+세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신중년 새출발 지원 종합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 전략 제시함
인천시	• 5060신중년 일자리사업 실시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더 나은 공령사회를 여는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후 준비,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의 정책과제 제시함
광주시	• 조기은퇴나 퇴직 등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45세~64세)들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함
대전시	• 은퇴 과학 기술인들을 활용해 과학도시 대전을 특화하기 위한 ‘2020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은빛멘코칭 사업’ 등을 추진함
울산시	• 내일설계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 은·퇴직 이음새 새출발 사업을 통해 은·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 • 지역수요에 의한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마을자치지원관 운영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고용부 공모를 통해 추진,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공무’를 통해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지원
경기도	• 중장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제시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제안하고 4060재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함. • 과천시는 5060 이모작 프로젝트 활성화, 수원시 신중년 디딤돌 사업 및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진행, 의왕시 생애설계-훈련-취·창업 원스톱 제공 및 인생 3모작 커뮤니티 운영함
강원도	• 일자리국, 청년어르신일자리과(2019.10)를 신설하고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사업을 진행함
충청북도	• 수요자 맞춤형, 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중장년에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함
충청남도	•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지원함 • 당진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 ‘신중년지원센터’를 조성함. 예산군도 공모사업을 통해 공주재창업보육센터와 ‘5060 신중년 창업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전라북도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 전국 최초로 3개소의 은퇴자 작업공간을 설치·운영함
전라남도	• ‘4050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4050 미취업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직경비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컨설팅, 취업특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
경상북도	• ‘맞춤형 종합일자리 경북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지원, 창업지원,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함
경상남도	• 2020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을 마련하여 신중년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함 • 창원시는 창원형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함
제주도	• 2017년 4월 ‘예비노년층 노인준비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여가·인생재설계·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준비를 지원함

출처: 송민혜 · 경정아 · 박선영(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재정리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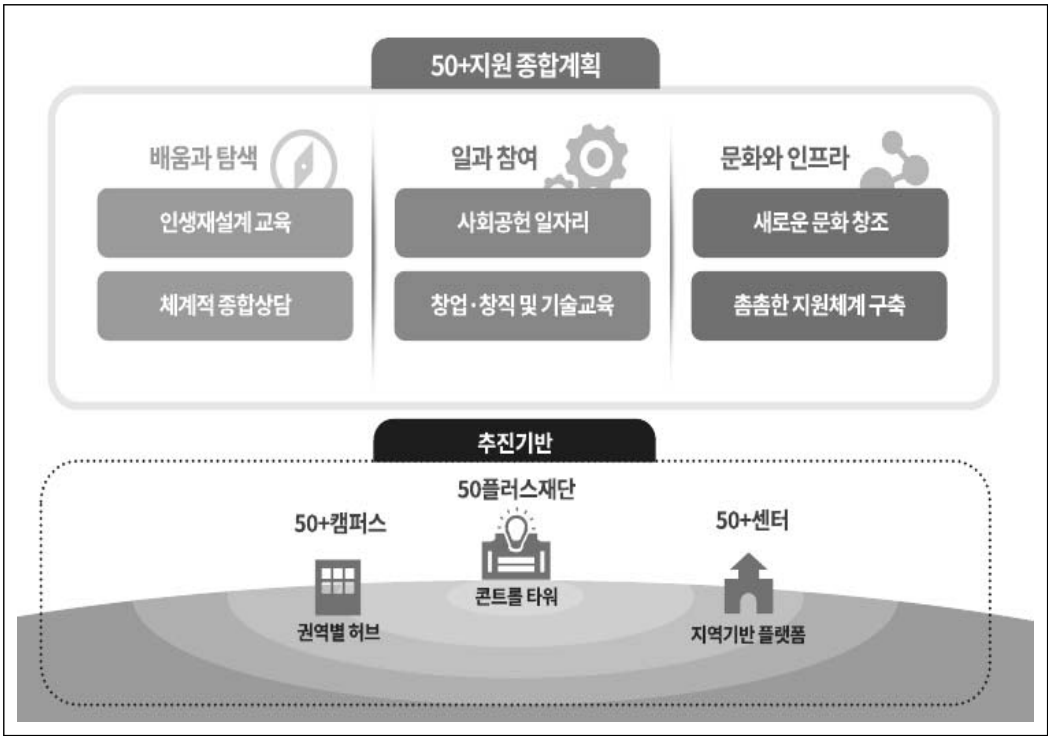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생애재설계 사업 현황

❍ 서울특별시 50+정책에서 정책대상자로서의 50+세대는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층을 지칭하나 조기퇴직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50+대상으로 만 45세~49세까지 포함하고 있음. 50+대상은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연령이 높은 노년기 진입 직전의 연령 계층으로, 서울시 인구 중 2016년 6월 기준으로 장년층을 전체 인구의 21.9%인 219만명임. 이는 만 15세 미만 아동 118만명,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128만명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현재의 50+세대는 노인층과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특히 50+세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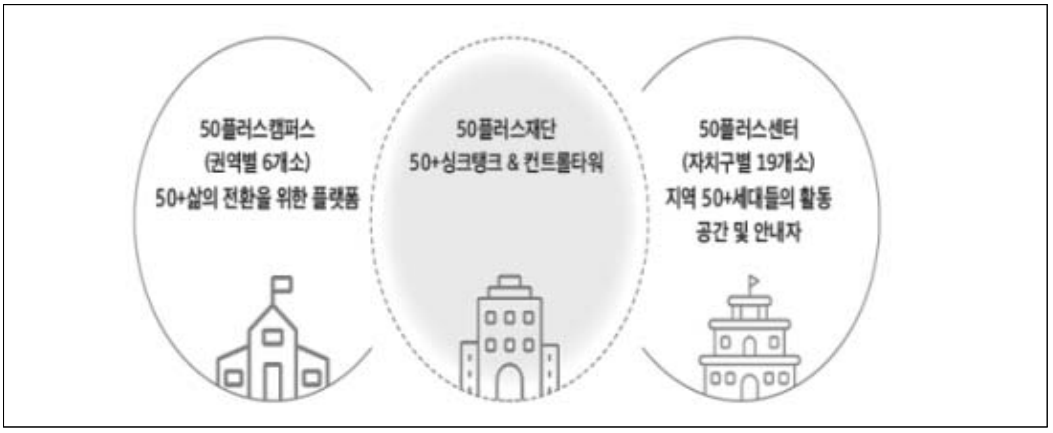
지막 시기로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며, 가족관계, 사회참여, 근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소득 구성, 건강,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함. 이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점진적 은퇴 경험이 50+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여 '가교 일자리'로서 재취업, 사회공헌활동, 창업, 창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

❍ 서울시의 50+종합계획을 통해 다음의 [그림 2-11]에서와 같이 배움과 탐색, 일과 참여, 문화와 인프라를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① 인생재설계 교육과 ② 체계적 종합상담, ③ 사회공헌일자리와 ④ 창업·창직 및 기술교육, ⑤ 새로운 문화 창조와 ⑥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업영역으로 구체화하였음. 추진기반으로는 권역별 허브기관인 50+캠퍼스 6개소와 구 단위 지역기반 플랫폼인 50+센터 19개소를 두고 있음



[그림 2-11] 50+지원 종합계획 방향 및 추진기반

출처: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내부자료



[그림 2-12] 서울시 50+정책 실행주체와 역할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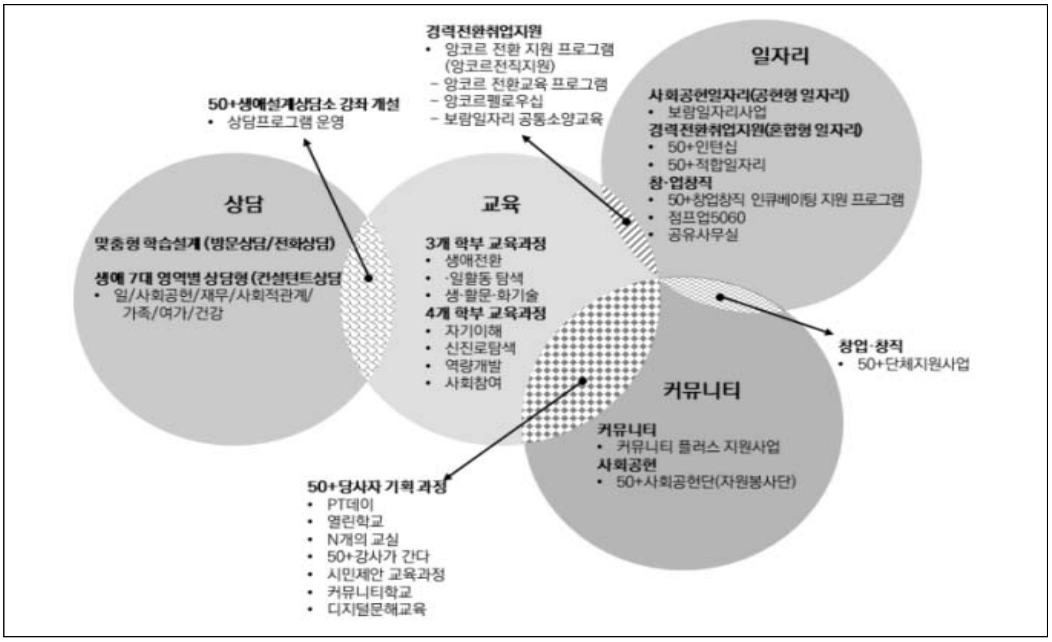
[그림 2-13] 서울시 50+정책 인프라 구축 현황
출처: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내부자료

○ 서울시 50+ 정책사업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2-14]에서와 같이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상담과정으로 맞춤형 학습설계에 진입하여 생애 7대 영역별(일/사회공헌/재무/

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 컨설턴트 상담을 받고서,

- 다음 단계인 교육에 진입함. 교육은 3개 학부 교육과정(생애전환, 일・활동 탐색, 생활・문화・기술)과 4개 학부 교육과정(자기이해, 신진로탐색, 역량개발, 사회참여)으로 나누어 운영됨
- 이어 커뮤니티 활동과 일자리 찾기로 나아감. 커뮤니티 활동은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사업과 50+사회공헌단(자원봉사단)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찾기는 사회공헌 일자리(공헌형 일자리)인 보람일자리사업과 경력전환취업지원(혼합형일자리)인 50+인턴십 및 50+적합일자리, 그리고 창업・창직인 50+창업창직 인큐베이팅 지원프로그램, 점프업 5060, 공유사무실이 제공됨
- 더불어 각 영역간의 공통과정으로 50+생애설계상담소 강좌를 개설하고, 경력전환 취업지원과 50+당사자 기획과정, 그리고 창업창직을 위한 50+단체지원사업이 추진됨
- 여기서 50+당사자 기획과정을 통해 PT데이, 열린학교, N개의 교실, 50+강사가 간다, 시민제안 교육과정, 커뮤니티학교, 디지털문해교육 등이 개설되어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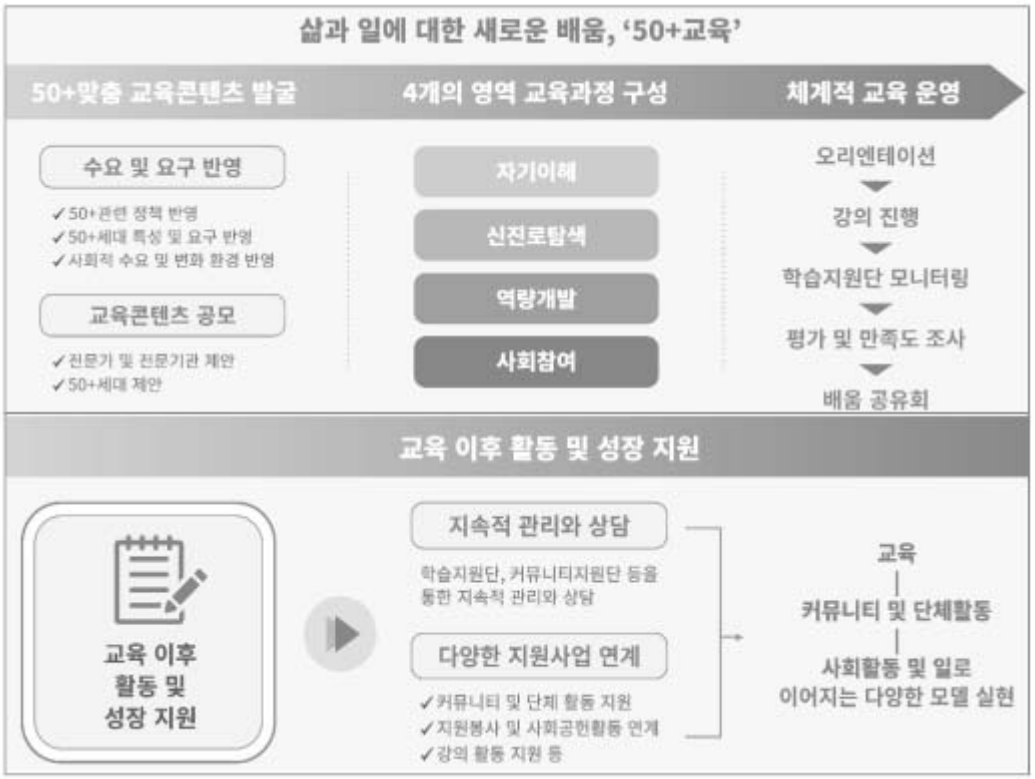


[그림 2-14] 서울시 50+정책사업 영역

출처: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내부자료

○ 서울시 50+정책사업에서 생애전환을 모색하게 하는 필수과정은 50+인생학교를 비롯한 교육과정의 참여하고 할 수 있음. 50+ 당사자들이 교육 참여를 통해 지난 삶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 전반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함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2-15]에서와 같이 수요 및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콘텐츠 공모를 통한 '50+맞춤 교육콘텐츠 발굴', 자기이해, 신진로 탐색,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 '4개 영역별 교육과정 구성', 오리엔테이션부터 모니터링, 배움 공유회로 이어지는 '체계적 교육 운영'으로 진행됨. 이러한 교육 참여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림 2-15] 서울시 50플러스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체계

출처: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내부자료

3.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에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확산 등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음. 중장년을 위한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임. 이는 중장년의 은퇴를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중고령기 노동시장을 단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임

○ 또한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과 관계없이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인 커뮤니티컬리지와 지역사회학습센터, 공민관, 시민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 후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대학중심의 학위과정 등 고등교육 프로그램도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운영체계가 대체로 일원화되어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성인계속교육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평생에 걸쳐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음. 고령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보다 생산 현장에서의 일하여 소득을 확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독일도 중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중장년 근로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적 계속교육을 위해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계속교육은 연방교육연구부 소관이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는 연방 내 부서간 연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의 평생교육사업 연계를 위한 주정부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교육과 관련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고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산화 체계로 운영 및 관리되어 있어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독일의 중장년

층은 독일사회의 견고한 복지체계와 직업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상담, 직업중개, 계속교육지원, 직업진입지원 등을 포괄적인 근로지원을 받고 있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전개해 왔음. 실제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노년세대는 일찍부터 복지적 접근을 반영한 정책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겨난 노년 부양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촉발되었음.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여전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장년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어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6~'20)'이 마련되었으나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실제적으로 정년제 정착이 미흡하고, 공적연금제도의 한계 등을 비롯하여 생애설계서비스와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서비스 내실화에 한계가 등장하였음. 이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비로소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서비스의 개발,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을 일자리 지원기구 및 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모델로 제시하였음

○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에서 5060세대를 고령자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반영하였음. 또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의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기회 확충,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 훈련을 강화하였음

○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

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 그리고 국가단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확산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 확대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름. 국가 단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삼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특히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5060세대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준비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2015년 4월에 제정하고 관련 조직으로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신설하였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기관, 일자리관련 기관 등 기존의 관련기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교육 및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중장년(50+세대)은 노인층과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가족관계, 사회참여, 근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소득 구성, 건강, 가치관 등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사회참여활동을 비롯한 창업・창직・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중장년(50+세대)은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임에 주목하여, 점진적 은퇴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외국의 교육지원체계와 비교하여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외국은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누구에게나 일상적 학습을 보장함으로써 별도의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학력은 높으나 인생 전반 삶에 대한 설계를 비롯하여 진로설계와 경력관리 등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무엇보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등장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달라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학습이 요구되는 것임

○ 그러므로 서울시 50+정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담-교육-커뮤니티-일자리로 이

어지는 종합 서비스와 50+당사자 기획과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의 제공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접근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수요자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 중심의 접근성 확보가 요구됨.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대학에서의 교육 지원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바,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이 우선 요구됨.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정보의 제공으로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제 3 장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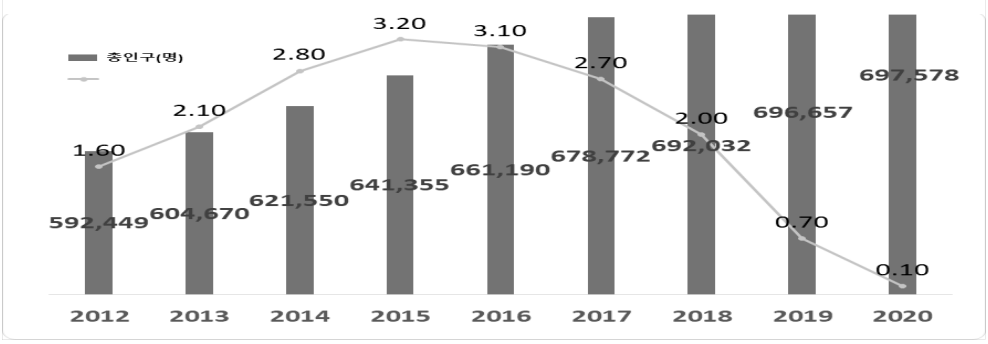
1.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인구 특성
2.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1.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인구 특성

가.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

○ 제주지역 2020년도 총인구는 69만 7,578명(내국인 674,635명, 외국인 22,943명)으로 2019면(696,657명)에 비해 921명(0.1%) 증가함. 이는 2020년 총인구가 10년 전인 2010년(577,187명)보다 20.9% 증가하였음

○ 인구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20년은 0.1%로 전년대비 0.6p 감소하였음



[그림 3-1] 연도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2012~202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 2020년 성비는 101.5로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를 상회하고 있음. 남자는 351,449명, 여자는 346,12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320명 많음. 2020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01.5로 전년에 비해 0.5%p 감소함

<표 3-1> 연도별 성별 인구(2013~2020)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04,670	621,550	641,355	661,190	678,772	692,032	696,657	697,578
남자	303,815	312,701	322,954	333,340	342,741	349,626	351,753	351,449
여자	300,855	308,849	318,401	327,850	336,031	342,406	344,904	346,129
성비	101.0	101.2	101.4	101.7	102.0	102.1	102.0	101.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 읍면동별 성비는 읍면지역의 성비가 107.2로 동지역의 성비 99.3보다 높게(7.9)나타남

<표 3-2> 읍면동별 성별 인구(2020)

(단위 : 명)

구 분	총 인 구			성 비
		남 자	여 자	
계	697,578	351,449	346,129	101.5
동 지역	494,680	246,470	248,210	99.3
읍·면 지역	202,898	104,979	97,919	107.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 2020년 제주도 노령화지수가 109.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유소년 인구 9만 7,599명, 생산가능 인구 49만 3,446명, 고령인구 10만 6,533명

○ 2020년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14.0%)와 생산가능인구(70.7%)의 비중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고령인구(15.3%)의 비중은 계속 상승

○ 유소년부양비(19.8%)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21.6%)는 증가

- 2020년 노령화지수는 109.2로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3> 연도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추이(2013~2020)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04,670	621,550	641,355	661,190	678,772	692,032	696,657	697,578
유소년인구(0~14세)	99,499	99,486	99,202	99,743	100,487	100,183	98,922	97,599
(비 중)	(16.5)	(16.0)	(15.5)	(15.1)	(14.8)	(14.5)	(14.2)	(14.0)
생산가능인구(15~64세)	425,716	439,467	456,052	472,016	484,921	495,358	496,966	493,446
(비 중)	(70.4)	(70.7)	(71.1)	(71.4)	(71.4)	(71.6)	(71.3)	(70.7)
고령인구(65세이상)	79,455	82,597	86,101	89,431	93,364	96,491	100,769	106,533
(비 중)	(13.1)	(13.3)	(13.4)	(13.5)	(13.8)	(13.9)	(14.5)	(15.3)
■ 유소년부양비	23.4	22.6	21.8	21.1	20.7	20.2	19.9	19.8
■ 노년부양비	18.7	18.8	18.9	18.9	19.3	19.5	20.3	21.6
■ 노령화지수	79.9	83.0	86.8	89.7	92.9	96.3	101.9	109.2

※ 2020년 주민등록인구(내국인+외국인) 기준 **전국 노령화지수 : 133.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 제주지역은 2020년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이상)는 10만 6,533명(15.3%)로 고령사회 진입[3)]

- 제주시(14.0%), 서귀포시(18.7%) 모두 고령화사회로 전년대비(제주시 13.2%, 서귀포시 17.7%) 65세이상 인구비중은 제주시 0.8%p, 서귀포시 1.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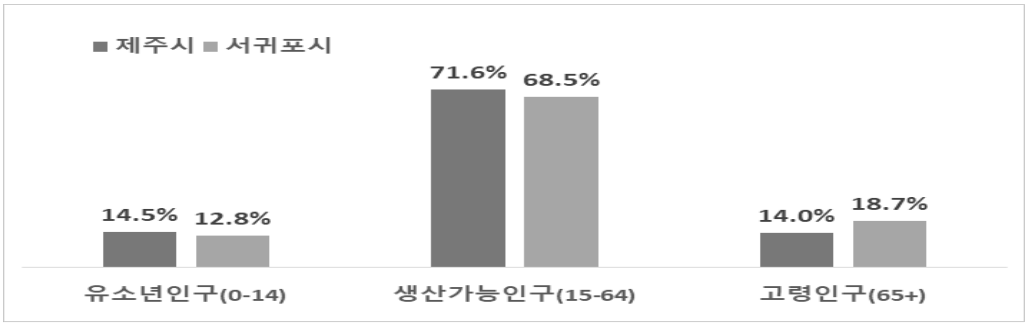
○ 노령화지수는 제주시가 제주도 평균(109.2)보다 낮은 96.8인 반면 서귀포시는 146.5으로 평균보다 1.3배 높음. 2019년 기준 노령화지수가 제주시 90.0, 서귀포시 137.6인 것과 비교하면 노령화지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제주지역이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 행정시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2020)

(단위 : 명, 100명당)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697,578	507,358	190,220
유소년인구(0~14세)	97,599	73,315	24,284
생산가능인구(15~64세)	493,446	363,081	130,365
고령인구(65세이상)	106,533	70,962	35,571
■ 유소년부양비	19.8	20.2	18.6
■ 노년부양비	21.6	19.5	27.3
■ 노령화지수	109.2	96.8	146.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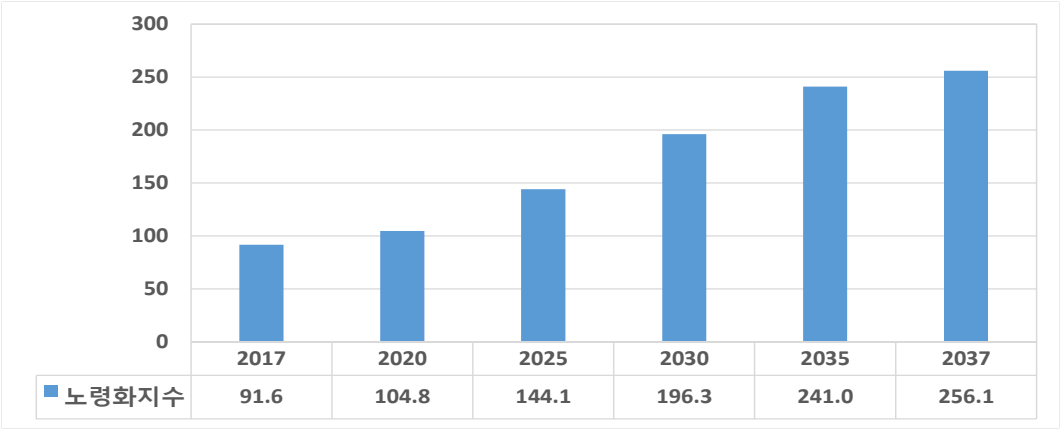


[그림 3-2] 행정시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비율(2020)

○ 제주지역의 노령화 지수[4)]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100%를 넘어 차츰 증가하

3) 65세이상 인구 비율 기준: 7%이상 고령화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4) 14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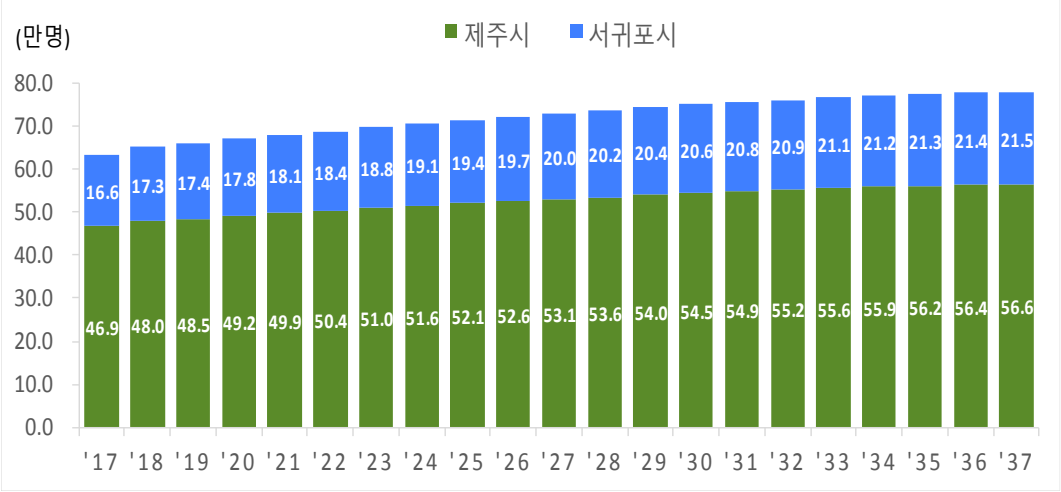
고 있고 2030년에 약 200%, 2037년에는 무려 256.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약 2.5배에 달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됨을 알 수 있음



[그림 3-3] 제주특별자치도 노령화지수 추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통계자료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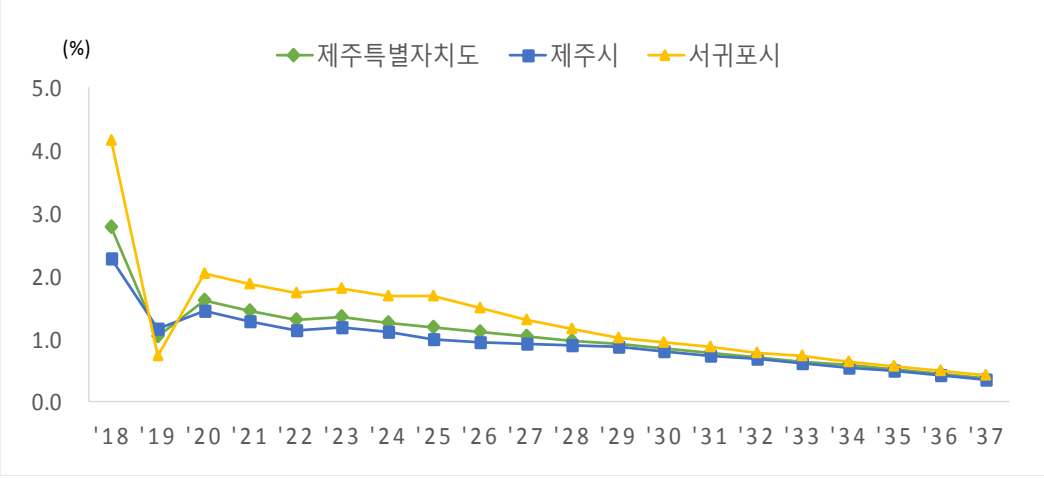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17년 63만5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70만명을 돌파하고 2037년 78만1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4] 연도별 행정시별 총인구 추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 제주도 인구성장율은 2018년 2.76%에서 2023년 1.3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임. 또 행정시별 인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제주시는 2025년, 서귀포시는 2030년부터 1%미만대로 진입이 전망됨. 행정시별 인구성장률의 차이가 컸으나, 2037년에 들어서는 유사한 인구성장률을 보임. 2030년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데, 제주시는 2034년부터, 서귀포시는 2017년부터 자연 감소하여 2037년에는 감소 폭이 확대됨



[그림 3-5] 연도별 인구성장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나.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 현황과 특성

○ 제주지역 중장년(50~64세)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162,532명으로, 전체 인구 697,578명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전국 평균 24.1%에 비해 0.8% 낮은 비율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도 0.7%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여기서 유의해서 살펴볼 점은 중장년(50~64세)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임.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106,533명(15.3%)에 비해 중장년 인구가 162,532명으로 1.5배 더 많게 나타남. 향후 중장년이 65세 이상 노년기로 전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제주지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표 3-5> 2020년 전국 및 제주 중장년 및 노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

		중장년(50~64세)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명,%)		전체인구(명)
전국	총 계	12,467,996	24.1	8,287,243	16.0	51,829,136
제주	총 계	162,532	23.3	106,533	15.3	697,578

출처: 통계청(2021). 2020년 전국 인구통계. 통계자료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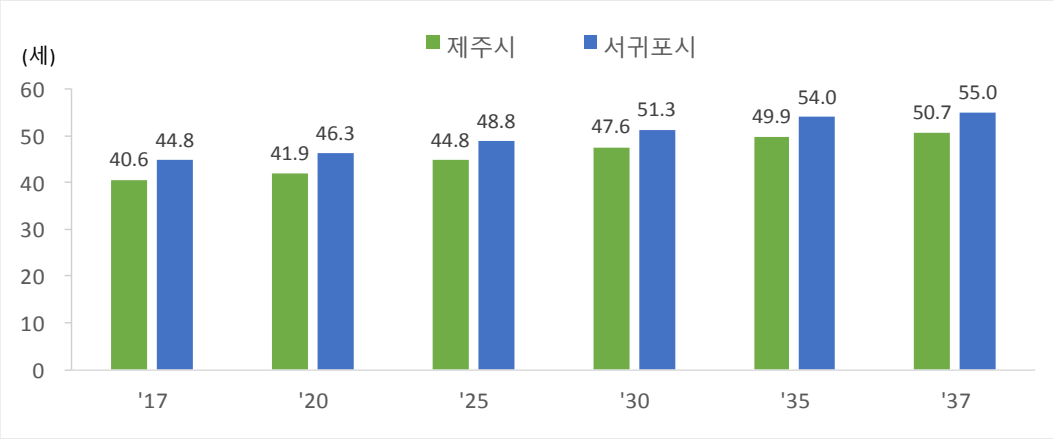
○ 행정시별 중장년 인구 구성과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중장년 인구 115,171명으로, 서귀포시의 중장년 인구 47,361명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비중을 나타냄. 그리고 남성과 여성 비중이 다음의 <표3-6>에서와 같이 비슷하나 남성이 83,523명으로 2.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행정시별, 성별 중장년(50~64세) 인구(2020)

구 분	계(명, %)		제주시(명, %)		서귀포시(명, %)	
계	162,532	100.0	115,171	70.9/100	47,361	29.1/100
남성	83,523	51.4	58,647	70.2/50.9	24,876	29.8/52.5
여성	79,009	48.6	56,524	71.5/49.1	22,485	28.5/47.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통계자료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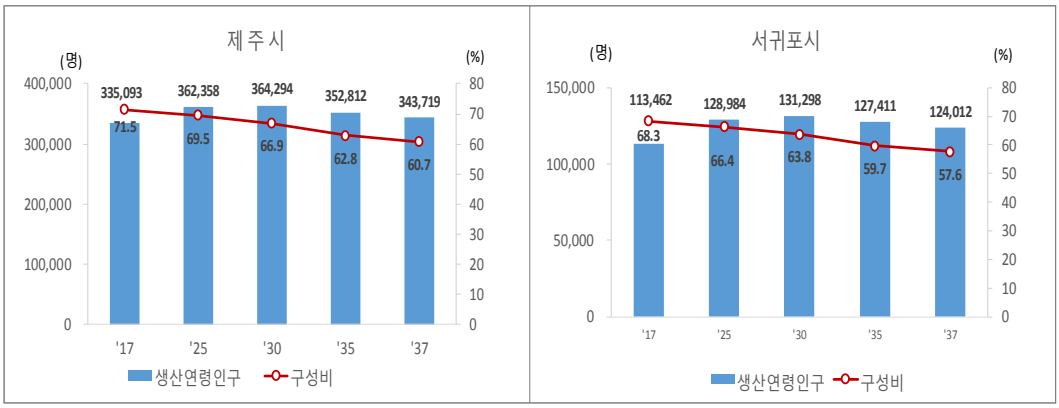
○ 제주도의 중위연령은 2017년 41.8세에서 2037년에는 52.0세로 10.2세가 높아질 것으로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2017년 41.8세에서 50.7세로 10.1세가 증가하고, 서귀포시는 44.8세에서 55.0세로 10.2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중장년이 실질적인 생산인구로서 담당하는 시기가 늘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일의 지속과 새일 찾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으로 알 수 있음



[그림 3-6]> 2017~2037 행정시별 중위연령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 제주도 생산연령인구는 2029년, 2030년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제주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44만9천명에서 2030년까지 49만6천명까지 증가하고, 이후 2037년 46만8천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7]> 행정시별 생산연력인구 및 구성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 제주도민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율은 2020년 기준 32.2%로 2019년 34.3%보다 낮아졌음. 65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1.9%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장년에 해당되는 45~54세는 33.9%, 55~64세는 30.0%로 나타남. 35~44세가 37.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45~54세가 형식교육 참여율이 4.2%로

25~34세 4.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점임. 대체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에도 다른 연령대보다 7~8%가 낮으나 20%정도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정 정도가 직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전국 평생학습 참여율 40.0%에 비하면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함. 이에 따라 제주도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과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표 3-7> 2020년도 제주도민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구 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전 체		32.2	2.6	30.6	21.2
연령별	25~34세	35.7	4.8	32.5	28.8
	35~44세	37.5	0.9	36.6	27.7
	45~54세	33.9	4.2	32.6	20.3
	55~64세	30.0	1.4	28.6	20.1
	65~79세	21.9	1.5	20.4	8.1

출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20). 2020년 제주지역 성인평생학습 실태조사

2.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현황

○ 제주지역에서의 공공 정책으로서의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정책은 「노후준비 지원법」의 본격 시행(2015. 12. 23)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2016년 당시 제주의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서면서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제기되었음. 당시 제주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본격 은퇴 및 노인층 진입에 따른 고령화 문제 발생을 예상하였음.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7.8.9.)하였으며,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인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과 후속으로 2021년부터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역시 2017년부터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의 일환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제주대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제주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으로 4개 학과가 신설되어 운영 중임

○ 그러므로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정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개요

□ 추진 배경

○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국가의 정책 시행 배경과 같이 고령화 대비 예비노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됨. 제주지역에서의 고학력 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으로 편입되기 시작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남

○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명 ‘낀 세대’라는 삶의 조건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공공의료지원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신체연령의 적용범위도 변화하였음. 즉 최근의 60대는 수명의 연장과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 그러므로 제주 예비노년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년준비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임. 이같이 「노후준비지원법」에서 제시된 분야별 노년준비 서비스가 제주지역에서도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 추진 경과

○ 2016년 8월부터 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은퇴인력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국내와 사례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베이비붐세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제주적합형 일자리 모델 개발 등을 거쳤고. 2017년1월에는 도민공론화를 위한 ‘탐나는 5060 프로젝트’ 도민토론회 개최와 사업수행(협력)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탐나는 5060 프로젝트(안)”을 수정(‘17. 2~3월)하여 2017년 8월에 확정하였음

○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 8월에 일본 실버인재센터와 NPO활동사례와 서울 50+재단, 부산 장노년일자리센터 등을 방문 조사하여 지역문제해결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은퇴이후 50+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전담 재단 및 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방문 조사를 하였음. 이어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 워킹그룹(3회) 및 자문위원회(4회) 운영, 그리고 관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간담회 1회)을 통한 추진과제 발굴 및 공동의 논의 과정을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2016년 10월에 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건강, 재무, 여가활동, 문화에 대한 욕구 및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노후

준비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2016년 11월에 예비노년층 일자리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취·창업교육, 재능·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방안 등 23건을 제안 받았음

○ 이와 같이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중앙 정부차원의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년준비 서비스와 별도로 추진됨. 2016년 당시 타시도(서울, 부산, 대전, 울산, 충남 등)에서는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50플러스 지원기구의 설치 및 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생재설계 및 위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표 3-8> 2016년 시·도 베이비붐세대 지원사례

구분	지원기구	기능 및 지원	비고
서울	50+재단	전문적인 싱크탱크, 컨트롤타워	인생이모작지원과 신설, 조례 제정
	50+캠퍼스	권역별 허브(6개소), 복합공간 제공	
	50+지원센터	자치구별 플랫폼(19개소, 민간위탁), 상담 프로그램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노인취업교육센터 통합, 법인 위탁(장년층, 노인일자리 전담)	장노년팀 신설, 조례 제정
대전	이모작지원센터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조례 제정
울산	내일설계지원센터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위탁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조례 제정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7).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은 두 가지였음. 하나는 예비노년층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수행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임

- 당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은 저소득층 중심의 추진으로, 고용노동부의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창업 등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였으나 은퇴자의 사회 참여 요구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미흡하였음
- 또한 일자리사업 정책 대상에 따라 소관 중앙부처와 수행기관이 다양하여 유사·중복사업의 발생 우려가 상존하였고, 전달체계별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연계성이 미흡하였음.

- 이는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과 노인회 광역취업센터 등을 통해, 그리고 중장년일자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각각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덧붙여 은퇴자 자원봉사도 공무원연금공단제주지부의 퇴직공무원지원센터와 도 사회복지협의회, 도 자원봉사센터 등 각 기관별로 은퇴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상호 연계·협력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었음
- 따라서 제주의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으로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 노후준비 지원 대책이 요구되었음. 그래서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그리고 인생재설계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한 것임

□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 '탐나는5060 프로젝트' 는 제주지역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비노년층 사회공헌형 중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은 국비사업에 우선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음. 우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련하여 2017년에는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발전의 시기로 삼았음

○ 사업 비전을 '행복' 과 '활기찬' 새로운 노년문화 창조를 내걸었음. 수요자 중심의 만족과 새로운 삶의 시작 및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함. 이를 위해 '예비노년층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기반 구축' 을 목표로 삼았음

비전 "행복 + 활기찬 新 노년문화 창조"

목표 예비노년층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기반 구축

○ 추진전략은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설정하였음. 각 전략별 접근성이

쉬운 지역 내 관계기관이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음

추진 전략 및 과제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1.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 2. 공동체형성 일자리 개발 시범 사업 3. JEJU 농촌 인력은행 4.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5. 민간기업연계 구구날 구인·구직의 날 6. 은퇴자 취·창업 지원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1. 공동체 씨앗 동아리 활성화 2.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 3.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4. 제주올레 그린 리더활동 5.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6.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1.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2.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3. 노후준비 교육 강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1.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 2.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운영 3.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 4.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 강화

[그림 3-8]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 전략 및 과제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17).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

○ '탐나는5060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과제는 4개 분야 19개로 구성되어 있음. 추진 전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①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체에서 예비노년층 고용시, 인턴취업 인건비 또는 시설·재료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장노년층의 중소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

② 공동체형성 일자리 개발 시범사업: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러 "동네삼춘" 육성과 지

역아동센터 공동급식사업 모델 개발, 그리고 클린하우스키퍼 공동체사업 모델 개발로 구성함. 마을주민이 공동체를 형성, 마을자원의 발굴·상품화·판매를 비롯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사업임

③ JEJU 농촌 인력은행: 감귤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확보가 필요한 농가에 상시적으로 노인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농작업반을 운영함. 농가 수요조사 및 노인인력 모집·사전교육·배치·사후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함

④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이 높고 지속성을 지닌 노인일자리 창출함.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제주특산물 활용사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 운영함

⑤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등 채용기회 확대 :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소규모 현장 면접의 장을 마련함. 우수 중소기업 등 참여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술 향상 및 자기탐색 기회를 제공함

⑥ 은퇴자 취·창업 지원: 은퇴자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 지원과 은퇴설계 박람회로 구성함. 은퇴이후 빈곤 등 고령화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베이비붐세대 은퇴설계를 위한 분야별 노후준비 프로그램과 창업(재취업) 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창업전략스킬 제공 및 성공(실패) 사례 등 설명회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2)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①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노후여가 및 취미활동, 마을발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생산적 노후준비위한 토대를 마련케 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상품개발 등 소득창출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함

②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과 인생재설계 컨설턴트로 구성함. 고학력 및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함. 회계처리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 등에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복지시설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돕고 은퇴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인생후반기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양성하여 종합상담 및 안내를 담당케 함

③ 5060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분야별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수혜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마련함. 고령친화 체감도 파악과 정책욕구조사 등 모니터링 제안사항에 대하여 고령화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함

④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제주올레의 청결한 환경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청소인력의 확보를 통해 올레와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파트타임)하여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유지함

⑤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후세대에 전수시키기 위하여 5060세대를 활동가로 육성, 청소년 대상 교육 및 각종 축제행사시 보급 확산함

⑥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베이비붐세대의 재능나눔 또는 프로보노(pro bono)장려 및 확산을 위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관광·환경·사회복지 등 분야별 5060 전문자원활동 사업단을 조직하여 지원함

(3)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①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베이비부머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 위한 취업교육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함. 제주지역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②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읍·면 등 마을 주민대상, 기업·기관 은퇴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서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울증 위험자의 경우 장기·집중 관리함

③ 노후준비 교육 강화: 생애전환기 인생 재설계·새일찾기 학교와 노후준비 재무설계 교육,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베이비붐세대의 후반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이해와 인생비전 수립을 위한 인생 재설계·새일찾기 교육을 마련하여 지원함. 인문학, 생활적응교육, 직업준비교육, 사회참여(재능기부) 등 인생설계 및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함.그리고 노후준비 관련 교육기회가 부족한 예비노년층을 위한 도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력관리 교육기회가 적은 장년층 근로자를 위한 재직 중의 경력설계 및 퇴직 후의 경력대안 개발을 통한 노후준비를 지원함

(4)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①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은퇴 본격화 및 2020년부터 노인층으로 진입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에 예방하기 위해 예비노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의 마련임

②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예비노년층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인생재설계 교육, 취업 등 종합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업체계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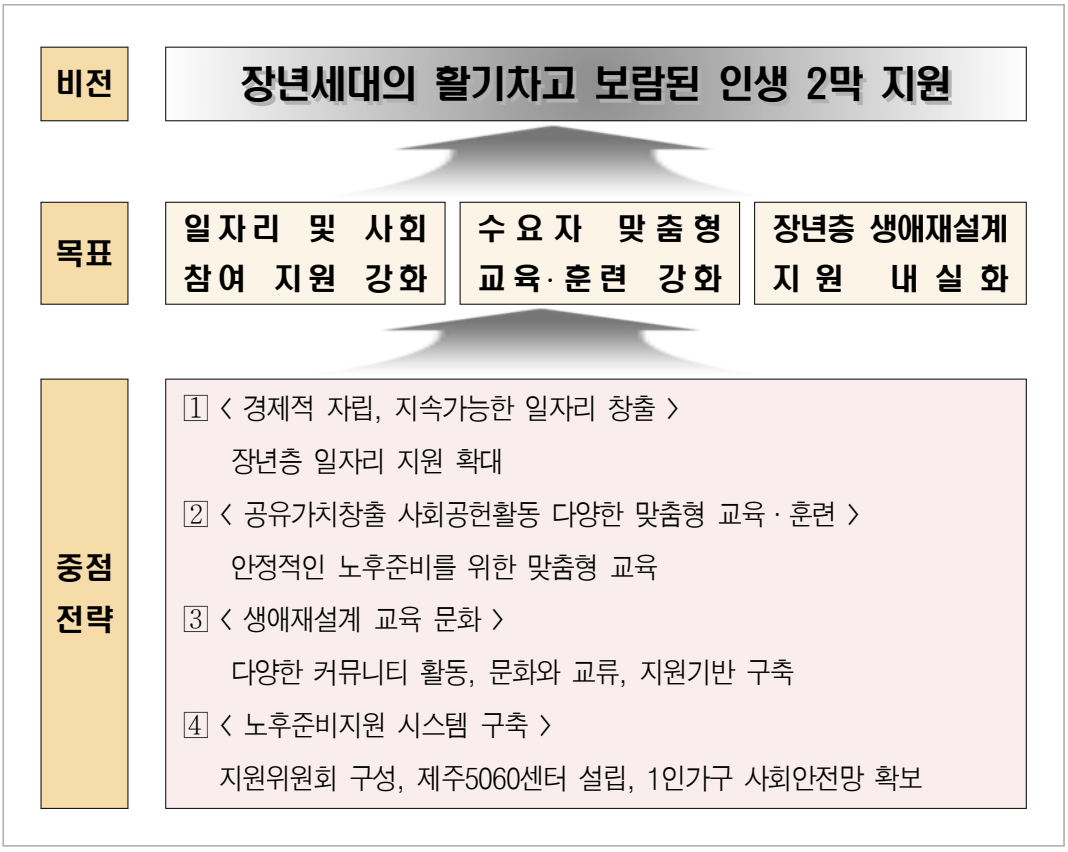
③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민간)와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전담조직 신설(행정)로 구성됨. 베이비붐세대 본격 은퇴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예비노년층 종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사회참여,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 상담부터 사업지원까지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 또한 도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 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함.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대해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교육문화 활동 등을 상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함

④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강화: 온라인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추진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후준비 정책을 널리 알림

□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으로의 전환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로 추진된 '탐나는 5060 프로젝트(2017~2019)'는 프로젝트로서 시행된 사업이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 조례에 근거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으로서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로의 전환됨

○ 새롭게 시작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은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중점 전략을 수립함. 비전을 장년세대의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 2막 지원으로, 목표를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내실화로 설정하였음.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① 경제적 자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② 공유가치창출 사회공헌활동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 ③ 생애재설계 교육 문화, ④ 노후준비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그림 3-9]〉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추진체계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2020).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 사업 추진방향은, 우선 고학력 전문직 장년층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컨설팅 등 지원 강화, 지역수요 및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정책 추진 내실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관 설치로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등에 두었음

- 이전 '탐나는 5060프로젝트'에서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으로 2018년 8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전담조직으로 노인장수복지과 일자리지원팀이 신설되었으나,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미완료되어 '제주5060센터 설립'이 지속과제로 남아 반영됨

2)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추진 현황

□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 특성

○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면서 7월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추진이 본격화됨. "제주에 사는 5060세대의 성공적 은퇴와 활기찬 노후"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4개의 추진전략별로 사업이 전개되었음. 당시 사업 예산은 2017년 1,287백만원, 2018년 1,254백만원으로 2년간 총2,541백만원이었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12,670명이 참여함

○ 사업 추진은 지역관련 기관의 고유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워킹그룹 중심으로 추진된 '탐나는5060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특성이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어서 적용되었음

- 베이비붐세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50+재단'을 설립하여 서부, 중부, 남부캠퍼스를 두어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전담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 제주의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국가직접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비와 통합한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지역내외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의 추진실적은 <표 3-9>와 같음

<표 3-9>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추진실적('17. 9.~' 18. 8.월말 기준)

□ 26개 사업, 예산 총액 7,482백만원(국비 1,157백만원 / 도비 6,325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추진기관	추진실적	
			2017.9.~12.	2018.1.~8.
합 계		12,676명	8,324명	4,352명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6/9)	1. 예비노년층 인턴 등 취업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3명	89명
	2. 공동체형성 일자리개발 시범 사업 ① 마을공동체 스토리텔러 "동네삼춘" 육성 (국가직접지원사업)	제주시니어클럽	1개소/10명	1개소/38명
	3. JEJU 농촌 인력은행	대한노인회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197명	31명
	4.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국가직접지원사업)	서귀포시니어클럽, 느영나영 복지공동체	1개소/40명	1개소/5명

구 분	사 업 명	추진기관	추진실적	
			2017.9.~12.	2018.1.~8.
	5. 민간기업연계 구구날 구안구직의 날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391명(면담)/20명(취업)	30명 취업
	6.은퇴자 취·창업 지원 ② 은퇴설계박람회 (탐나는5060만남의 광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회/1,500명	1회/-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활동 (6/7)	1. 공동체 씨앗 동아리 활성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개팀/60명	10개팀/100명
	2. 사회공헌 복지활동가 육성 ①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대한노인회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33명	33명
	3.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30명	30명
	4.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제주올레	23명	20명
	5.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36명	28명
	6. 5060 자원봉사 해피콜센터 운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91명	68명
생애재설계 교육문화 (3/5)	1.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국가직접지원사업)	느영나영복지공동체	160명	78명
	2. 퇴직자 마음건강 프로그램	-	-	-
	3. 노후준비 교육 강화			
	① 생애전환기 인생재설계·새일찾기 학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0명	150명
	② 노후준비 및 재무설계 교육	국민연금공단	100회/4,960명	88회/2,874명
	③ 장년나침반 생애설계 프로그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회/730회	17회/778명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4/5)	1. 예비노년층 노후지원 조례 제정	-	'17.8월 제정	-
	2. 노후준비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17.5월 구성	-
	3.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확충	-	-	-
	①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민간)	-	1개소	-
	②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 전담조직 신설(행정)	-	-	'18.8월 신설
	4. 5060 종합포털 구축 및 홍보강화	-	2식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2020년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추진 결과

○ '탐나는 5060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투입 중심으로 사업의 범위를 조정 운영함

〈표 3-10〉 2020년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

추진과제	사업 내용	추진실적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 JEJU농촌 인력은행(노인영농지원단): 지원분야 감귤, 마늘, 감자 등 수확기 유휴인력 지원	- 226명 참여 (78농가 대상 지원)
	• 제주형 고령자친화기업 육성: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 2개소 30명 일자리 창출 효과 (20명, ㈜신진 10명)
공유가치창출 사회공헌활동	• 공동체씨앗동라리 활성화: 동아리별 교육 및 자조모임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마련(팀당 1.5백만원 지원)	- 10개팀 119명 참여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경로당 회계, 장부 정리 등 행정업무 지원	- 66명 참여 (126개소 대상)
	• 5060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경로당 활성화, 독거노인 주거문제 모니터링	- 43명 참여
	• 제주올레 그린 리더활동: 올레 탐방로 유지 보수	- 18명 참여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고유문화 전수	- 26명 참여, 160회 파견 활동 (21개소 대상)
	• 5060 자원봉사 해피콜 운영: 자원봉사자 발굴 및 수요처 연계	- 66명 참여
생애재설계 교육문화	•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전문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 연계	- 취업과정 7개 - 자격증 과정 3개
	•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후반기 인생을 위한 중장년층 인생학교 교육과정 운영(인생학교 봄학기, 가을학기, 집중탐구과정 3개)	- 179명 참여 134명 수료 (인생재설계과정: 57명 참여 29명 수료 /집중탐구과정: 122명 참여 105명 수료)
노후준비지원 시스템 구축	•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조례 운영	- 2017. 8. 9. 제정
	• 장년층 생애재설계사업 운영 및 홍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2021년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세부 추진계획

○ 저출생, 고령화, 베이비 부머 효과 등으로 장년층(50~64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장년층의 재취업, 창업 등 준비 미흡, 생산가능 인구의 점진적 감소에 따른 장년층의 인적 자원화 필요성 증가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시행함

○ 2021년 현재까지 2017년 '탐나는 5060 프로젝트' 당시의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중심의 사업수행 체계가 유지 운영되고 있음

〈표 3-11〉 2021년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중점전략	추진과제	예산(백만원)	시행주체
	합계	4,860	
Ⅰ.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소계	1,292	
	1-1.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 지원	12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1-2. 고령친화기업 추진	60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원
	1-3.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20	(사)제주올레
	1-4. 도시녹지관리원	360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1-5.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400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6.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개최	60	제주상공회의소
	1-7.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18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8.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100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Ⅱ.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소계	123	
	2-1.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1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2. 제주 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2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3.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운영	3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4.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27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2-5.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30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Ⅲ. 생애재설계 교육문화	소계	668	
	3-1. 5060 프로젝트사업 개발비	12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3-2.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 운영	50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3-3.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15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3-4. 신중년대상 미래평생교육 운영	50	도 평생교육과
	3-5. 5060 페스티벌	250	생활문화예술단체 지원
	3-6. 실버&아마추어 합창 페스티벌	120	실버&아마추어합창단 지원
	3-7. 자연속 건강학교 운영사업	36	하례2리 마을회
Ⅳ. 노후준비지원 시스템 구축	소계	2,777	
	4-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위원회 운영	0	도 노인장수복지과
	4-2. 제주 5060센터 설치	700	민간위탁 추진
	4-3. 장년층 종합포털 및 홍보 강화	1	도 노인장수복지과
	4-4. 장년층 1인가구 지원(제주시)	220	그린상사
	4-5. 장년층 1인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서귀포시)	15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4-6.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 사업	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4-7.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97	도 일자리과
	4-8.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1,6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나. 제주지역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

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단과대학[5](미래융합대학) 운영 개요

○ 교육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의 일환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 사업 목적

○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운영함

○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의 대학역할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00세 시대에 대응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제주로의 귀농인구 증가, 외국계 기업 투자 활성화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 수용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함

○ 특성화 고졸자들이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제공, 취업 후 진학 등 고졸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함

○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대학교는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체제 전환을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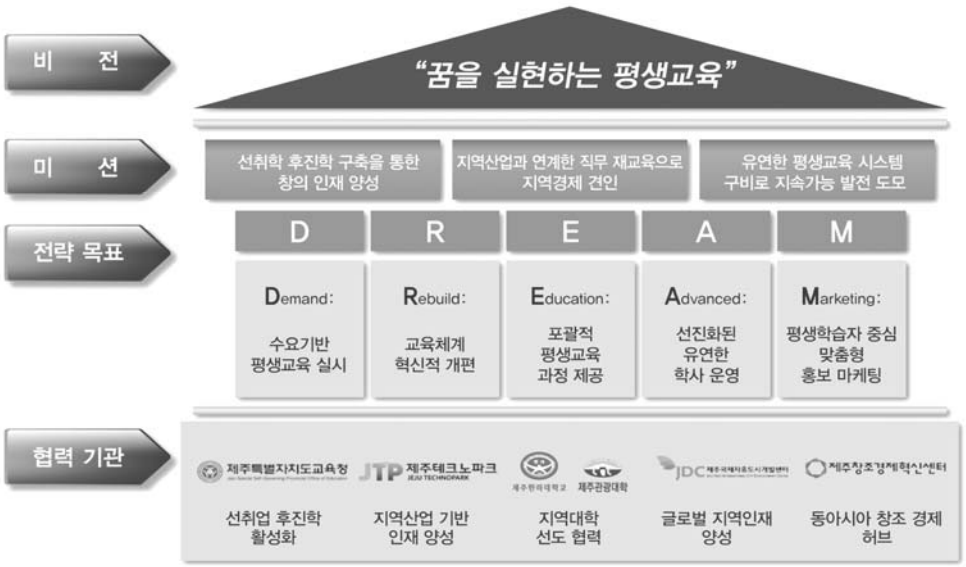
○ 제주대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가족회사를 비롯한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체제를 갖춰나감

□ 평생교육단과대학 비전 및 전략

○ 2017 제주대학교 평생교육단과대학 비전은 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와 100세 시대 만학도의 꿈을 실현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의 역할 수행을 위해 “꿈을 실현하는 평생교육”으로서, 선취학 후진학 구축을 통한 창의 인재양성,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무 재교육으로 지역경제 견인, 유연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비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비션으로 삼고 있음

5)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미래융합대학으로 명칭 변경(2017), 이하 미래융합대학으로 명명함.

○ 전략목표는 Dream(수요기반 평생교육 실시), Rebuild(교육체계 혁신적 개편), Education(포괄적 평생교육 과정제공), Advanced(선진화된 유연한 학사운영), Marketing(평생학습자 중심 맞춤형 호보 마케팅)으로 평생학습자의 성공적인 꿈 실현으로 설계함



[그림 3-10]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비전 및 전략목표

○ 2017~2021년을 운영하면서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내실화 · 견고함을 반영한 미래융합대학 비전의 발전방향의 변화

- 4년간 미래융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성인학습자 수요 및 시대적 욕구를 반영한 전략 수립

2)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 학위과정 운영 현황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연도별 입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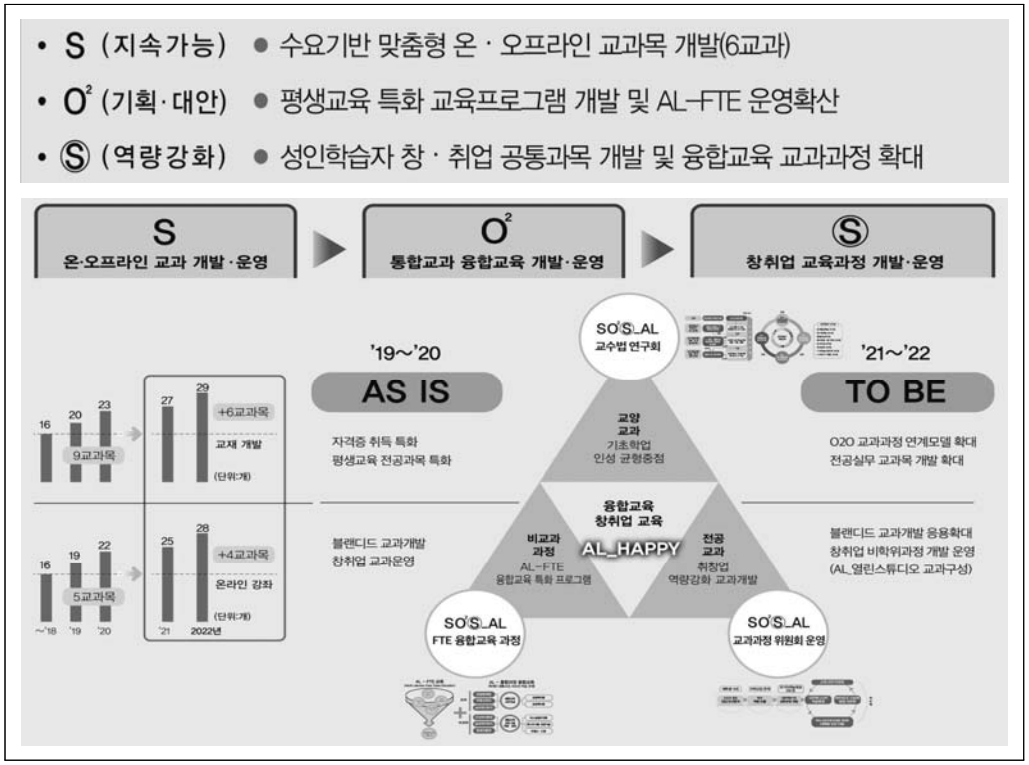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17학년도 신입생 99명으로 출발하여 2021학년도 졸업생 58명을 배출하였고, 복수학위 취득 학생 12명, 대학원 진학 16명으로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계함

〈표 3-12〉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입학 현황

학과명	2017학년도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2021학년	합계
건강뷰티향장	15	16	15	22	14	82
관광융복합	27	17	20	24	18	106
부동산관리	36	24	25	27	25	137
실버케어복지	21	15	18	23	22	99
합계	99	72	78	96	79	424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육과정 운영현황

○ 수요기반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창·취업관련 융합교육 교과과정 확대·운영함



[그림 3-11]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과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을 극복하고 있음

〈표 3-13〉 학과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구분	개발 교과목명	교과목 유형		개발년도		운영년도	
		오프라인 교재	온라인 강좌	'19	'20	'19	'20
건강뷰티 향장학과	응용헤어커트	○	-	○	-	○	○
	뷰티테라피사례연구	○	-	○	-	○	○
	글로벌뷰티경영학	○	-	○	-	○	○
	뷰티웰니스개론	-	○	-	○	-	○
관광 융복합학과	관광창직개론	○	-	-	○	-	○
	관광투자론	-	○	○	-	-	○
	지역발전개론	-	○	-	○	-	-
부동산 관리학과	부동산공법	○	-	○	-	○	○
	부동산계량분석	○	-	○	-	○	○
	거시경제학	-	○	-	○	-	○
	도시계획론	○	-	-	○	-	○
실버케어 복지학과	사회복지행정론	○	-	-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	-	○
계		9	5	7	7	5	12

○ 성인학습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창취업 공통과목 개발 및 융합교육 교과과정 운영하고 있음

- 학력보완교육과정 10개 과목, 성인문해 교육과정 4개 과목, 직업능력 교육과정 21개 과목, 인문교양 교육과정 1개 과목, 예술문화 교유과정 5개 과목, 시민참여 교육과정 1개 과목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학과 특성에 맞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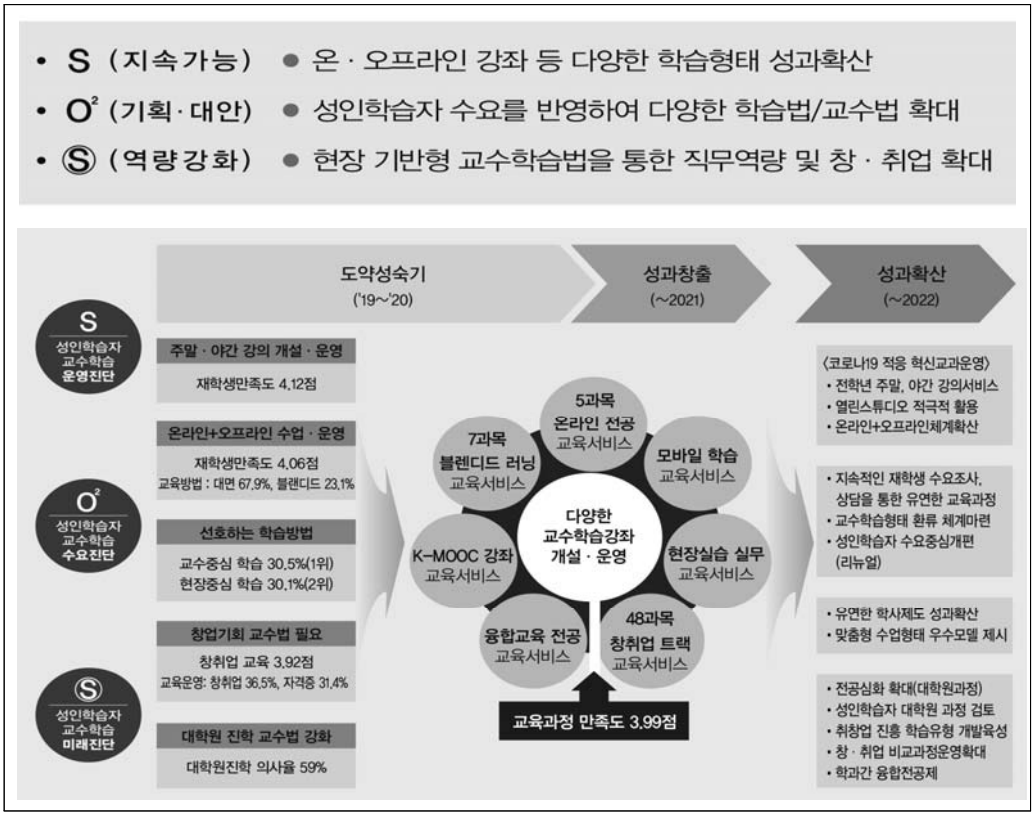
〈표 3-14〉 성인학습자 융합교과 비학위과정 운영 현황 (2020-2021년도)

영역	과정명	대상	운영 기간 (월, 일)	교육 시수	교육 인원	수강료	비고
① 학력 보완 교육	사회복지실무교육 I	재학생	'21.3	12	15	무료	오프라인
	사회복지실무교육II	재학생	'21.3~4	12	15	무료	오프라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교육	재학생	'20.11.1~12.6	15	5	무료	오프라인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이해	재학생	'21.4	30	12	무료	오프라인
	영어화회무작정따라하기	재학생	상시운영	-	-	무료	온라인
	건강뷰티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재학생	'20.12	4	20	무료	온라인
	건강뷰티 교과 학습지도 프로그램	재학생	'20.11~12	4	20	무료	오프라인
	관광 비즈니스 영어 비교과 특강	재학생 복수전공	'20.10~11	5	40	무료	오프라인
	관광 온라인 마케팅 채널별 믹스전략	재학생 복수전공	'21.2	1	40	무료	오프라인
	제주사회와 함께하는 담장 없는 학술대회(1차)	재학생	'21.4.	2	20	무료	오프라인
② 성인 문해 교육	컴퓨터 기초활용능력	재학생	'21.3.7,14, 21	12	15	무료	오프라인
	컴퓨터활용 심화교육	재학생	'21.4.4, 11	8	10	무료	오프라인
	엑셀 초보자를 위한 특별강좌	재학생	상시운영	-	-	무료	온라인
	MS오피스 파워포인트 2016	재학생	상시운영	-	-	무료	온라인
③ 직업 능력 교육	병원미용상담사	재학생	'21.2.~4	15	5	무료	오프라인
	왁싱전문가과정	재학생	'21.4	22	22	무료	오프라인
	뷰티퍼스널컨설턴트 과정	재직자 재학생	'20.11~12	10	22	무료	오프라인
	피부미용국가자격증대비반	재학생	'21.3	10	16	무료	오프라인
	사례관리전문가 기초과정	재학생 지역주민	'20.2.22, 29	7	11 / 7	무료	오프라인
	사례관리전문가 과정	재학생	-	-	-	무료	오프라인
	에니어그램 기초 과정	재학생 지역주민	'21.4	31	12	무료	오프라인
	실버전문가과정	재학생	'21.3	40	3	80% 지원	오프라인
	실버전문가 양성과정	재학생 지역주민	'20.5~12	45	13 2	무료	오프라인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과정	재학생	'21.4-5	10	1	80% 지원	오프라인
	건강뷰티창업특강	재학생	'21.4	20	4	무료	오프라인
	메이크업 전문가과정	재학생	'21.4	20	12	무료	오프라인

	Business writing	재학생	상시운영	-	-	무료	온라인
	실행성과를 높이는 기획력	재학생	상시운영	-	-	무료	온라인
	뷰티향장 창취업 특강		'21.4	4	20	무료	오프라인
	부동산관리학과 전문자격 취득과정(공인중개사)	재학생	'20.7~10	24	12	70% 지원	오프라인
	부동산 드론영상 콘텐츠 제작 실무	지역주민 재학생	'20.7~8	16	16	70% 지원	오프라인
	공인중개사과정 / 2차	재학생	'21.3~5	16	10	70% 지원	오프라인
	주택관리사과정	재학생	'21.3~5	16	10	70% 지원	오프라인
	부동산 창취업 특강	재학생	'21.3~4	4	40	무료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 (부동산)	재학생 졸업생	'21.2~3 '21.3~4	8 6	90 70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
④ 인문 교양 교육	제주미래 핵심 전략산업 인재양성과정	재학생	'21.4	20	4		오프라인
⑤ 문화 예술 교육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재학생	-	확인	2	80% 지원	오프라인
	귀화 및 이주민 전문교육과정	귀화& 이주민	'21.5	10	8	무료	오프라인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활용법	재학생	'21.4~5	15	15	무료	오프라인
	관광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기획 특강	재학생 복수전공	'21.2	1	40	무료	오프라인
	관광 마을계획 비교과 특강	재학생 복수전공	'21.2	1	40	무료	오프라인
⑥ 시민 참여 교육	자원봉사실무교육	재학생	'21.3.30	2	22	무료	오프라인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친화형 교수법 개발 운영 현황

○ 성인학습자 특성에 맞는 주말·야간, 온라인·오프라인, 블랜드디, 창업을 위한 현장실무 서비스 교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2] 성인친화적 교수법 개발 운영

○ 학과의 특성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전공 수업운영 현황

〈표 3-15〉 학과별 수업 운영형태

구분	수업운영 방법	학과특성 현장실습
건강뷰티향장학과	• 주중 주간·야간반 운영 • 주중에 1일 집중수업 예정	• 건강뷰티자격증 취득 실습교육
관광융복합학과	• 야간반(목), 주말반 운영(토) • 주말반, 야간반, On-Line운영	• 현장탐방 팀과제 운영·평가
부동산관리학과	• 주말반, 야간반, On-Line(B-러닝)운영	• 현장견학을 통한 교과운영
실버케어복지학과	• 주중 야간반, 주말반, On-Line 운영	• 사회복지사 취득 현장실습

○ 창취업 및 코로나 19대응 등 다양한 학습법 · 교수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16>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법 · 교수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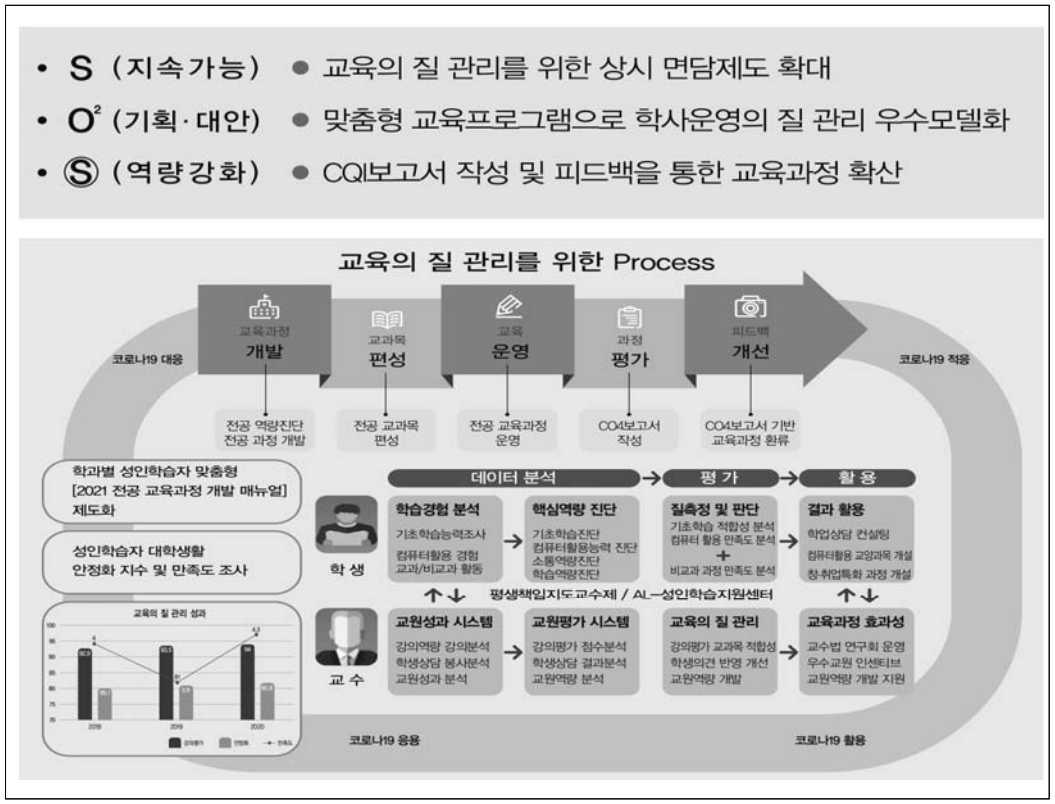
<table>
<tr><td>오프라인</td><td>● 강의 및 토론 , 발표, 실험실 실습 · 실기 수업 등의 출석수업
- 제주대학교 JNUclass 시스템에 출결처리</td><td>교수학습 상호작용과 피드백</td></tr>
<tr><td>온라인(K-MOOC / OCU/ 열린스튜디오)</td><td>●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플레쉬 등 온라인 강의 방식
- 온라인 강의 이수율, 과제 제출, 시험 등으로 평가
- E-learning 강의시, 개인별 과제 피드백, 질문방・토론방의 운영
● K-MOOC 강좌 연계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25개 운영
<table>
<tr><th>인문/사회</th><th>경제/경영</th><th>기초과학</th><th>전기전자</th><th>예체능</th><th>합계</th></tr>
<tr><td>12개</td><td>2개</td><td>6개</td><td>4개</td><td>1개</td><td>25개</td></tr>
</table>
* 2020학년 2학기제외
● OCU 강좌를 통해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증진: 최대 6학점 인정
●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AL-열린스튜디오 활용한 실시간 강의개설</td><td>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제공</td></tr>
<tr><td>개별 수업</td><td>● 학습자와 교수 간 1:1 상담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형식 개선
- 교과목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형 교수법 개선
-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중간/기말고사 개별운영
- 개별 수업의 경우 과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일정기간 내의 과제보고서 제출 시만 수업참여로 인정
- 개별 수업보고서 제출 후 수업결과물에 대한 1:1 학습 코칭</td><td>학습자 맞춤형 학습 방식을 통한 효과성 제고</td></tr>
<tr><td>블렌디드</td><td>● 온・오프라인 병행수업(블렌디드 운영 확대) : 7과목 운영확대
<table>
<tr><th>관광융복합</th><th>부동산관리</th><th>실버케어복지</th></tr>
<tr><td>1개</td><td>4개</td><td>2개</td></tr>
</table>
- 온라인을 통한 예습 및 숙제 후 오프라인 강의, 토론, 실습을 진행하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 활용 가능
- 온라인 강의는 웹기반 학습장애 일정시간 접속 및 학습활동 인증내용이 전송되어야 수업참여 인정
*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td><td>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td></tr>
<tr><td>현장실습</td><td>● 산업체 현장에서 교과목 주제와 관련한 직무체험, 직무경험, 직무수행을 통한 실습 방식의 수업
- 현장실습 수업의 경우 실습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실습보고서 제출 시에만 수업 참여로 인정</td><td>다양한 현장 직무 경험 제공</td></tr>
<tr><td>융합교육</td><td>● 융합시대 맞추어 학제간 융합교육 교과과정의 교수법을 구성·실행
-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고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문영역을 높이기 위한 교과·비교과로 재구성하여 융합교육 구성·실행
- 융합교육 AL_융합교육 교수법 연구회를 통해 학제 간 융합요소를 진단하고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업형태를 갖출 계획임</td><td>학제간 융합・통합 교과 시너지 효과 창출</td></tr>
<tr><td>창취업교육</td><td>● 학과별 커리어 맵 기반 창·취업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창·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교수법으로 재학생의 창·취업 역량 강화</td><td>창・취업 교수법으로 핵심역량 극대화</td></tr>
<tr><td>코로나19대응 교육 운영</td><td>● 코로나 19로 집합명령 금지에 따른 활동자제로 계절학기를 이용한 조기졸업 욕구 반영(2020 동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교과과정 커리어맵 구성·운영: 7과목 운영확대</td><td>조기졸업 기회제공</td></tr>
</table>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의 교육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Process 운영

○ 성인학습자의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상시 책임지도교수제 및 상담 전담 책임 교수 등을 통해 면담제도를 구축함

○ 학습경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테이터 분석 및 CQI보고서 기반 교육과정을 환류하고 있음

○ 학과별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을 제도화 ·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3]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Process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 성인학습자의 욕구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 재학연한제 폐지, 최소학점 기준 완화,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및 K-MOOC공동 교양과목 개발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정착화 · 운영하고 있음

- AL-열린스트디오 관리제도 마련 및 교양 강의동 공동 운영규칙 수립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를 질적 성숙화 하고 있음
- AL-성인학습자지원센터 재정비 및 지역 내 교육기관 특강 · 홍보 등을 통한 유연한 학사제도개선 및 지역사회 연계 · 확대하고 있음
- 학사제도 개선 TF팀 운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사제도 개편 등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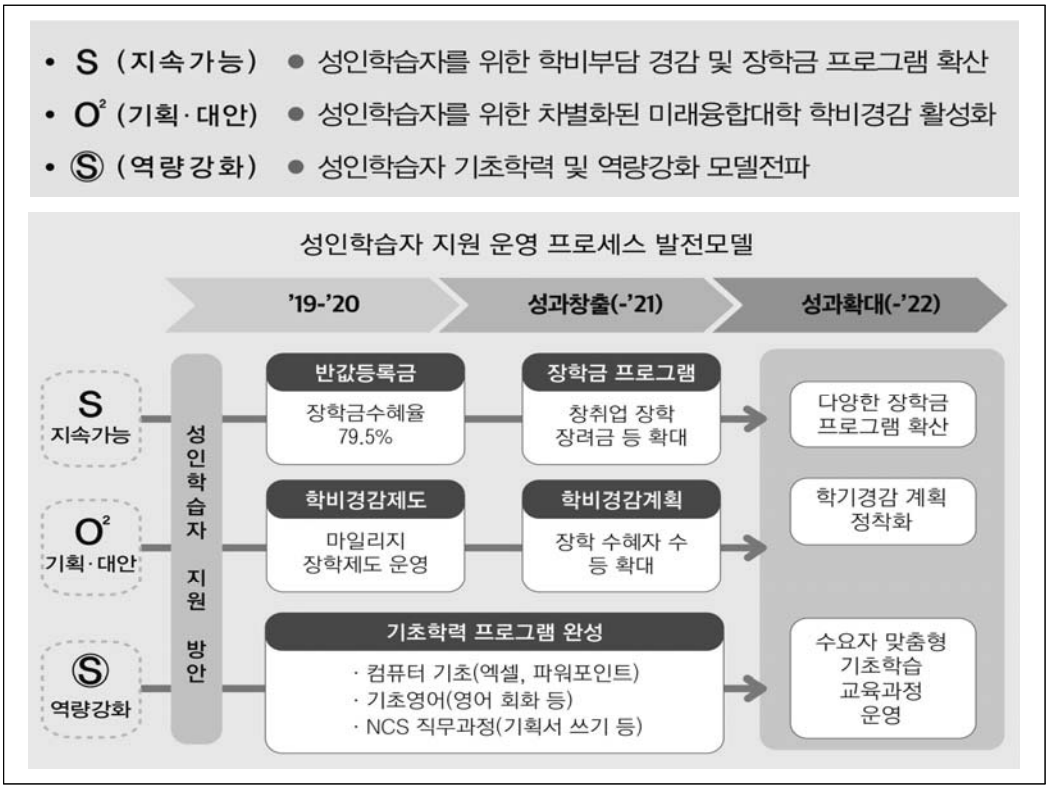
[그림 3-14]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운영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 학습 지원 방안

○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비부담 경감 및 장학금 프로그램 확산 · 운영하고 있음

- 반값등록금, 장학금 프로그램, 학비경감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함

- 컴퓨터 기초, 기초 영어 등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지원을 운영함



[그림 3-15] 성인학습자 지원 운영 프로세스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지역 2020년도 총인구는 69만 7,578명(내국인 674,635명, 외국인 22,943명)으로 2019면(696,657명)에 비해 921명(0.1%) 증가함. 이는 2020년 총인구가 10년 전인 2010년(577,187명)보다 20.9% 증가하였음

○ 2020년 제주도 노령화지수가 109.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유소년인구(14.0%)와 생산가능인구(70.7%)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15.3%)의 비중은 계속 상승 중이고 고령사회로 진입함

○ 제주지역 중장년(50~64세)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162,532명으로, 전체 인구 697,578명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음. 중장년(50~64세)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임.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106,533명(15.3%)에 비해 중장년 인구가 162, 532명으로 1.5배 더 많게 나타남. 향후 중장년이 65세 이상 노년기로 전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제주지역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제주도민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율은 2020년 기준 32.2%로 2019년 34.3%보다 낮아졌음. 65세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1.9%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고, 중장년에 해당되는 45~54세는 33.9%, 55~64세는 30.0%로 나타남. 대체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관련 비형식 교육에도 다른 연령대보다 7~8%가 낮으나 20%정도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일정 정도가 직업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됨

○ 제주지역에서의 공공 정책으로서의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정책은 「노후준비 지원법」의 본격 시행(2015. 12. 23)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2016년 당시 제주의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근소한 차이로 넘어서면서 예비노년층의 노후준비 지원 대책의 마련이 제기되었음. 당시 제주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본격 은퇴 및 노인층 진입에 따른 고령화 문제 발생을 예상하였음.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17.8.9.)하였으며,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정책인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과 후속으로 2021년부터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국가의 정책 시행 배경과 같이 고령화 대비 예비노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됨. 제주지역에서의 고학력 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으로 편입되기 시작되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반면에 수명 연장과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한편 기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남

○ 그러므로 제주 예비노년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은 두 가지였음. 하나는 예비노년층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의 부재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수행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임. 2017년 시작된 '탐나는5060 프로젝트'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은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였음. 우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련하여 2017년에는 공감대 형성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확산·발전의 시기로 삼았음. 추진전략은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활동, 생애 재설계 교육 문화, 노후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설정하였음. 각 전략별 접근성이 쉬운 지역 내 관계기관이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음

○ 2021년부터 조례에 근거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으로서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로 전환됨. 새롭게 시작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은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중점 전략을 수립함. 비전을 장년세대의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 2막 지원으로, 목표를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내실화로 설정하였음

○ 사업 추진방향은, 우선 고학력 전문직 장년층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컨설팅 등

지원 강화, 지역수요 및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정책 추진 내실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관 설치로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등에 두었음. 2021년 기준 총 28개 사업에 4,860백만원 규모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2017년 '탐나는 5060 프로젝트' 당시의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중심의 사업 수행 체계가 유지 운영되고 있음

○ 이전 '탐나는 5060프로젝트'에서의 노후생활지원 전담 기구 확충으로 2018년 8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전담조직으로 노인장수복지과 일자리지원팀이 신설되었으나, 초기 계획에서의 예비노년층 노후생활지원센터 설치는 미완료되어 2021년 계획에 '제주5060센터 설립'이 지속과제로 남아 반영됨

○ 교육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의 일환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제주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으로 4개 학과(건강뷰티향장, 관광융복합, 부동산관리, 실버케어복지)가 신설되어 운영 중임

○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제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통합·개편 운영하고 있음. 특성화 고졸자들이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제공, 취업 후 진학 등 고졸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함. 또한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대학교는 대학-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체제 전환을 유도함

○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17학년도 신입생 99명으로 출발하여 2021학년도 졸업생 58명을 배출하였고, 복수학위 취득 학생 12명, 대학원 진학 16명으로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연계함. 수요기반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창·취업관련 융합교육 교과과정 확대·운영하고, 학과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을 극복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욕구조사를 통한 창취업 공통과목 개발 및 융합교육 교과과정 운영하고 있음. 학력보완교육과정 10개 과목, 성인문해 교육과정 4개 과목, 직업능력 교육과정 21개 과목, 인문교양 교육과정 1개 과목, 예술문화 교유과정 5개 과목, 시민참

여 교육과정 1개 과목을 운영함. 또한 학과 특성에 맞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인학습자의 욕구를 반영한 유연한 학사제도로 재학연한제 폐지, 최소학점 기준 완화,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및 K-MOOC공동 교양과목 개발 등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제도 정착화 · 운영하고,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더불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비부담 경감 및 장학금 프로그램 확산 · 운영을 비롯하여 컴퓨터 기초, 기초 영어 등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지원을 운영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201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아 도 노인장수복지과를 중심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음.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 가장 격동기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바탕이 되었음. 그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공동체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전담하여 구심적 역할을 맡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미설치됨. 그 동안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체계로 사업을 추진되어 왔음. 이와 같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기반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의 사업체계는 기존 유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점에서 행정적·재정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함

○ 반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체로 자체 고유 업무를 갖고 있음에 따라 각각 별도로 부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업무는 별도의 추가 업무로 추진됨에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음. 즉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맞이한 다양한 중장년의 경력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임. 지난 5년 동안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제주의 중장년이 은퇴를 앞둔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새로운 일과 사회 활동의

탐색, 그리고 참여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서울특별시의 서울 50플러스 재단 및 지역 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한 종합 상담 체계 운영 사례에서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도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마련이 급선무임. 이를 통해 국가단위 지원정책과 제주 지역의 지원 현황,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중장년을 위한 지원 현황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이를 통해 지역에 산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된 은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 궁극적으로는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로서 전 생애 발달과정으로써의 중장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함. 또한 이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 일 탐색 경험을 통한 전환학습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는 관점의 전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제 4 장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 및 전문가 FGI 결과

1. FGI 개요
2. FGI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FGI 개요

가. FGI 대상 및 기간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가 느끼는 '중장년의 의미', 관련 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의견 및 결과의 활용사항, 그리고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주요 장애요인과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에서 수행되는 일자리 지원, 취·창업 활동지원의 현황과 과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 대상자는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 10명,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10명,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7명 등 총 27명임

○ 조사 대상의 특성 및 수집의견 영역에 따라서 <표 4-1>과 같이 구분하여 2021년 9월 25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진행함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구분		대상 특성	일정
1그룹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자 1	A.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00(66년생)	9월 30일
		B.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김00(59년생)	
		C. 미디어 강사 박00(65년생)	
		D. 탐나는5060인생학교 및 씨앗동아리 전00(67년생)	
		E.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박00(57년생)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자 2	A. 탐나는5060인생학교 1기 및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강00(62년생)	9월 30일
		B. 제주탐나는5060인생학교 6기 강00(60년생)	
		C. 제주탐나는5060인생학교 8기 양00(61년생)	
		D. 제주탐나는5060인생학교 2기 및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김00(65년생)	
		E. 제주탐나는5060인생학교 1기 및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오00(57년생)	

2그룹	제주대 미래융학대 재학 성인학습자 1	A.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남성) 김00(60년생)	9월 25일
		B.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여성) 홍00(73년생)	
		C.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여성) 송00(63년생)	
		D.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남성) 김00(60년생)	
		E.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남성) 김00(69년생)	
	제주대 미래융학대 재학 성인학습자 2	A.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여성) 강00(73년생)	10월 1일
		B.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남성) 최00(61년생)	
		C.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남성) 고00(67년생)	
		D.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여성) 조00(71년생)	
		E. 제주대 미래융합대 재학생(여성) 심00(53년생)	
3그룹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A. 도 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책임자	10월 7일
		B.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C. 도청 중장년생애재설계 업무 전 책임자	
		D. 여성직업훈련 지원기관 책임자	
		E. 중장년일자리지원기관 책임자	
		F.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실무 책임자	
		G. 사회적기업 대표 및 6차산업 관련 협회 실무책임자	

나. FGI 방법 및 내용

○ 면접 방법

- 면접 방법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사전 질문지를 마련하고, Open Discussion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
- Open Discussion은 논의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구조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간에 스스럼 없이 친숙하게 대화를 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법(kaner, Lind, Toldi, Fisk, & Berger, 2007)으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대상 당사자와 지원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임

○ 주요 면접 내용

- 중장년생애재설계 당사자 심층 면담 내용에는 중장년 당사자로서의 '중장년'의 의미와 교육참여 경험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교육(프로그램) 참

여의 주요 장애요인,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적절성 여부를 확인함

-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의 전문가 심층 면담내용에는 제주지역 중장년 대상 지원 현황,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 중장년 생애재설계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실천 방안, 중장년 생애재설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등을 확인함
- 이와 같이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해 우선 시행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FGI) 질문을 통해 검토하여 사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함
- 각 초점 집단별로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를 내용분석의 방법에 따라 분석함. 즉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과 관련 주요사항들에 대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딩된 내용을 면담 질문에 따라 상위 범주화한 후 이를 다시 하위범주로 구분함.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음

<표 4-2> 조사 내용

구 분	조사내용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 '중장년' 의 의미와 삶의 변화 · 교육 참여 경험과 결과의 활용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과 과제	· 제주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지역 취·창업 활동지원 영역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2. FGI 결과

가.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1) '중장년'의 의미와 삶의 변화

□ 중장년기 삶의 특성과 변화 체감

○ 인생의 전환점으로서 맞이하는 중장년기 삶 인식

-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체감하며,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베이비붐・인생이모작 세대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명퇴와 퇴직 이후 새롭게 주어진 과제와 일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또한 나약하다는 생각과 도전이라는 말을 쓰기의 어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까하는 마음에서 오는 먹먹함 등을 토로하고 있음

> 앞으로의 중장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의 중장년을 바라보는, 그리고 일컫는 말들이 베이비 부머, 그 다음에 인생 이모작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몸이 안 좋아서 명퇴를 했는데. 이제 이 말이 나왔어요. 임중도원이라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게 우리가 직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난 뒤에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1-2-A, 2021.9.30.)

> 제가 생각하는 중장년... 딱 느끼는게, '나약함'? 스스로 나약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도전이라는...말을...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전이라는 그 말을 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음에서 오는 조금 먹먹함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다른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할 때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약간 먹먹하고....그런...생각 났었고요.(2-2-A, 2021.9.30.)

- 한편, 중장년 시기를 상하관계 없고 자녀들의 독립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꿈꾸기도 하나 남은 시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느끼며,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홀로설 수 있어야 함을 체감하고 있음

> 중장년... 바로...딱 좋은 나이.,, 상하 관계도 없고 딱 좋은. 애들도 제 손에서 이제는 거의 벗어났고. 그래서 오롯이 저를 위해서 애들한테 좀 짐이 되지 않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

할까. 한 번씩 스트레칭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우선 건강한 생활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서....(1-1-A. 2021.9.30.)

저는 중장년을 표현하면, 여유. 새로운 출발. 홀로서기.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이 관계에 대한 부재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홀로서기... 혼자 시간 보내기 이런 거에 대한...(1-1-C. 2021.9.30.)

- 또 중장년 시기를 100세 시대 전반기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로, 인생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로 알차고 의미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인식하기도 함

중장년... 떠오르는 건... 인생 후반기, 과도기, 가을... 그 이유가 중장년은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해서 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로... 가을 분위기의 뭔가. 느낌이 있는 시기... 그리고 인생 전반기를 다 살아내서 이제 남은 100세 시대에 인생 후반전을 지금 막 지금 달리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과도기를 한 이유는 노년을 준비하는 또 과도기. 그래서 좀 남은 인생을 보다 알차고 의미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1-1-D. 2021.9.30.)

중장년이라 하면 어차피 지금은 60세 이상부터 한 80세까지를 중장년으로 보지 않는가요.? 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옛날이면 60세면 이제 환갑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 됐고. 막 그랬어. 기다렸지만 이제는... 60세에서 79세가 중장년...80세 부터 90세가 되어야 노년이거든요.(1-2-E. 2021.9.30.)

중장년이라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니까 한 80 정도는 돼야 오늘... 저 이제 50대 초반인데... 어쨌든...어떤 전환점이라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로 진짜 처음 접해보는 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2-1-E. 2021.9.25.)

- 더불어 퇴직 이후 겪게 되는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노력,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한대 시기로서의 중장년 삶의 방식을 체득하며 사회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음

그냥 잠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직... 2년 정도...지났는데...첫 번째로는, 계속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게... 유구무언이라고 입은 있되 말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못된 거 있어도...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중장년 돼서... 생각나는 게 아픔. 아픔이거든요. 병...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제 많이 할 건데... 병원 가서... 병원비 내면서...할 것보다는, 운동으로... 중장

년은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니...(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리미트라고... 중장년이 무한대라고....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돈 벌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침 되면 가고 저녁 되면 술 한 잔 먹고 들어오고. 하여간 그런 식의... 생활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중장년은 리미트, 무한 시대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생각이 들었습니다.(1-2-C. 2021.9.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감정적 기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껏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지난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음

저는 아직까지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슬프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흰머리가 하나씩 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슬픔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난다는게... 서글프더라고... (2-2-C. 2021.10.1.)

그리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한 번 더 제가 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써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두니까 목표는 나... 다음 것들로...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2-2-A, 2021.9.30.)

내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이제까지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중장년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까지도.... 삶의 중점을 경제인 준비 면을 우선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고...있으며, 그 동안 많이 놀았으니까 75세까지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이루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A. 2021.9.25.)

❍ 중장년층 삶의 현안 과제인 가족 돌봄과 인식의 변화

- 중장년층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이 퇴직 후에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현실에 대한 감회와 부담감을 내려놓자고 하는 내적 요구가 등장함

우리의 중장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고생을 했고... 지금에서는 또 이제 부모를 걱정해야 되고. 자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한 것이 저는 되게 마음에...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퇴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물론 몸이 안 좋아서 퇴직했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부모를 걱정해서..나 지금도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 애들이 그냥... 이제 결혼을 안 한 아들 들이 둘이 있어... 정말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짊어져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앞으로의 생이 너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자...(1-2-A, 2021.9.30.)

- 더불어 자신이 부재할 시에 나타날 가족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선되고 있으며, 노후설계에 대한 미진함으로 인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준비와 사후에 나타날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고 있음. 한편 중장년이 되고서 이전에는 어렵게 느꼈던 부모 돌봄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나이 들어감을 경험하고 있음

저는 50이 넘기 시작하니까 첫째 우리 가족이 내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식들..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가족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향이 좀 많아졌습니다...(2-1-A. 2021.9.25.)

솔직히 노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 노후는 괜찮은데 집에 있는 아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이 앞서고 있고...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죽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1-A. 2021.9.25.)

저가 지금 진짜 중장년이 되어서 시댁에 들어갔거든요....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혼자 계시니까... 그전 같았으면 제가 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진짜 중장년이 되니까 부모님 모시 것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지고 되게 하루하루가 기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장년...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2-2-C. 2021.10.1.)

❍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한 자신감과 당면한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로서 중장년 시기 인식

- 중장년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 대한 자긍심을 갖추고 있음. 또한 새롭게 살아갈 앞날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만학도로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래 준비로 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중장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고 여김

저는... 중장년, 열심히 살아 온 사람답게 중장년이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봤습니다. .. 그래서 중장년이라 하면.. 제 인생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까?..... 내년

이면 60살이 되는데... 60살 이후가..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학) 복지학과를 다니면서... 나머지 인생을 정리 정돈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2-1-C. 2021.9.25.)

저는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빚 없지.. 뭐..그냥 다 하니까. 그리고 ... 여행도...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속상한 마음은 있겠지만... 뭐라도 잘 하다가 가셨다. 엄마하고...안 싸우고 그리 (가정을) 잘 지켰으니까.(2-2-B. 2021.10.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 저는 직업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발전을 시켜서...미래에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중장년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접어든 시기인데요.. 지금 중장년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딱 중심이 되는 나이라고 생각거든요. (2-1-B. 2021.9.25.)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타격을 겪으면서, 사회초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의 안정화가 나머지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전제하여, 배움의 결과를 일의 방향 재설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이제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 19사태가 났는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타격이 많은 업종도 많이 생겼고... 그걸 겪었기 때문에... 중년에는 무언가, 사회초년에는 많은 경험을 하고 중년에는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탄탄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의 안정화를 시킨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배워야 될 것 같고요.(2-1-B. 2021.9.25.)

경영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부 플러스 기업 경영인데요...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과 얼마나 전목시켜서 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기업인으로써 얼마나 사회의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서 사회의 주체로 될 수 있을까...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이제 장애인 취업 재활이라든가...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개인기업이 아닌 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B. 2021.9.25.)

- 또한 만학도로서 젊은 학생들에 맞춰 주고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계속 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주변인과의 관계 맺기와 성장에 도움이 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저도 나이 먹으면서... 만학도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위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은 그런 분위기나...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서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는 드론 국가 자격증을 따고, 또 교관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그런 욕심을 갖고 ...계속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2-1-D. 2021.9.25.)

우연치 않게... 미용실에 갔다가...이러한 학교(미래융합대)가 있는데 한 번 가보시지 않겠냐 여쭙길래... 이제 한 40대에 생각했던 거는 이런 복지시설 그런 거를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전문적인 분야를 많이 배워나가면 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런 배워가는 과정들이...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도 되고... 저는 아주 유익한 학교...생활을 하고... 또 저 자신이... 나이가 먹었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공부에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2-1-D. 2021.9.25.)

2) 교육 참여 경험과 결과의 활용

□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참여 경험과 활용

○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음. 지역 내 대학과 도 및 행정시,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학습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원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양성 과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가장 제가 좋았던 거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이웃들과의 삶을 나누는 어떤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글쓰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연들이 있는... 자기만의 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바램들이 채워진 수필 같은 거... (1-1-B. 2021.9.30.)

제주 신화학교 1, 2기 수업을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신당 얘기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몰랐어요. 그냥 전설... 이런 거였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론화하니까... 그 말이 뭐였고 제주 역사 뿌리를 알게 되어서 너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1-1-D. 2021.9.30.)

저는 2017년도부터 교육 받은 거를 해보니까... 먼저 도에서 하는... 제주대학교의 그린 대학이라고, 그리고 (제주)시에서 하는 시민경제대학,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원예복지사 양성 과정,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라피, 재봉, 난타, 요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예, 전통

매듭, 요리...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서예, 요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인생학교, 공동체 문화 활동가 그 외에도 많은 교육 받았고,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교육전문가 양성과정과 온실가스 절감 컨설턴트...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1-2-A, 2021.9.30.)

저도... 회사 그만두고 ...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문화원에서 하는 문화대학 수료... 지금도 제주문화원 회원입니다만... (1-2-B. 2021.9.30.)

서울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처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행복학습 매니저 과정이었고, 평생교육 분야를 접하게 돼서... 제가 (제주)시청에서 읍면동에 학습 매니저로 한 3년 동안... 했었고요 ..그러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땄고요.. 또 자연환경 해설사...이로만 만족하지 않고 체험학습 지도사를...전문가 과정까지 전부 공부하고...(1-1-D. 2021.9.30.)

-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 참여하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제가 또 이제 5060(인생학교) 8기...수료를 했는데요... 제일 교육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용서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 살아가면서 정말 참을 수 없이... 그냥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용서로서... 이제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2-C. 2021.9.30.)

제가 교육을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도대체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내가 새로운 인생... 작년에 그거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해서 하는데 우리 인생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다시 설계? 내 자신을 한번 설계를 해봐라. 내가 앞으로 무슨 뭐를.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생각해 봐라 하는데 도대체 나는. 나는 과연 뭐를 해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있는 중에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다. 내가 돈 벌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이제는 재미있어.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1-1-D. 2021.9.30.)

❍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의 활용과 의의

-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배움의 기회가 필요하며, 계속 학습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취업하거나 문단에 등단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칠 수 있음. 이는 달라진 중장년기의 삶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으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준비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해가는 과정임을 제시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해서...제가 문단에 들어섰어요... 지금도 글 쓰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전에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시 창작(교육)을 한 거. ... 또 다른 언론사에서 상 받은 걸로 편집해서...구연동화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무대에 서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여기예요.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1-1-E. 2021.9.30.)

제주문화대학... 수료를 하면 향토 문화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향토 문화는 간단하게 각 마을의 설촌 유래라든가..신당이라든가...여성들이 지금까지 설촌을 하면서 기여했던 부분도. 거기에 ...해녀 문화까지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책으로만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합니다만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탐나는 5060까지 오게 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저에게 아주 60대 이후에 아주 그런 일거리가 생겼다는 거... 상당히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고요....(1-2-B. 2021.9.30.)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원예복지사...를 해서... 오늘도 탐라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과 원예 프로그램으로 반려식물 키우기...그 다음에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교육전문가 교육...수료를 해서 기후학교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심각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가지고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 나눔 활동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1-2-A, 2021.9.30.)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의 일환인 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활동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리고 공동체 문화 활동 수업을 받고. 도서관 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이런 거에서 저 혼자 누가 박수를 안 쳐주지만 (너무 좋고) 그리고 애들이 또 별거 아닌데도. 자랑스러워해요. 별거 아닌 데도 요즘 자존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1-1-A. 2021.9.30.)

-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발견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함

문화예술(지원) 보조금 사업을 많이 했고요.... 올해... 씨앗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수제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나중에...우리가 반찬 나눔이라든지, 일자리... 내년. 내후년에 일자리까지 해보자. 창업을 해보자... 해서... 컨설팅 받고....(1-1-D. 2021.9.30.)

- 다양한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좋았으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유지, 그리고 같은 생각과 일의 공유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함

제가... 받은 교육은 아로마테라피 교육, 5060인생학교, 평생학습관의...D.I.Y. 가구 만들기, 프랑스 자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좋았던 게... 딱 하나가 있다. 거기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일 자체도 물론 좋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같이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1-1-A. 2021.9.30.)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 탐색을 하는 체험 학습 지도사로 사전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는 선생님으로 출강했고, 퍼실리테이터...자격증을...따서... 올해 까지 퍼실리데이터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교육받고...동아리 활동...연결이 (되고)...제가...2년 동안 대표로 일하였고... (1-1-D. 2021.9.30.)

□ 만학도로서 대학교육 참여 경험과 활용

○ 만학도로서 대학 입학 동기와 교육 참여 경험

- 늦깍이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로 무엇보다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는 데서 엿볼 수 있음

저도 우리 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웃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력서를 쓰게 돼요. 가는 데마다 이력서를 쓰는데 학벌이... 제가...애들 키우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학벌이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어디 가도 당당하고 그랬는데. 이력서 낼 때마다 이 학벌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낼 때마다 저도 생각할 때... 고졸한테 듣는 거보단 대학원 졸업한 사람한테 듣는 게 그 사람의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은 서류에서 보잖아.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정말 들어오게 된 거예요.(2-2-C. 2021.10.1.)

- 상급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한으로 남아 있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는 회상을 통해 대학 입학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음

학교에 오고 싶고 ...그냥 한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학교를 못 갔다는 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그러면서 그냥 밥을 안 먹었어요... 3일을 ...아버지가 삼일째 되는 날은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아서... 이게 말이 막 떨리더라고요....

밥 좀 먹자 저기 아버지가 조금만 젊어도 품팔아서 너 학교 보낸다. 근데 이렇게 늙었으니까 어떻게 너를 학교를 보내냐. 그 말이 지금도 그렇게 막 가슴이 울려와요....(2-2-E. 2021.10.1.)

- 한편 자원봉사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배움을 시작하기도 함

실버케어복지학과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전문적으로 배우면... 같은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복지관이나 사업체에 가서...나름대로. 그걸 4년 동안 배우면 3년 가까이 계속 투어를...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자격증은 없는 줄 알았어요... 졸업하면...된다는 얘기는 몰랐는데... 이제 취직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증도 있을 거고 와서 봉사할 수 있겠다...(2-2-B. 2021.10.1.)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가 아닌 4년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는 제도적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음

지역 사회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때그때 내 선택에 따라서 아니면 길어야 6개월 1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4년 동안 학교라는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좀 그 장점이 좀 발휘되고 있음.... (2-2-E. 2021.10.1.)

(가정사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이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다 묻혀버리더라고요...눈뜨면 할 게 있다는 것 때문에 즐겁죠.(2-2-E. 2021.10.1.)

다른 힘든 거는 개인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저 휴학하고 이렇게 해도 못 놓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에서 다. 느낌 공부라는 걸로 성장으로 이어지니까...하다가 성장하는 거예요...발전이 되잖아요. 매일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면... 저기 선생님은 저런 매력이 있구나하고 ...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쫓아가고... 여기(학교에) 와야...(2-2-A, 2021.9.30.)

- 성인학습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맞닿은 전공 수업에의 참여로,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업 참여 과정에서 협력하여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맛보면서 큰 만족감을 나타냄. 또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과과정인 에니어그램을 비롯한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교육적 성취로 나

아가고 있음

이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 중에 바로 내 생활이 수업에 있는 겁니다. 수업에서 여러분 또 수업 받았던 내용이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실버케어복지학과의 수업은 수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네..리더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이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2-1-A. 2021.9.25.)

근데 제가 복수전공하면서 ... 한 학기정도...(참여한 수업에서) 진짜 협력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학기가 힘들었지만... 그때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협력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학기가...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그게 솔직히 하기는 진짜 싫었어요 그때는... 하라 그러면... 진짜 다 밤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스스로 많이 성장이 됐더라고요.(2-2-A, 2021.9.30.)

이제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계기를.. 이제 대학에 몸 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외 비교과 과정인 애니어그램부터 시작해서... 심리 상담과... 연계해서 ...정보를 중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캐릭터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증도...이제 또 따게 됐고. 또 교양 과목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심리학의 이해라든가 교양 과목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2-2-D. 2021.10.1.)

❍ 만학도의 교육 경험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격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하였음. 근래 디지털 시대의 등장으로 인한 노년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펼치고 있음

학교에서 시작한 에니어그램을 일단 수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학교에서...제공해 주신 이 교과 과정이 국제심리상담협회에서 제공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심리 상담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더라고요... 심리 상담... 그거를 이제 자격증까지 왔어요...그래서 저는 부캐가... 타로 상담사에요... 지인을 통해서 입소문에 '장애인 표준 활동 지원사'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2-2-D. 2021.10.1.)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봉사단체를 2개를 만들어서 예 직접 창립을 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지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중점적으로 필요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봐요... 국내에서 아마 제주도만큼 그 단체가 잘 돼 있는... 읍면동별로 거의 다 장애인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

에 또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1-A. 2021.9.25.)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경로당에가서 수지침 치료도 하고. 그 요즘에는 또 시대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디지털 스마트폰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데 저는 다행히도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좀 뿌듯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외부에서 제가... 자격증도 받고... 그리고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2-2-C. 2021.10.1.)

업무 교육으로 장애인 성교육 센터라든가 진흥원에서 하는 중증 장애인 강사 교육도 이수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했는데... 외부 지역 기관에서 장애인 성교육 ... 직원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학교에 지역 학교에 성교육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몇몇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2-1-B. 2021.9.25.)

나.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1)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 중장년 당사자의 희망교육 프로그램

○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기회 요구

-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자신을 위한 치유와 힐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및 웰다잉(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노후 설계 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음

한번 좀 여행하고 싶은.... 또 지금 저희가 그동안...가족을 위해서 좀 희생적인 삶을 살고... 사실 부모와 자식 중간에... 낀 세대거든요. 저희만의... 필요한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치유 쪽으로... 치유의 목적을 가진 체육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식물... 반려식물을 좀 키우면서... 물 주고 키우는 과정에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좀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1-1-D. 2021.9.30.)

우선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걷는다거나 어떻게 보며는 노인회에서 보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두었는데 .. 과거에 웰다잉이라는

교육이 그룹이 굉장히 성황이었는데 그러한 교육도 아주 바람직하다...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1 김상돈)

저는... 중장년, 지금 시기에... 좀 물질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부터 좀 추가하고 싶은데... 그동안 정리 수납 같은 교육은 많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하려니까 또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 나의 부캐를 좀 찾고싶습니다. 이제까지...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나의 이름을 한번 찾아서. (중장년 1 전연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할까. 평생 이제 노년들 (앞으로) 20~30년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걸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사진이었고요. 사진하고 마음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치유 그래서 사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싶었고요. (미래 2 강현아) (2-2-A, 2021.9.30.)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드는 법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생활 건강법 또한 건강한 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프로그램. 아까 그 우리 인생 학교에... 저도 이번 9기 들어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중장년1 전연의)

- 새롭게 시작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 역량 강화가 필요함으로 토로하였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학교에서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가 20~30년 (정도)교육 기간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중등학교 졸업하고...거의 다 (학교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초 역량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관계에서도 진짜 독단적인 다 자기만의 그... 그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인해... 어른들이 인간관계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관계에서도 한 번씩은... 인문학 쪽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미래 2 강현아) (2-2-A, 2021.9.30.)

지역의 00센터에서...중장년이 항상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해서 이렇게 토론을... 관계가 잘 안되니까... 배워보고자 하는데, 서로 이렇게...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미래2 강현아)

-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사회에 나와서 저처럼 나이가 우리 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장년이잖아요.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정년 퇴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학교에서 좀 개설했으면 하는 바램이 들더라고요.(2-2-C. 2021.10.1.)

저는... 오후에 항상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교육... 출강 갈 경우에 미리 장애인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교육받았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하지만.... 종류가 많잖아요. 지적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저는 뇌병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1-1-E. 2021.9.3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서회를 하고는 있는데...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읽고 나서 의미 없는 책도 그렇고 해서 이 책 읽기 안내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모임은....많은데. 책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책들을 읽으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책 읽기 안내가 되는 어떤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1-1-E. 2021.9.30.)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의 적용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높은 학습 효과를 경험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

현장 방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학점화시켜서 일주일에 한 2시간... 현장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현장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학점이 주어지는 과목으로 하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2-1-A. 2021.9.25.)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고 싶다면. 장애인 복지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자기들끼리 요일을 하루 정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내가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주제 발표 하나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까지 까먹은 거 하나도 없어.. 다 생각납니다. 이제까지...내가 한 거는... 그게 공부더라고요 그게. 스터디 그룹이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1-A. 2021.9.25.)

-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 업무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 지속적인 배움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면 사회복지 실천론, 방법론, 가족 복지론 등 모든 복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돼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배운 것을) 실제 기업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적기업을 운영할 때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함에 있어

서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2-1-B. 2021.9.25.)

이제 디지털 올레길 해 보니까 참 현재에 필요한 교육이고요. 또 ... 퍼실리데이터... 자격증은 받았지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근데 제가 실은... 그때도 어려워도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싶고요.(1-1-E. 2021.9.30.)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미술 치료 같은 거. 미술 심리치료 같은 부분들 또 아니면 언어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2-1-D. 2021.9.25.)

제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지난번에 글쓰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글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교육이 거의 정지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그런 교육이 좀...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좀 있습니다... (1-1-E. 2021.9.30.)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건강과... 우리 중장년이 기반이 튼튼하잖아요. 나에게 베풀고 봉사를... 이게 지금 다 자기가 배워서 나눔이잖아요... 뭐...노인한테 가서 한다든가 또 애들한테 가서 한다는 거... 다 모든 게 즐거움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서부터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철학이라는 거... 힐링... 프로그램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본 바탕이 되고. 어떤 스스로의 기쁨과 자질을 갖춰야만... 남에게도 배푸는 거지.(1-1-B. 2021.9.30.)

만약에 기능적으로 그냥 뒤에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배운 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수를 받고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우리 중장년들이 갖춰야될... 그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루를 자꾸 잊어버리지. 그게 지체되고.... 그러면 새로운 개발... 새로운 재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1-1-B. 2021.9.30.)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온라인·온프라인의 경계가 희석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음. 또한 우리 앞에 생활편의 도구로 급격히 등장하여 일반화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와 영상으로 집약되면서 정보 접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저도 막 노력을 해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의 컴퓨터에 대한 그런 부족함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얼마 전에. 저희도 여기 학교에 가서... 한 일주일을 배웠든... 몇 주를 하루에 한 1시간씩인가 배워왔는데. 그거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2-1-D. 2021.9.25.)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 너무 자동 기계화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어디 나가기가 겁나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다 하실 줄 알아요? 그거 저희 몰라요. 그러면 뒤에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누르는데 너무 눈치 보이고 해서 사실 주문하려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그런 자동화된 기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도 하시면... 어디 가면 좀 당당하게 그걸 도전을 해 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기술보다 지금 어디 가서 돈 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1-1-E. 2021.9.30.)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찍어가지고 돈 받는 수익이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기본적으로...개설을 따로 해서. 플랫폼이죠. 지금 사회... 블로그 인스타 그런 플랫폼은 자기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2-2-A, 2021.9.30.)

- 과거 컴퓨터학원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한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컴퓨터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OA중심의 컴퓨터 활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기초를 익히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요구됨

저는 과거에 컴퓨터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프로그램 위주로만 해서 강의를 하니까...OA도...한글도 없었던 시절에... 나이가 들어서 한글이 나와서 아래한글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다음은 엣셀, 파워포인트가 나왔는데... 저 엑셀 못합니다. 거기도 지금 저서툴러요...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교양 과목으로라도 해서 컴퓨터 활용... 우리가 수강 신청하고... 또 OCU로 수업 받고.... 또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 해서.. 교양으로 과목으로 해서 각 과목을 개설해 주시면...(2-1-A. 2021.9.25.)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컴퓨터 기초적이 아닌가....그나마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늦지만... 하기는 하거든요... 저한테까지 질문해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도... 자영업이라든지 컴퓨터를 전혀 안 하는 이들은 워

드 자체를 글자간격 넓히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의 수준도 있거든요...(2-2-B. 2021.10.1.)

저는 나중에 개인레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애들하고는 하는데 시험 보는 애들하고... 이 저는 개인 레슨를... 기초가 좀 필요하다.(2-2-E. 2021.10.1.)

2) 중장년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

□ 학습 환경의 제약 요인

○ 성인학습자 학습 여건에 따른 참여 제약 요인

- 배우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생업으로 인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참여의 어려움, 거주지와 먼 거리의 교육 장소, 산남(서귀포시 지역)과 산북(제주시 지역) 지역 간의 교육참여 기회의 격차, 학교 입학에 대한 가족의 반대 등이 학습 지속의 제약 요인을 제시되었음

저도 인생학교를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전부.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지역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 있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니까 교육 받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분들도 이제 오전에는 가서 어떤 일을 하면 오후에 와서 받을 수 이렇게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1-2-D. 2021.9.30.)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저는 농사를 조금 많이 짓습니다. 농사를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밖에 가서 인부를 빌려서 해도 5시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부를 태워다 주고 씻고 어찌저찌 하다 보면 시간이 한 6시나 6시 반 그럼. 밥 먹고 다니다보면 지각할 갈 때가 많아요. 특히 또 귤 수확할 때 되면... 또 기말고사를 봐요. 겨울에... 공부 정말 하나도 못하고 기말고사 봅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따서 저녁에 저장도 해야 되는데... 인부만 시켜놓고 갈 때가 더 많아...(2-1-A. 2021.9.25.)

제가... 에니어그램이라든가 무슨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들으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못 맞추겠더라고요.....그래서 많이 놓친 것들도 많았는데... (2-2-C. 2021.10.1.)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거리적인 문제가 있죠... 학교 한 번 왔다 가려면 오는 데 거의 1시간 반, 가는데 한 시간. 비나 오거나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이 어려워요...그건 뭐냐. 하면 일반교육도 마찬가지고... 평생 학습이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겁니다... 산남에는 뭐 교육을 받으려 해도 받을게 없어요.... 그래도 산북에 있는... 제주에 있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받아야 된다는 어려운 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여기 교육 수요가 넘쳐 납니다. 산남에... 왜냐하면 이 교육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평생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2-1-A. 2021.9.25.)

원해서 학교에 왔지만 남편이랑 가족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너가 왜? 이런 표현이 많았어요. 가족들이....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자라! 이런 표현들이...(2-1-C. 2021.9.25.)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엄마 지금 대학을 다녀서 뭐에 쓰실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들은 대학원까지 다 다녔는데... 부모 덕에 그렇게 그냥 지금 다니고 나니까 아쉬움이. 한이 없으니까 그랬나.(2-2-E. 2021.10.1.)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의 온라인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강신청부터 비대면 수업의 강화 등 변화 상황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학기 초에 그 (수강신청)과목 담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젊은 아이들은 빨리 담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느리다 보니까 그 놓쳐가지고...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좀 있어...(2-1-D. 2021.9.25.)

수강 신청도... pc방 가서들 한다던데... 속도 빠르게...(속도전...) 하여튼 전 그런 것까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안 했고. 아니 또 뭡니까... 멘토... 멘토링... 우리 다른 학우들은 멘토가 있어... 전화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만은 나는 누군지 오지도 안하고... (2-1-E. 2021.9.25.)

계속 비대면 수업이 싫어요. 비대면 하면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써서 그냥 가져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2-2-E. 2021.10.1.)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집에서. 많이 쓴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줘요. 시간 내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많이 쓴 사람은 2 페이지 이상 없죠. 나는 최악이라는 독수리타법이 끝나고, 한 번 틀리면 지우라고 그러면 지우는 게 더 오래 걸리거든. 이거 (글씨를) 쓰면 되는데....(2-2-B. 2021.10.1.)

- 성인학습자(만학도)에 대한 교수자(강사)의 몰이해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식의 한계로 인해 학습 참여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였음.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강사)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요구됨

(교양 과목을 참여했는데) 젊은 교수님이 나와 가지고,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이 사

람이 제주대학교 학생이 맞나. 교수님이 항상 말씀 하세요... 아직 성인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과정(참여 학생)이 맞냐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 거죠.(2-2-B. 2021.10.1.)

제가 1학년 때 모 과목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때 돋보기도 가져왔는데... 딱 시험지 받아 드니까... 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약봉지 글자 있죠....내가 볼 때 한 7 정도 된 사이즈로 시험 문제가 50 문제를 되는데 이거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된 거예요....이름만 쓰고 주관식은 아예 쓸 수도 없고 개관식만 그냥 대충 1, 3 뭐 이렇게 적어서 하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다시 한 번만 쓰고 나와버렸는데...한 5분 만에 시험을 보고 나오니까... 왜 그러시냐하니까 ...글이 보여야 저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조교 앞에 그냥 짜증을 낸 적이 있는데. (2-1-A. 2021.9.25.)

최소 우리 교양 과목을 볼 때는 교수님들이 젊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이 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그게 보거든요. 최소 우리 교과서 글자 크기 10이나 11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12 정도는 그냥 나 단톡 올리고... 나 이러면 학교 못 다닌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양과목인데...(2-1-A. 2021.9.25.)

□ 교육 운영 방식의 한계와 교육비 등 환경 조건의 제약 요인

❍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로 인한 교육 참여의 제한

- 퇴직 이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음에 아쉬움을 나타냈음.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지속 활동을 위한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지원체계의 마련을 요청하기도 함

저는 지금 이제 오름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라든가 한 10개 종류 신청해가지고... 활동하는 날짜를 피해가면서 다른 날짜에 과목을...두 개를 신청을 했더니만은. 하나밖에 안 된 다고 뭐라고 하는 거라니... 날짜가 다른 거 내가 하겠다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딱 하나만 하게끔 돼 있다 하는.... 그런데 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많이 궁금해요...(1-2-C. 2021.9.30.)

물론... 꼭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동아리 하나의 어떤 1기에서부터 9기까지 만들어 놓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할 수 있어도 거기 보조 있으면 더 좋긴 좋죠. (1-2-E. 2021.9.30.)

사실... 자격증(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다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 떼우는 사람도 있고.... 또 과정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어떤 동호회라든가 어떤 공동체적인... 걸 이제 했으면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나은 토론을 한다든가 뭐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져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도 좀 좋은 것 같아요.(1-2-B. 2021.9.30.)

- 교육기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대상 구분없는 참여자 모집으로 인해 생겨나는 기존 교육생 중심의 문화에 어려움과 자격과정 신청을 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또 어렵게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시작할 때와는 달리 교육 수료 시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무책임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함

주민센터나 (공공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연령대가... 성인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수강생들이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신입 교육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와서 이제 수업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계속 받고. 신입 교육생들은 거의 없어요. (1-2-A, 2021.9.30.)

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문화탐방해설사 과정을 해서...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보통 평생교육이... 어디나... 교육 기관들이 하는 것들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더라고요. 유료는 보통 자격증 반이고....무료는 약간... 이제... 제 나이 때는... 사실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25만 원이다... 교과목에 따라 다르기지만... 물론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약간 생활부담이... 그런 좀... 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노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1-2-B. 2021.9.30.)

그런데 또 신청해놓고 거의 가보면... 시작할 때 20명이 다 해서 대기 6명까지 있었는데... 결국 수료할 때 보면 한 6명,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수료한 분들한테 그거를 상품권 있잖아요. 00 상품권이나 이렇게 줄 수 있도록 2만 원이든 1만 원을 받게 80% 수료를 한 경우에 그거를 그만큼 차액을 다 돌려주면 반환해 주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바램입니다.(1-1-D. 2021.9.30.)

-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끼리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모임과 자원활동을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음. 더불어 제공되는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의미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어려움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교육을 받고 나서 뜻이 같은 분들끼리 일단 모이려면 그 센터 안에서라도 이렇게 무슨 카페처럼. 이런 차 마시는 곳이 있어야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1-1-E. 2021.9.30.)

제가 쉼터처럼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배우면 봉사하시겠다고 하고... 어린아이도 가르쳐 보시겠다. 장애인분들도 도와주시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지금은 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이도 키우느라고... 그런 저한테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같이 보내고 싶은데... 내 집 같은 분위기가 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1-1-A. 2021.9.30.)

3)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통한 성장

❍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장 경험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펼치면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나눔을 펼치면서 보람을 만끽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수료 후 사회적 일자리로 이어졌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에 참여한 결과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저는... 제주 공동체 문화 육성가를 하면서 이제 어린이들과 이제 마주보면서 제주도에 관한 일괄적인 거를 한 부분 한 부분... 전달하는 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또 예전과 달라서 제주도에 이제 타지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와서 이제 주거하니까 그래서 참 그런 데서 제주도에 관한 이제 전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무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는 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1-1-E. 2021.9.30.)

저는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익했던 경험은요. 저 처음으로 돈 벌었다는 거. (웃음) 디지털 역량강화 수업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이 연결이 마침 됐었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디지털 수업 4개월이지만 계약직...(1-1-A. 2021.9.30.)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못하시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가 사업...(중략) 제가 운 좋게 제가 4개월 처음으로 수입을 얻고. 그리고 경로당 처음에 갔을 때는요. 불편했어요. 저도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할까.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버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가니까 이제 친해져가지고 막 이제 집안 일도 해주시고. 이런 말벗도 괜찮은 거 같아요.(1-1-A. 2021.9.30.)

- 전문교육과정 참여 후 후속과정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음

저는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과 체험학습 지도사과정을 하고 나서 저희 학생 양성 과정 한 분들끼리 동아리를 결성해서 저희가 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그런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해이해지면서... 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기를 구사하는...그런 방법... 어떻게 동아리를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항상. 예...(1-1-D. 2021.9.30.)

-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을 유익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

우리 유서 쓰는 과정이 있었었어요.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정말 울음이 날 정도로... 제가 제 유언장을 쓰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았고 ...(1-2-E. 2021.9.30.)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로당 다니면서 몇 시간씩 저희가 했던 그런 게 유익했고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과 한 번씩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아요. 정말 시간이 딱 이렇게 얽매여 있지만 그런 것이 좋았고 ....(1-1-A. 2021.9.30.)

우리도 가게 되면 경로당 눈높이를 저희들 스스로 맞추어 가면... 먼저 선수를 쳐서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받아들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질과 내면의 강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은 걔네들 수준에...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고.... 저희 책임이라고 봐요. 저희가 이 교육원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봉사와 희생이 깔려 있는 그런 생각에서 해야 되겠고...(1-1-B. 2021.9.30.)

이제 활동할 때 유치원에 들어가면 율동이라든지 또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 전달 끝난 후 회라든지 아니면 전에. 네 이제 어린이들 정신 집중을 시키려면. 이제 율동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제 배운 거 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뒤져서 진짜 밤새면서 막 공부를 했거든요 유치원에 수업 들어가려면... 도서관에 수업 들어가려면. 그래서 많이 성장은 했겠죠...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석 달 되니까 찾는 방법도 자꾸 자꾸 이제 숙달 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처음에만 그랬습니다. 어려웠던 점이라는 게...(1-1-E. 2021.9.30.)

○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과 학습 동기 강화를 통한 성장 경험

- 교육 담당 실무자의 사전 안내와 구체적인 학습 지원을 성실히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지와 학습 지원, 학습방법의 적용이 성인학습자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옆에서 관심과 지지를 줘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가장 격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지금도 강의를 받다 보면 항상 담당자가 항상 수업 전에 몇시에 수업있습니다. 참석바랍니다. 항상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배려를 해주죠.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이 지금 막 코로나 시기에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우리 비대면 000죠. 그 수업 받을 때 불편함 없도록 정말 그 시간 내내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서 정말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결석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어려움 없이 하여튼 진행되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1-1-E. 2021.9.30.)

- 늦깍이 대학생으로 시작한 만학도로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4년의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 강한 의지를 실천 행동으로 드러냈음. 이를 계기로 부정적이었던 주변의 인식을 바꾸어 냈고, 학교 생활을 통한 성장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한 성취감을 나타냄

> 제가 학교 다니는 걸 주변에 다 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학교를... 우리 식구만 알면 중간에 댕기다가 그만둬질까 봐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놈이라고 그럽니다. (2-1-A. 2021.9.25.)

> 우리 어머니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제 학교 다녕 무싱거 할껀디... 취직할 것도 아닌디... 평생 학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리 나이에는 지금 5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은 저는. 지금 벌써 다 친구들도 정년 퇴직하고, 정년이 지난 나이이기 때문에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학교다니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는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2-1-A. 2021.9.25.)

>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거 다니다가 말겠지 하다가, 이제 3학년, 내년이면 4학년이 끝난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어느새 반 이상을 꺾고 극복을 하니까...일주일에 두세 번은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나오니까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A. 2021.9.25.)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의 과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중장년세대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 삶의 형태와 노년기 준비에 대

해 스스로 자신이 살아 온 삶을 조망하고 앞으로 닥칠 삶의 변화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저는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하면... “가서 문의하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라든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아 그거!” 라고 딱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그런 게 있으면... 나 거기 가서 물어봐야겠네. 거기 가서 안내받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1-1-E. 2021.9.30.)

- 중장년세대가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아쉬운 사항으로 공유 공간 및 필요 시설의 제공으로 나타남. 특히 공간을 대여하고자 하여도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주말에는 문을 닫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음. 이와 함께 동아리 연구 주제에 따른 공유주방과 연습실과 같은 공간 제공은 활동의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저희가 어떤 동아리를 만들거나 비영리단체 이렇게 운영하면서 뭘 느끼냐면 장소가 없어요. 공간 대여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이름 말이나 이런 데 전부 주말 쉬거든. 주말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말이 제일 그래도 여유 있고 시간적인 만남을 소통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주말에도 좀... 평생교육기관에... 공유 주방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1-1-E. 2021.9.30.)

동쪽 지역 서쪽 지역 서귀포 지역 제주시 지역 어머니들이 만든 반찬이 다 틀려요. 똑같은 가진 입이라고 해도 방법이 약간 좀 틀리고 그런 거를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동아리를 지금 제주 밥상연구회라고 해서 저희가 레시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사실 좀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구는 하는데. 만들어 볼 주방이 없어서... 이런 동아리 음식 그런 거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1-1-E. 2021.9.30.)

이제 저희들은 하여튼 연습실이죠. 연습실... 우리 평생학습 쪽에서 성장하는 그런 회원들만이 놀 수 있는 공간...그런 연습실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공연이 또 필요하고... 저도 이제 그런 음악 봉사회를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도 이제 가고 그랬는데... 진짜 소중하게... 더 즐겁게... 막 박수치고...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선생님이 놀래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오시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참 이런 게 바로 우리 사회(참여) 활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년 2 강원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속 참여 기제 마련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참여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위한 기회 제공을 요청함. 특히 인생학교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 마련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이제 인생 학교가 이번에 9기잖아요....수료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끈끈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1기부터 8기에 대해서 ... 여기 와서...가끔 얼굴 보고 그런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쩌면 무슨 동아리... 아니면 봉사단체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재능도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문화활동가처럼... 계속 이어져 나가지만... 인생학교만 수료한 다음에는...이어주는 끈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 (1-2-A, 2021.9.30.) 강순금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참여 범위가 50~64세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제고를 요청함. 특히 사업 참여 제한 연령인 64세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사회적으로 젊은 세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기함. 또한 노년세대를 위한 경로당은 대부분 80세 전후 세대의 이용으로 64세 이후 세대들이 참여가 여의치 않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백현상의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지금 인생학교...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잊었던 내 꿈이 뭐였지....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됐고 다시 한 번 또 도전할 수 (있는)... '해보겠다'하는 희망과 용기가 좀 생겨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층 생애 재설계 사업 대상에 50세에서 64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게...여기에서만큼 나이로 딱 잘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80이 넘어야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64세. 사실 너무 젊거든요....(1-1-E. 2021.9.30.)

예... 그 나이 관해서요. 나이는 이제 저가 올해 졸업반이지만... 제가 턱걸이에 걸려서. 졸업반이지만... 이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저만이 아니고요. (1-1-E. 2021.9.30.)

- 한편 50세부터 64세 간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15년간의 폭은 같은 세대로 묶기에는 넓은 범위이므로 사업별 세분화된 대상 모집을 통해 공통된 요구를 반영하는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다른 분들하고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했거든.. 50세에서 64세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에요... 사실 50세가 말이 좋아서 중장년층이라고 하지...50에서 64세로 묶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나이

가 57세예요... 50살부터 할머니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묶어서 해야 될 교육이 있는 거고,.. 교육생 모집 시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세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은 이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이 제한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더 필요하다. (1-1-A. 2021.9.30.)

❍ 중장년 세대의 사회 참여 및 실천 활동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제공 필요

-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의 지속은 실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제공으로 보장할 수 있음. 이는 학습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며,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역량 개발의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생애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어디 가서... 애들(에게)...책도 읽어주고, 가서 강의를 하고... 그거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공무원 생활 하다가... 뭐 다른 사회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했는데... 수업을 받으면서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할 때 해보니까 좋을 것 같다. 내가 이거 하면 또 해서 애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1-2-A, 2021.9.30.)

유치원 아니더라도 우리가...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느 공간에 가서... 노인정이라든가...우리를 필요한 공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우리가...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참 많았습니다. (1-1-E. 2021.9.30.)

요즘은 진짜 고령화 사회에 그것 때문에 노인 돌봄이 진짜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돌봄케어...이런 어르신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1-2-A, 2021.9.30.)

- 중장년 세대가 사회적으로 청년회와 노인회 사이에 위치하여,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장년회 조직・운영을 희망하며,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중장년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중장년은 웬만한 사회에서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제주도 청년회가 내부 규정으로 50세까지 돼 있습니다. 50세까지... 노인회가 65세부터입니다... 그러면 50부터 65세까지 15년이라는... 이 계획이

있어요... 사회 어떤 자생단체에 소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2-1-A. 2021.9.25.)

우리 동네에서 우리 장년회를 하나 만들까... 50대에서 끝나면 노인회 가입하기전에 장년회를 만들면... 장년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 어떤 활동면에서나 지위에서나... 이 장년회가 필요하겠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조만간에 발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중장년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리더할 수 있는 구심점을 지역에 만들 필요가 있다... (2-1-A. 2021.9.25.)

저처럼... 솔직히 말해서 반장부터 동네 단체장까지 안 한 것 없이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우리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2-1-A. 2021.9.25.)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

- 중장년세대의 기존 활동공간인 특정 시설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의 제공도 요구함

우리 동네 아이돌봄 케어 그것도 있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부모가 다 일하러 나가버리면 나중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애들을... 오후에...(돌봄)해주는. 저는 애들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 같은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봉사활동으로라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1-2-A, 2021.9.30.)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개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세 명만 있거든요. 근데 개하고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은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사...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 반려동물 가구 수가 4만 1천여 가구래요. 그래서 제주의 15.6%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다... 제가 하는 말은 반려동물 돌봄... 하는 것도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1-2-A, 2021.9.30.)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르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먼저... 케어도 같이 해 주고 동물까지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1-2-A, 2021.9.30.)

-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 준비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참여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과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선호하여, 인생설계교육 운영 과정에의 반영을 희망함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 활동 체험 활동... 그래서 우리 탐나는 5060(인생학교)도 한 3개월 과정에서 하루 정도는 야외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두세 번을 더 늘려서 야외에서 가서 학습을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또 유대도 더 좋아요. 금방 친해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야외 활동에서 얻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거...이 나이 들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1-2-B. 2021.9.30.)

- 중장년세대가 부모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이거는 이 정도다...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혈압이라면... 왜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좀 더 깊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1-2-D. 2021.9.30.)

-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 참여의 범위를 기존 50~65세에서 69세까지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장년 대상에게는 일과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노년 세대를 위해서는 건강, 여가와 관련된 교육 및 디지털화된 환경의 실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함

아무튼 5060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70세 넘어도 활동들을 하지만... 굳이 조례도... 5060이기 때문에... 65세로 뚝 자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50세에서 69세 까지로 해야 되겠다... 중장년과 노인 교육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는 중장년인 경우에는 이제 일과 활동 영역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실생활... 금융이나 핸드폰 사기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그런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노인들한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1-2-A. 2021.9.30.)

-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로 지역의 행정,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 수료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봉사 활동 지원, 교육 참여자 중심의 단체 결성 등 종합 플랫폼 기능의 수행을 요구함

우리 진흥원은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우리 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나 기업체, 단체들하고... 수료한 사람들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 봉사도 할 수 있고, 사회 공헌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1-2-A, 2021.9.30.)

탐나는 5060(인생학교) 이런 교육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하면 좋죠. 이제 1차 교육을 했으면...기본적으로... 2차는 ...교육생을 바탕으로 한 어떤 봉사단체라든가...활동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5060인생학교을 수료한 것은 기본 과정이라고 그러면... 실행하는 거는 2차 과정이다.(1-2-B. 2021.9.30.)

그래서 이제 중장년 우리 사업 분야의 주요 사업을 보면 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그다음에 5060 재능나눔 지원단 그다음에 공동체 씨앗동아리 활성화 그다음에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서 네 꼭지가 있어요. 이제...공동체(문화활동가)는...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재능 나눔(활동)인 경우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구심점이 없어요... 우리 재능 나눔 지원단이라는 이 봉사 단체를 어떤 거를 만들고...우리가 봉사단을 만들고 지원단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고 여기저기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고...(1-2-A, 2021.9.30.)

그다음에 공동체 씨앗 동아리 활성화.... 그런데 저는... 우리 5060 인생학교를 수료하거나 공동체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어떤 그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줘... 왜냐하면 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그런데 나는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만든 동아리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1-2-A, 2021.9.30.)

다.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 및 과제

1) 제주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차이로 인한 한계 상황 발생

○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서의 ‘중장년’ 연령대의 적용 범위와 특성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의 구직자 이용 대상은 만 40세 이상으로 중장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중장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또한 40대와 50대, 60대의 수요와 역량이 다름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따름. 취업 교육과정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추진되면서 디지털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로 하고 있음

저희는 중장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 자체가 만 40세 이상입니다. 만 40세 이상되는 분도 중장년이라고 하면...청년 아닌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중장년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만 40세 이상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40대와 50대와 60대가 수요가 좀 달라요... 이제 연간. 2,500명이상 3,000명 정도 교육을 좀 받고 있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1천 여명 정도 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장년들이 대면 교육을 계속 받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힘들

어하는 거죠...(3-E. 2021.10.7.)

-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전문분야 퇴직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요구가 없는 반면, 생계가 어려운 대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이면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 전문 대기업에 있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요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 활동을 재취업하는 데 있어서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소일거리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회 참여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시지만, 정말 내가 일을 안 하면 서로 먹고 힘들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격차가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3-E. 2021.10.7.)

❍ 지역 중장년 일자리 여건의 특성과 과제

- 일자리가 부족한 제주지역의 여건으로 중장년 일자리 연계의 한계 상황 발생

(생계를 위한 일자리에 있어서는) 제주의 일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일자리 (연계를) 많이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수요가 있어야 관리자를... 저희가 연결(관리)을 하는 거 잖요. 중장년 일자리...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장하는 기업에서... 수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3-E. 2021.10.7.)

- 중장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할 수 기회가 부족하여 높은 경쟁률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중장년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의 확충이 요구됨

이제 ...일 경험이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JDC와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을 때는 10대1, 적을 때는 5대1...이런 상황이어서... 퇴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로 계셨던 50, 60대 중장년이었어도....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일경험 차원에서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으니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하든,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든,.. 그런 중장년... 신중년들의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업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E. 2021.10.7.)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현황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변화와 특성

-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중장년인 만 60세 이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도 단순 활동 지원 일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재능나눔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음

> 저희(시니어클럽)는 노인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3천 명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제는 단순하게 활동 시간을 채우고 한달에 27만 원을 주는 그런 일자리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있고. 왜냐하면...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만 60세 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의식이... 굉장히 고도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냥 단순 일자리... 지역사회에서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모태가 되고 있어서...(3-F. 2021.10.7.)

- 2019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월 27만원의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던 일자리들이 70만원이 넘는 보수에 전문성을 갖춰 활동하는 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확대되어가고 있음. 이를 위해 특정한 영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발 후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함

> 내년에는 지금 한 2배 정도로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일자리에 적합할 수 있는, 또는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교육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다문화 가정의 행복학습지도사 양성 과정을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는 공무원 연금공단과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만 아주 선별적으로만... 모집을 해서 집중 교육을... 저희가 지금 20명의 어르신들이 59명의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과 학부모를...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지금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부모가 한국말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이라든가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해서 매칭될 예정이라서...(3-F. 2021.10.7.)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안 되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요구되었음. 또한 이용자들이 지역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정보의 미비로 제공을 못하였음. 향후 지역의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종합 정보 제

공이 요구됨

온라인 교육이 전혀 안돼요.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고 싶어도 온라인 교육자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는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회서비스 사업 취업에 대한 전망이... 정원이 300명 대기자가 생길정도로 ... 어림잡아 확률적으로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교육 기관을 찾아서 교육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 리스트를 드리지는 못하더라고...(3-F. 2021.10.7.)

- 시니어클럽에서 2022년부터 노인 전문취업 과정 교육이 종료되어 지역의 관련 기관의 교육과 연계한 전문교육 운영이 필요해 졌으며, 관련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발생함

(5년 동안 추진해왔던) 60플러스 교육센터가 이제 내년부터는 막을 내리게 되니까, 저희 시니어클럽에 노인 60세 이상에 대한 전문 취업 과정 교육이, 직업 소양교육이 전혀 없어지게 되어... 이제 외부 자원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F. 2021.10.7.)

- 노인일자리에서의 사회서비스 사업 급증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해짐. 그러므로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바, 업무 담당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지금 사회서비스에 11개 사업단에 4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한 7-800명의 어르신들을 배출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일자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어떻게 어디 가서 전문적인 일을 해야한다는 고민에 빠져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일자리를 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성장을 하는데, 참여자분들은 성장해 가는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3천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일인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직원을 위한 교육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3-F. 2021.10.7.)

2) 제주지역 취·창업 활동지원 영역의 중장년 지원 현황 및 과제

□ 제주지역 중장년 창업 지원 현황과 현안 과제

❍ 제주지역 창업 활동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한 중장년 창업 수요와 준비 여건

- 사회적 경제의 여러 유형들이 관련 부처를 통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 사업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장년 당사자의 수요도 많지 않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이런 유형의 기업들을 각자 여러 부처에서 인증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경제라고... 각 자 유형마다... 약간 특성도 틀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업의 위상이 다르게 생겼고... 사실 중장년이라든가 시니어를 대상으로써 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나는 기업들 대부분에 중장년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청년 사업들이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 창업. 청년 소셜 네트워크 등 인크루트를 하고...(3-A. 2021.10.7.)

(한편) 마을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중장년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지역사회에 다시 한 번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일련의 목적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설계가 굉장히 없다. 비어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장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취업이든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는 지역 안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창업하시려는 실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3-A. 2021.10.7.)

- 취·창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제 중장년들의 창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충분치 않아 실행이 어려운 환경임

우리 지역, 우리 전체 일자리를 그들(중장년)로 봤을 때 취업 또는 창업이고, 국가가 창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분들이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 그 분들이 어디에 어떤 과정에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결국에는 창업하고...제주도 지역 안에서 그 역할을...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나 시니어클럽 정도 외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찾아가는 인큐베이팅 과정이 아예 없다... 그리고 중장년 분들이 협동조합을 창업하시거나 마을 분들이 같이 창업하시고 이렇게 법인을 만드시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비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나마...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준비라든가...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3-A. 2021.10.7.)

-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뿐만 아니라 기존 창업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분석과 실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충분이 훈련된 이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창업이라는 건 사실. 일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교육 훈련만으로 되지 않은 일들인 거예

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도 당연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창업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재원을 투자하거나 리스크를... 하기 전 단계에 사실 현장분석이나 현장실습을 기존의 창업하였던 기업가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망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그것들이 충분히 연습되고 현장에서 훈련된 이후에 사실 사업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3-A. 2021.10.7.)

-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연계하는 마을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마련 추진 필요

마을 통합 공동사업이라고 공동모금회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비스로 ... 특정 거점 마을이나 지역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작년부터 예를 들면 용담마을에 마을 돌보미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교육도...많이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어요. 주민 조직... 활동단을 꾸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 마을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3-A. 2021.10.7.)

근데 봉사로는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어떤 마을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중장년들과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3-A. 2021.10.7.)

- 공공정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 사업과 마을 및 주민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사업적 경제 기업 및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접근 바람직함

정책의 여러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주민 공동체, 주민일자리, 마을일자리, 또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중장년들도 고용하고. 그런 것들이 공공의 일자리사업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조금 많이 더 생겨야 하지 않을 까 싶어요.(3-A. 2021.10.7.)

□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중장년 참여 현황

- 50대 이후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아야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해서 시작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

지만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삶의 지표를 재정비하는데 참여의 의미를 둠

중장년... 50대 이후에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 해서 만든 부분(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이고... (3-B. 2021.10.7.)

저희 조합방문이 지금 한 580명 되는데... 40대 중반 이상 인구가 거의 90% 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50대에서 60대 초반 중장년 조합원들이... 저희 직원들도 보면 지금 20대 1명. 30대 1명. 40대 5명, 50대 5명, 60대 6명, 70대 1명이... 그리고 그분들이 또 대부분 다 여성들이고... 그런데 동 지역에서 지금 고령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0-50대가... 이제까지 모든 세대 중에서 살아 왔던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하는 첫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는, 10대 20대 때 배웠던 우리 인생관 가치관, 자기에 대한 어떤 삶의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재정비가 돼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3-B. 2021.10.7.)

○ 은퇴한 중장년의 특성과 새로운 일의 경험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 은퇴한 중장년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은퇴한 사람이 당장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한 6개월 정도는...충분히 지내지만...막상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니까 두려운데...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하는 데까지 최소한 5년, 6년의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살았던 50년~ 60년의 세월을 바꿔야 되는데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합시다...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3-B. 2021.10.7.)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세월이잖아요. 50살, 60살로 시작하는 건 40년을 (살아야 한 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의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경험을 안 해 보니까 본인들이 투자할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3-B. 2021.10.7.)

- 소집단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활동은 상호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

저희가 처음에 5년 전에 씨앗동아리 할 때, 저희 (협동조합의) 문화부에서 추천하고 같이 해준 팀이 두 팀이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났는 데.. 이분들이 공동체 창업을 통해 설립한지 지금 2년 차거든요. 올해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 자기 스스로... 그리고 한 1년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매출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네가 교육 문제도 직접 만들고 해서 (지속하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출발한 게... 61에 출발해요. 지금 65세인데.
그리고 내일 촬영 일을 하는 팀들은 저희 사업단으로 참여했는데...지금 60세에 교육을 받고 지금 65세가 되신 거죠. 지난 3년 동안 다르게 이분들도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돈을 내서라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들(사업장에서) 1년에 한 2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데... (3-B. 2021.10.7.)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만드는 구조를... 왜냐하면 50대를 고용할 수 있는 구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용을 해주든 아니면 본인들이 일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구조로서 좀 설계를 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도전으로 볼 수 있는 한 2년의 시간 그 정도로 저는 좀 사회적... 아까 시니어클럽이든 협동조합이든 중간이든 여러 기관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 필요하고요.(3-B. 2021.10.7.)

❍ 4차 산업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일자리 모색위한 계속 학습 필요

- 이제 일자리들이 4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장년 및 노년세대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는 것임. 이미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지금 고민 상황이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가 과거형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로 뭐 하는 부분이었는데... 한 60대 후반의 여자 분이 한 15명이 계셨는데... 한 분도 컴퓨터를 안 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키냐면... 컴퓨터 킬 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이 4차 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0살 되신 분도 40년을 살 건데 세상이 계속 변할 건데 그러면 이 교육도 그렇고...
과거에 70년대 때 인형 눈깔 붙이기처럼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지금... 정리하는 거는 사람이고... 다... 여기서 포인트를 뽑던 2차 가공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최소한의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 엑셀이든 한글이든. 40-50대니까 미래형 일자리로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학습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한 번 더 교육이라든지 시스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B. 2021.10.7.)

□ 자활기업과 중장년 일자리 현황

❍ 코로나19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활기업의 고용 현황

- 40대와 50대의 수급권자의 급증과 일자리의 소멸 현상 대두

저희가 자활기업이죠. (기초)수급자분들을 고용 창출하고 있는... 올해 들어서... 40대의 수급자 분들이 급증했어요. 네 엄청 오죠. 지금... 기존의 2년 동안 증가된 수급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40대, 50대예요. 원래는 한두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보면 절반 이상이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제 시장 구조 자체가 그분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없애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시장 경제는 이미 영세기업, 중소기업은 소멸되어지는 시장 구조인 거에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구조인 거죠.(3-G. 2021.10.7.)

- 자활기업의 경제 활동 주체의 형태 변화 필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은... 기존 사회적 시각은... 이제 한참 돈 벌 때 그리고 한참 돈 벌 수 있을 때이다... 무엇이 있었든... 이런 시각이 있었고... 사회적 기업 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도 그분들(수급자)이 안정적인 어떤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활기업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어?에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이미 한국 경제 시장 경제 속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하나로... 그렇게 내모는 거죠. 이미 깨지고 있는데... 다시 경제 활동 하고 싶으면 이거해... 이러면서... 다 내몰아 버리는 거죠... 개박살 되는 이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미 유럽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뭘로 가고 있냐면 다 가족기업이에요. 공기업, 대기업,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0대, 50대에게 창업과 관련돼서 사회적 경제의 어떤 기업 형태의 창업을 요구할 때는... 지금부터 한번 가족기업... 일자리를 통해서 가족 일자리를 만들라고 저는 유도해야 된다...(3-G. 2021.10.7.)

- 자활기업에서의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경력 관리 필요

저희 직원이 스무 명입니다...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청년 고용은 진짜... 돈 줘도 하기 싫어요... 왔다가 일 년이면 갑니다. 이백만 원씩 지원해도... 중장년 고용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표준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해요. 최저임금 수준이여야 지원되죠. 심지어.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받지 못합니다.(3-G. 2021.10.7.)

우리가 40-50세를 바라볼 때, 50-60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지금은 기존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시장 환경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경력이 먹히지 않으니까 실직하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새로운 경력...역량을 키워주는...그게 필요한 거죠... 시장에서 이게 적응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것을 키

울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은 단순히 교육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력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업력이 필요한 겁니다....(3-G. 2021.10.7.)

- 중장년이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이어가던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비해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충분히 제공해야함

청년들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의 지원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그 자기 영역을 충분히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청년이 2년이면 4,50대는 5년, 3년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분들이 영세 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또는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소한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40-50대 에게 지금 엄혹한 현실을 부탁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3-G. 2021.10.7.)

3)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 과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참여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은) 중장년 일자리지원 센터라든가 도청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공기관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 센터라든가 JDC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 다 제각각 있는데... 그럼 노인(중장년)들이 각자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데... 실상은 참여를 잘 못하겠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서비스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도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괜찮지만은... 중복적인 것도 있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 기관에서... 개인적으로는 일(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조금 맡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3-C. 2021.10.7.)

- 중장년과 노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기관을 두어 50세부터의 삶을 지원하는 접근 필요

중년층과 노인까지 다 몰아쳐서 좀 이렇게... 예산이 한 10억이나 얼마만큼 투자하면 되니까... 그 쪽 부분에 있어서 파이를 조금 더 키워서.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50플러스재단처럼... 제주에 큰 재단이 없잖아요. 50세부터 하는 그런 재정 상황에서라도...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취업자라든가 또 저희들처럼 60세, 65세 된 사람들이 아까처럼 단기 일자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3-C. 2021.10.7.)

그래서 현재로서는 너무 각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이제 공무원도 어디서 이런 거 하겠지 하는 생각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다음에 홍보하는...거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많은 사람이.... 저는... 다시 강의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3-C. 2021.10.7.)

- 공공 행정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 조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업무를 가져 가려고는 안 하고... 가져가요 하면, 우리가 교육 안 하는데... 이미 업무 분장된 상황에서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조직도 이제는 변해야하고... 우리 기관들도 협력을 하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 이렇게 실무에서 계신 분들이 논의를 같이 하면 좋겠다... 큰 틀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3-C. 2021.10.7.)

□ 중장년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한 전환 노력 필요

- 60대 이상이 다수 창업한 6차산업 인증기업인 농업기업을 비롯하여 참여층이 40대 전후 세대로 창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저희 6차(산업)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대 이상 그분들이 창업을 한 거죠 ... 균형(발전사업)으로 창업하신 분도 있고, 실제 농사만 짓다가 이제 기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젊은 친구도 많이 이렇게 농업인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뭐. 그렇게 하고 있죠. (3-G. 2021.10.7.)

지금은 뭔가...새로운 계획과 계획을 이렇게 설정하는 문제보다는... 그간의 어떤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솔직히 제가 이제 한 6년 됐거든요... 성과가 잘 안 보여요.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남은 게 뭐지? 했을 때는 허망한 거죠.” 마치 끊임없이 우리는 실험만 하는 것 같은 느

낌...(3-G. 2021.10.7.)

노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하지 못해서... 미치겠는 거죠. 지금 이 기업들 대표들은... 6차산업지원센터 쪽에도 인증 관련돼서 기준 미달이다 하면... 그래 안 해. 이렇게 대놓고 해버릴 정도로...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 창업이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G. 2021.10.7.)

-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며, 세대 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중장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세분화하여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너무 산만해요.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뭐지? 뭐냐면, 이게 40대의 정책이야, 50대 정책이야, 60대 정책이야, 70대 정책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헷갈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장년층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정책들을 60대에 맞춰서 지금 또는 70대에서 맞춰서 나온 정책들을 40대들이 50대들이 건드리죠.(3-G. 2021.10.7.)

이제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건드려 버리는 게 있고. 거꾸로 60대, 70대가 감당하지 못할 40대, 50대의 정책을 뛰어들어 들어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끊임없이 생산돼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산만하게... 이제 흐트러져 있는 건데... 여러 분야 흩어져 있는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뭔가 기초도 좀 다시 점검하고 포맷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3-G. 2021.10.7.)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중장년층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정책의 어떤 바운더리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40-50대 중심의 정책, 50-60-70대 중심의 정책, 60-70대 중심의 정책, 70-80대 중심 정책.... 실제로... 장년층들이 주거지 중심의 일자리를 원해요. 이게 육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사회성도 있는 거죠. 근데 다 그런건 아니예요!. 중장년층에 있는 4~50대들은... (그게 욕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7080대는 절실한 거죠. 이 문제가 주거지 중심의 문제... 그런데 이걸 혼합해서 얘기했을 때는 헷갈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일관성 있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면서 저는 중장년층에 대한 이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3-G. 2021.10.7.)

-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므로 세대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들을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

이제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욕구가...점점 어떻게 정형화되고 있냐면,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저소득의 문제로...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회성이 문제라는 거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실직의 문제.... 우리 60대는 이제 생애 재설계의 문제입니다... 60-70대는 노후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70-80대는 이제 사실상 건강 헬스케어의 문제, 그다음에 외로움. 그리고 사회 공동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교통 정리 없이 자꾸 퍼지다 보니까...(3-G. 2021.10.7.)

어디서 실험이 되냐면 소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문제가 되면 일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득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저 민간 기업들에게 다 공무원을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민간으로 보냈을 때 그분들을 고용한 민간 기업들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느냐, 또는 그 민간 기업이 기존의 어떤 기존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흐름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냐 하면, 못한다는 거죠... 깨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 창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3-G. 2021.10.7.)

그래서 저는 소득의 문제,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6차(산업) 영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회성... 사회성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문제 그리고 이게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 측면에서... 그분들이 계속 이제 교육하고 몰아가고 또 그분들한테... 니네 창업했으니 일자리 창출해 고용해 해. 이게 너희들의 가치야.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힘들죠. 지치고 그리고 돈을 못 벌면,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뭔가 뒤쳐지는 느낌도 들고 이게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중장년층 재설계 문제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구간들을 좀 정해서... 그게 맞춤형 대책들을 내줘야 된다고 보고요.(3-G. 2021.10.7.)

□ 중장년 일자리와 생애재설계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 필요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영역 간의 균형 잡힌 접근과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간의 연계와 동시에 차별화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는 영역별로 균형잡힌 교육과 접근이 필요하나, 생애경력설계 중심의 일자리 지원 기관에게는 일자리 성과에 초점을 맞춰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일자리 지원에서의 직무특화교육과, 복지 지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요구됨

저희는 일자리 기관이기 때문에 생애설계교육 6대 영역(일자리,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 중 생애경력설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일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애 재설계 교육이 자꾸 이제 일자리 쪽으로만 계속 포커싱이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중장년의 생애 재설계에 있어서 영역별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여가교육이라든지 문화나 복지나...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3-E. 2021.10.7.)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무 특화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서비스로 나가거나 또는 사회서비스 유형을 같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직무 특화 교육으로 저희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연계(하여).... 특정하게 직무특화 교육을 (하면)... 이제 3-4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쪽(사회서비스)으로 취업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간 연계를 실질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네트워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이후에는 내년 사업을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한다.(3-E. 2021.10.7.)

- 일자리는 복지 영역보다 일자리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하며, 일자리 부분에서 통합되는 전달체계로의 정비가 필요함

지원 체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 영역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요구는 더 커지고 있고, 정책 쪽으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자꾸 복지적 혜택 쪽으로만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복지로 전락되는.. 상황이 돼서, 정말 일자리가 복지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대상별로 가는 게 아닌, 일자리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좀 가야 된다. 지원 체계,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뭔가 좀 잘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3-E. 2021.10.7.)

- 국가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제주에서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 후 종료된 것과 같이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제외되어 실시되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정책적 지원에 있어... 제주에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퇴직자들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인턴... 일자리 파트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한 해에는 시행했다가... 언제는 안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책적 시행이라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고 조금 더 필요하고 확대돼야 되는데... 이게 누가 맡느냐 또 누가 어떤 부서를 추진하느냐, 하는 일이 추진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정책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 자리 사업이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주에서 바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3-E. 2021.10.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같은...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럼 성과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한 교육을 시켰지만... 기업에서 취업을... 이제 그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정작 이 사업에 대한 심의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에서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든 어디든... 이게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는 고용지원금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됐는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지만 성과가 연결이 잘 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장벽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없애는 역할들을 행정에서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 주시면 좋겠다.(3-E. 2021.10.7.)

❍ 중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교육 지원 이후의 활동 지속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신중년 경력 일자리 지원사업 이후 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사업 개발 지원 및 공유 공간 제공, 인큐베이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이 필요함

신중년의 경력 일자리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일자리 상황하고 일 경험을 하셨잖아요. 1년 6개월이 2년이든 2년이 경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로 참여를 했으면 일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업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데 창업으로 연결되는 게 거의 없어요... 중장년들 창업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사회적 경제 쪽밖에 별로 없고 청년은 너무 많아... 중장년이, 사업개발을 지원받거나 뭐 공간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죠.(3-E. 2021.10.7.)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싶다.라고 이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거에요. 조그마하게. 책상하는 둘 수 있으면 좋겠다고 관리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공유 공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 연계되는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그것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만 따로... 그게 아니라...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창업 지원 이런 것들 패키지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3-E. 2021.10.7.)

□ 노년기 삶 준비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노년기 진입에 앞서 중장년 세대의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연계 노력 중요

이제 앞으로 5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착해야 할 거리들을 어디서 모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재설계 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50대 해야 위기의식을 가지고 맞는 교육이라도 찾아가지.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야 찾아다니시고 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 생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위기의식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3-F. 2021.10.7.)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경력을 개발하면서 취업을 좀 장려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역할을 맡는지 이것이...중요한 사안 같고...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라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세월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배우고 싶고... 자기 능력에 맞고 자기 취미에 맞고, 자기 맘에 맞는 거를 찾는 게... 어느 단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될지...(3-C. 2021.10.7.)

저희 노인 일자리, 솔직히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키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관기관을 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 일자리하고 연결 합시다... 그리고 JDC에서 만들어낸 마을 기업들...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문을 닫은... 그 것들을 우리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다시 살펴봅시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난 달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1억씩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다 문을 닫은 거에요.(3-F. 2021.10.7.)

그럼 다시 살려야 하죠. 저희는 초기 투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관 기관 네트워크...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하고 해야지 만이...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된다. 이거를 카톡이라도 해서, 빨리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일자리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 바로 연결합시다...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3-F. 2021.10.7.)

□ 중장년 이전 세대부터 삶의 전환 준비 지원 필요하며, 중장년을 위한 센터 필요

- 5060세대를 넘어서 40대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요구됨

앞으로 50세가 되어서, 근데 중장년이 이제 5060이라는 이런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 당연히 40대는 스스로 어쨌든 꼭 자립을 해서 본인의 인생을 (잘) 확인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적기에 해당되는 세대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제 40대가 전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열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육아도 하고 가정도 책임지고, 한참 일할 나이라고. 이제 기존의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대가 한참 젊은 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역사회가, 이 시대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상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점점 그 고민들을 짊어지고,... 사실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모든 시기 시기마다, 세대 세대 마다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대도 그 고민을 해야 되고. 50대 나름의 그 고민이 생기는 그 지점적인 게 또 다른 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특정 50-60 아니면 65세. 이런 기준들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탐나는 5060)인생학교 같은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건져준 일정한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3-A. 2021.10.7.)

- 인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브랜드로서 '중장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 필요

인생 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 더 들여다 보고... 이것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터트려서 같이 고민하고... 인생이 전환될 수 있고, 전환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회 분위기가 정말 필요하다... 제주도 안에 (탐나는)5060 인생학교가 했었던 그런 역할들이 있고... 나름 지역만의 교육 브랜드가 필요하다...(3-A. 2021.10.7.)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에게 조금 더 공감대가 있게, 파급효과가 있는 방식의 (교육 브랜드가 필요하다)... 특히...모두가 전환을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노인 일자리로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더큰내일 센터 같은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있는 것처럼 중장년을 위한 센터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3-A. 2021.10.7.)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마을 중심의 중장년의 참여 활동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되새김하는 접근이 가능해야 함. 특히 은퇴 전 생계 중심의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서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돕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

저는 자꾸 인식이라는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라는 건 부정적 용어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고령화(말하는 게)...어쨌든 모든 어떤 면에서... 고령화가 그 나라의 복이다 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50대까지는 거의 생계 중심의 삶을 보통 삽니다. 거의 70-80% 이상.... 젊을 때 다닌 증권회사 친구들이 지점장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최소한 은퇴하기 5년 전에 마을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활동을 해야, 은퇴하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50대까지 생계 중심의 자기가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 경험은 어쨌든 장점이 있을 거거든요.(3-B. 2021.10.7.)

저는 그 경험들을 사회적 가치에 맞게끔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했던 어떤 업무 기획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기획을... 저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는 건 교육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3-B. 2021.10.7.)

-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로서 자원봉사도 일자리로서 재정립할 수 있으며, 5060 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 집단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감으로써 사회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음

저는...그래서... 실적 중심의 활동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가, 어떤 사회적 문화... 이러면 증폭시킬 건가 고민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저는 50대와 60대가... 일자리라는 거를 일자리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다르면...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도... 자원봉사도 솔직히 일자리로 보거든요, 이런 거를....정부 입장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면(아니겠지만)(3-B. 2021.10.7.)

그렇기 때문에 이 5060의 문제를 우선 행정이 어떻게든 정책을 만들고... 또 이런 중간 지원이라든지 역할을, 두 번째는 중간 지역이나 행정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어떤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거버넌스가 주축이 돼서, 5060세대가 제주 지역의 어떤 사회적 문제, 어떤 사회적 가치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50대들한테 이제 많이 노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 50대가 노인이냐, 당신이 삶을 다시 살아봐라.(3-B. 2021.10.7.)

청년은 청년이 알아서 고민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다. 그럼 50대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자기네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개인적 삶보다는 사회적 삶의 주체에 맞게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3-B. 2021.10.7.)

3. 요약 및 시사점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현장 전문가들 대상의 초점 집단 면접(FGI)을 통해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기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삶과 학습 경험

○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하는 '중장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활동과 일자리 찾기,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만학도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동료들과의 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중장년기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체감하며,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베이비붐·인생이모작 세대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명퇴와 퇴직 이후 새롭게 주어진 과제와 일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또한 나약하다는 생각과 도전이라는 말을 쓰기의 어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까하는 마음에서 오는 먹먹함 등을 토로하고 있음

○ 한편, 중장년 시기를 상하관계 없고 자녀들의 독립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해 건강한 삶을 꿈꾸기도 하나 남은 시간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느끼며,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홀로설 수 있어야 함을 체감하고 있음. 또 중장년 시기를 100세 시대 전반기의 경험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로, 인생후반전을 시작하는 시기로 알차고 의미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인식하기도 함

○ 더불어 퇴직 이후 겪게 되는 관계 맺기 방식의 변화,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노력,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한대 시기로서의 중장년 삶의 방식을 체득하며 사회

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다양한 감정적 기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껏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지난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음

- ❍ 중장년층은 삶의 현안 과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이 퇴직 후에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현실에 대한 감회와 부담감을 내려놓자고 하는 내적 요구가 등장함. 더불어 자신이 부재할 시에 나타날 가족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선되고 있으며, 노후설계에 대한 미진함으로 인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준비와 사후에 나타날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고 있음
- ❍ 중장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한 자심감과 당면한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로서 중장년 시기 인식하고 있음. 또한 새롭게 살아갈 앞날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만학도로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래 준비로 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중장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고 여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타격을 겪으면서, 사회초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의 안정화가 나머지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전제하여, 배움의 결과를 일의 방향 재설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 또한 만학도로서 젊은 학생들에 맞춰 주고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계속 학습을 통해 배움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있음.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주변인과의 관계 맺기와 성장에 도움이 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
-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참여자들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음. 지역 내 대학과 도 및 행정시,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학습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원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양성 과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 참여하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 ❍ 중장년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로서, 계속 학습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취업하거나 문단에 등단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칠 수 있음. 이는 달라진 중장년기의 삶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으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준비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해 가는 과정임을 제시함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의 일환인 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활동을 전개하면서 스스로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더불어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발견하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함. 다양한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좋았으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유지, 그리고 같은 생각과 일의 공유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함
- 만학도로서 늦깍이 대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로 무엇보다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결과라는 데서 엿볼 수 있음. 상급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한으로 남아 있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는 회상을 통해 대학 입학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4년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는 제도적 장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저마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음
- 성인학습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맞닿은 전공 수업에의 참여로,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업 참여 과정에서 협력하여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맛보면서 큰 만족감을 나타냄. 또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과과정인 에니어그램을 비롯한 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교육적 성취로 나아가고 있음
- 한편 자원봉사하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배움을 시작하기도 함.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격과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하였음. 근래 디지털 시대의 등장으로 인한 노년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

○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시간과 생업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지역 간 격차, 교육환경의 온라인화,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몰이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 및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활동의 전개를 희망하고 있음

○ **(중장년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사자들은 풍요로운 노년의 삶 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기회를 요구하고 있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자신을 위한 치유와 힐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및 웰다잉(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노후 설계 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음

○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 역량 강화가 필요함으로 토로하였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희망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의 적용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높은 효과성을 발휘하는 학습 경험으로 지속적인 기대하게 함.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 업무와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현업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 지속적인 배움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음

○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온라인·온프라인의 경계가 희석되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음. 과거 컴퓨터학원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한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컴퓨터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OA중심의 컴퓨터 활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기초를 익히고 문

서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요구됨. 또한 우리 앞에 생활편의 도구로 급격히 등장하여 일반화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와 영상으로 집약되면서 정보 접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성인학습자 학습 여건에 따른 참여 제약 요인)**으로 배우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생업으로 인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참여의 어려움, 거주지와 먼 거리의 교육 장소, 산남(서귀포시 지역)과 산북(제주시 지역) 지역 간의 교육참여 기회의 격차, 학교 입학에 대한 가족의 반대 등이 학습 지속의 제약 요인을 제시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의 온라인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강신청부터 비대면 수업의 강화 등 변화 상황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만학도)에 대한 교수자(강사)의 몰이해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식의 한계로 인해 학습 참여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였음.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강사)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요구됨
-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 및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음. 퇴직 이후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었음에 아쉬움을 나타냈음.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지속 활동을 위한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지원체계의 마련을 요청하기도 함. 교육기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대상 구분 없는 참여자 모집으로 인해 생겨나는 기존 교육생 중심의 문화로 인한 어려움과 자격과정 신청을 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또 어렵게 신청하여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시작할 때와는 달리 교육 수료 시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무책임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함
-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끼리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모임과 자원활동을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음. 더불어 제공되는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 성과와 과제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함.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나눔을 펼치면서 보람을 만끽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수료 후 사회적 일자리로 이어졌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교육에 참여한 결과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전문교육과정 참여 후 후속과정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음.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을 유익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담당 실무자의 사전 안내와 교육 지원이 학습 동기의 강화로 이어졌음.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지와 학습 지원, 학습방법의 적용이 성인학습자의 성장에 영향력을 끼침. 또한 늦깍이 대학생으로 시작한 만학도로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위한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인식을 바꿔 어 냈고, 학교 생활을 통한 성장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강화함으로써 강한 성취감을 나타냄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과제)**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중장년세대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 삶의 형태와 노년기 준비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살아 온 삶을 조망하고 앞으로 닥칠 삶의 변화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또 중장년세대가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아쉬운 사항으로 공유 공간 및 필요 시설의 제공으로 나타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위한 기제로 교육과정 참여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위한 기회 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특히 인생학교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 마련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참여 범위가 50~64세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제고를 요청함. 특히 사업 참여 제한 연령인 64세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사회적으로 젊은 세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중장년 세대의 사회 참여 및 실천 활동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제공이 필요함.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의 지속은 실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제공으로 보장할 수 있음. 이는 학습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며,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역량 개발의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생애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중장년 세대가 사회적으로 청년회와 노인회 사이에 위치하여,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장년회 조직·운영을 희망하며,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으로 중장년세대의 기존 활동공간인 특정 시설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의 제공도 요구함.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 준비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 참여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과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선호하여, 인생설계교육 운영 과정에의 반영을 희망함

○ 중장년세대가 부모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 참여의 범위를 기존 50~65세에서 69세까지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장년 대상에게는 일과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노년 세대를 위해서는 건강, 여가와 관련된 교육 및 디지털화된 환경의 실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함. 더불어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로 지역의 행정,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 수료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봉사 활동 지원, 교육 참여자 중심의 단체 결성 등 종합 플랫폼 기능의 수행을 요구함

□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기관의 현황과 과제

❍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와 요구의 차이로 인해 한계 상황이 나타남. 우선 중장년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의 구직자 이용 대상은 만 40세 이상으로 중장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중장년' 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또한 40대와 50대, 60대의 수요와 역량이 다름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따름. 취업 교육과정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을 추진되면서 디지털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로 하고 있음.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전문분야 퇴직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요구가 없는 반면, 생계가 어려운 대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이면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

❍ 지역 중장년 일자리 여건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중장년 일자리 연계의 한계 상황 발생하고 있음. 중장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할 수 기회가 부족하여 높은 경쟁률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중장년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의 확충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장년인 만 60세 이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도 단순 활동 지원 일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재능나눔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음. 2019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센터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월 27만원의 봉사활동으로 진행하던 일자리들이 70만원이 넘는 보수에 전문성을 갖춰 활동하는 영역의 폭이 넓어지고 확대되어가고 있음. 이를 위해 특정한 영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발 후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 안되어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요구되었음. 또한 이용자들이 지역에서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정보의 미비하여 제공을 못하였음. 향후 지역의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이 요구됨. 시니어클럽에서 2022년부터 노인 전문취업 과정 교육이 종료되어 지역의 관련 기관의 교육과 연계한 전문교육 운영이 필요해 졌으며, 관련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발생함

❍ 노인일자리에서의 사회서비스 사업 급증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중요해짐. 그러므로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바, 업무 담당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여러 유형들이 관련 부처를 통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 사업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장년 당사자의 수요도 많지 않음. 사회적으로 취·창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제 중장년들의 창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인큐베이팅 과정이 충분치 않아 실행이 어려운 환경으로 창업 활동지원 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기존 창업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분석과 실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충분이 훈련된 이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연계하는 마을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공공정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 사업과 마을 및 주민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사업적 경제 기업 및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접근 바람직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장년 참여 현황)**을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살펴보면, 50대 이후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살아야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해서 시작한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지만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여성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삶의 지표를 재정비하는데 참여의 의미를 둠

○ 은퇴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 소집단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활동은 상호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일의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일자리 모색위한 계속 학습도 필요함. 이제 일자리들이 4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장년 및 노년세대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등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을 갖추는 것임. 이미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자활기업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현황)**은 코로나19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자활기업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와 50대의 수급권자의 급증과 일자리가 소멸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자활기업의 경제 활동 주체의 형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활기업에서의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경력 관리 등이 필요함. 중장년이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이어가던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비해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보다 충분히 제공해야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참여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중장년과 노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기관을 두어 50세부터의 삶을 지원하는 접근 필요하며, 공공 행정 내부에서 부서간의 업무 조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년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한 전환 노력 필요

- 60대 이상이 다수 창업한 6차산업 인증기업인 농업기업 등에서도 참여층이 40대 전후 세대로 창업이 확대되고 있음. 또 관련 지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며, 세대 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중장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세분화하여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므로 세대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들을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지원정책의 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일자리와 생애재설계 영역 간의 연계와 통합적 접근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는 영역별로 균형잡힌 교육과 접근이 필요하나, 생애경력설계 중심의 일자리 지원 기관에게는 일자리 성과에 초점을 맞춰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일자리 지원에서의 직무특화교육과 복지 지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배제되어 있음. 또 국가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제주에서의 확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 후 종료되었음.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더불어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제외되어 실시되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교육 지원 이후의 활동 지속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신중년 경력 일자리 지원사업 이후 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사업 개발 지원 및 공유 공간 제공, 인큐베이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이 필요함

○ 노년기 삶 준비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노년기 진입에 앞서 중장년 세대의 교육 강화와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연계 노력이 중요함

○ 중장년 이전 세대부터 삶의 전환 준비 지원 필요하며, 중장년을 위한 센터 필요
- 5060세대를 넘어서 40대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인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브랜드로서 ‘중장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마을 중심의 중장년의 참여 활동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되새김하는 접근이 가능해야 함. 특히 은퇴 전 생계 중심의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서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돕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로서 자원봉사도 일자리로서 재정립할 수 있으며, 5060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 집단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감으로써 사회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마을 중심의 중장년의 참여 활동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되새김하는 접근이 가능해야 함. 특히 은퇴 전 생계 중심의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서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돕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로서 자원봉사도 일자리로서 재정립할 수 있으며, 5060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 집단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감으로써 사회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음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논의
2. 정책 제언

1. 요약 및 논의

○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까지만 해도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며, 당시는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음.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 재설정 및 생애재설계, 일 탐색과 사회 참여 활동 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즉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전 생애에 걸친 중장년 인생재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반영함.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 학습의 선행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여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중장년 인생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국내외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현황 및 제주지역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그리고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 관계기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 외국은 대체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인구고령화와 출생율 감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 확산 등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음. 중장년을 위한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임. 이는 중장년의 은퇴를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 중고령기 노동시장을 단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전개해 왔음. 실제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노년세대는 일찍부터 복지적 접근을 반영한 정책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고령사회 임박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겨난 노년 부양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촉발되었음.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여전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장년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음

○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학력과 관계없이 생활공간 가까이

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인 커뮤니티컬리지와 지역사회학습센터, 공민관, 시민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은퇴 후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대학중심의 학위과정 등 고등교육 프로그램도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 운영체계가 대체로 일원화되어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성인계속교육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평생에 걸쳐 일할 수 있게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음. 고령자에 대한 복지적 접근보다 생산 현장에서의 일하여 소득을 확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독일도 중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중장년 근로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적 계속교육을 위해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연방 차원에서의 계속교육은 연방교육연구부 소관이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업무는 연방 내 부서간 연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의 평생교육사업 연계를 위한 주정부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교육과 관련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고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산화 체계로 운영 및 관리되어 있어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독일의 중장년층은 독일사회의 견고한 복지체계와 직업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직업상담, 직업중개, 계속교육지원, 직업진입지원 등을 포괄적인 근로지원을 받고 있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노후준비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15. 12. 23)되어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6~'20)'이 시행·마련되었으나 고령화 사회 등장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노인대상의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더구나 정년 60세 연장이 2017년부터 일반화되었으나 여전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 중장년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 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성인학습자 적합 직무,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그리고 국가단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통해 확산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전달체계 확대가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름. 국가 단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삼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특히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를 전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여 5060세대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준비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2015년 4월에 제정하고 관련 조직으로 2016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신설하였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평생교육기관, 일자리관련 기관 등 기존의 관련기관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교육 및 서비스 들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는 외국의 교육지원체계에 비해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외국은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누구에게나 일상적 학습을 보장함으로써 별도의 대상별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학력은 높으나 인생 전반 삶에 대한 설계를 비롯하여 진로설계와 경력관리 등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무엇보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등장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달라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학습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지역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제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임

○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국가의 정책 시행 배경과 같이 고령화 대비 예비노년층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됨. 제주지역에서의 고학력 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으로 편입되기 시작되었으나, 베이

비붐 세대들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반면에 수명 연장과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한편 기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남

- 그러므로 제주 예비노년세대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예비노년층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사업 추진방향으로, 고학력 전문직 장년층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컨설팅 등 지원 강화, 지역수요 및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및 일자리 사업 발굴 확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정책 추진 내실화,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관 설치로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등에 두었음
- 교육부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의 일환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 제주대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현재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제주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으로 4개 학과(건강뷰티향장, 관광융복합, 부동산관리, 실버케어복지)가 신설되어 운영 중임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주에서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201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삼아 지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전담하여 구심적 역할을 맡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가 2017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미설치됨. 그 동안 기존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체계로 사업을 추진되어 왔음
- 제주의 사업체계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기반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존 유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점에서 행정적·재정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함. 또한 지난 5년 동안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제주의 중장년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더불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대체로 자체 고유 업무를 갖고 있음에 따라 각각 별도로 부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업무는 별도의 추가 업무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즉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이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치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 서울특별시의 서울 50플러스 재단 및 지역 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통한 종합 상담 체계 운영 사례에서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도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마련이 급선무임. 이를 통해 국가단위 지원정책과 제주 지역의 지원 현황,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등 중장년을 위한 지원 현황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 이를 통해 지역에 산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된 은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로서 전 생애 발달과정으로써의 중장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함. 또한 이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 일 탐색 경험을 통한 전환학습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는 관점의 전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FGI(초점집단면접) 결과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하는 ‘중장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활동과 일자리 찾기,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만학도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동료들과의 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중장년기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체감하며,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세대로 불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명퇴와 퇴직 이후 새롭게 주어진 과제와 일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또한 나약하다는 생각과 도전이라는 말을 쓰기의 어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마음에서 오는 먹먹함 등을 토로하고 있음

○ 중장년층은 삶의 현안 과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이 퇴직 후에도 가족을 돌봐야하는 현실에 대한 감회와 부담감을 내려놓자고 하는 내적 요구가 등장함. 더불어 자신이 부재할 시에 나타날 가족의 일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선되고 있으며, 노후설계에 대한 미진함으로 인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준비와 사후에 나타날 주변의 평판을 고려하고 있음

○ 중장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의 과정에 대한 자심감과 당면한 삶을 준비하는 전환기로서 중장년 시기를 인식하고 있음. 또한 새롭게 살아갈 앞날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만학도로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미래 준비로 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중장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고 여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타격을 겪으면서, 사회초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의 안정화가 나머지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전제하여, 배움의 결과를 일의 방향 재설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음. 지역 내 대학과 도 및 행정시,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학습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원 등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양성 과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더불어 탐나는 5060 인생학교에 참여하면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살아가고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 중장년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로서, 계속 학습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취업하거나 문단에 등단한 작가를 비롯한 전문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칠 수 있음. 이는 달라진 중장년기의 삶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으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준비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해 가는 과정임을 제시함

○ 성인학습자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과 맞닿은 전공 수업에의 참여로,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수업 참여 과정에서 협력하여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맛보면서 큰 만족감을 나타

냄. 또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주지역 중장년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시간과 생업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 지역 간 격차, 교육환경의 온라인화,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몰이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 및 교육비의 부담 등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교육 후속과정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시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활동의 전개를 희망하고 있음

○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초 역량 강화가 필요함으로 토로하였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요구함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 학습동아리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의 적용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음.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온라인·온프라인의 경계가 희석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음.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성인학습자 학습 여건에 따른 참여 제약 요인으로 배우고 싶으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생업으로 인한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참여의 어려움, 거주지와 먼 거리의 교육 장소, 산남(서귀포시 지역)과 산북(제주시 지역) 지역 간의 교육참여 기회의 격차, 학교 입학에 대한 가족의 반대 등이 학습 지속의 제약 요인을 제시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의 온라인화가 가속화 되면서 수강신청부터 비대면 수업의 강화 등 변화 상황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자(강사)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요구됨. 교육운영 방식의 한계와 교육비 등 환경 조건의 제약 해소 필요

○ 한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함.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나눔을 펼치면서 보람을 만끽하고 있음.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담당 실무자의 사전 안내와 교육 지원이 학습 동기의 강화로 이어졌음

○ 향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의 과제로는 삶의 변화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상시 상담 제공, 공유 공간 및 필요 시설의 제공을 포함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종합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위한 기제로 교육과정 참여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위한 기회 제공도 요청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및 실천 활동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참여 범위가 50~64세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제고를 요청함. 특히 사업 참여 제한 연령인 64세는 실제적으로 신체적·사회적으로 젊은 세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으로 중장년세대의 기존 활동공간인 특정 시설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의 제공도 요구함. 더불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기회 제공, 여가와 관련된 교육 및 디지털화된 환경의 실생활 정보 제공, 교육 참여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과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선호하여 인생설계교육 운영 과정에의 반영을 희망함

○ 한편 중장년 생애재설계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역할로 지역의 행정,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교육 수료 이후 일자리 창출 및 봉사 활동 지원, 교육 참여자 중심의 단체 결성 등 종합 플랫폼 기능의 수행을 요구함

○ 제주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의 중장년 지원은 일자리가 부족한 중장년 일자리 여건으로 인해 중장년 일자리 연계의 한계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장년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높은 경쟁률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중장년을 위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등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도 중장년인 만 60세 이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도 단순 활동 지원 일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춘 재능나눔 일

자리로 전환되고 있음. 또 사회적 경제의 여러 유형들이 관련 부처를 통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 사업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장년 당사자의 수요도 많지 않음

○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기존 창업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분석과 실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 충분이 훈련된 이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과 자활기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은퇴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경력 관리 등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영역에서 제공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장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참여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정책적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여 지원 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므로 연령대 및 세대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들을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제 영역별로 균형잡힌 교육 및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에서의 직무특화교육과 복지 지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있어야 함에도 배제되어 있음. 중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교육지원 이후의 활동의 지속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으로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사업 개발 지원 및 공유 공간 제공, 인큐베이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는 40대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노년기 진입과 연계하는 중장년 세대의 교육 강화와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연계 노력이 중요함. 이와 같은 종합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이 요구됨. 더불어 중장년 세대가 은퇴 전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고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러므로 우리 제주지역에서의 중장년세대의 삶을 위한 일의 지속과 학습 환경 조성, 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 제공,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가는 방향성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이는 곧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다시금 되새김하는 과정이기도 함

2. 정책 제언

○ 중장년기의 삶은 사회적으로는 생계형 일자리의 중단과 관계의 단절 및 변화를, 개인적으로는 가장으로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낀 세대'로서의 조건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흡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중장년 세대에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 즉 자신의 생애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다양한 학습과정과 사회참여 활동이 요구되는 것임

○ 근래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시대 등장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보사회를 넘어서 AI의 등장 등 디지털화 된 세상으로 인한 일자리 특성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나타난 일터와 생활공간의 경계 허물기 등을 맞닥뜨리고 있음. 무엇보다 중장년 세대가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의 중요하고 현저한 발달 영역인 관점 전환이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중장년세대의 삶에 필요한 교육은 자신의 역할 검토 및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을 동반하는 전체 전환 사이클로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 자율성, 자기통제, 삶에 대한 책임감이 증진되는 과정을 실천해 가는 전환 학습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일컬어 전후 세대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정책적 초점이 특정한 나이인 중장년세대(50~64세)로 변화하였음. 이는 인구구조와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회적 대전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장년의 삶 또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 이제 중장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표 재설정 및

생애재설계, 일 탐색과 사회 참여 활동 등 퇴직 이후의 삶 준비가 필수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함. 즉 100세 시대를 맞은 중장년 세대의 전 생애에 걸친 인생재설계는 국가의 정책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과제가 된 것임

○ 본 장에서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례 및 정책의 국내외 선진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및 FGI(Fu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조사 결과 그리고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전환학습 방안 모색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과제들을 제시하였음

가.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성인계속교육 지원 체계 구축, 전환학습 및 일자리 연계 원스톱 지원 활성화,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 기반조성, 중장년 인생재설계 지원 연계·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분류하였음

1) 성인계속교육 지원 체제 구축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이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과 관계없이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 기관에서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은퇴 전후에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지역별로 시범 설치·운영하여 성인학습자 대상의 고등교육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등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성인학습자 대상의 고등교육이 지역사회 중심의 성인계속교육 지원이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재정립이 요구됨

○ 성인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관점을 전환하는 전환학습은 단시간의 교육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나는 것이 아님. 실제 개인마다 살아 온 경로나 학습력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저마다의 시간 투입과 역량 수준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들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계속교육의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동시에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에도 중장년 인생재설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2) 전환학습 및 일자리 연계 원스톱 지원 활성화

○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에 오래 살아가야함에 따라 범부처 기획형태로 노후준비지원법을 비롯하여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신중년일자리 확충방안 등 일과 학습 연계를 통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년에 비해 정책적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음. 2017년부터 연장된 60세인 정년제 정착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고용 불안에 놓여 있음.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한계 등으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외국의 경우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년을 위한 노후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중고령기 노동시장을 단계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사회적 문제 등로 인한 더딘 진전으로 어려운 여건임

○ 그러므로 우선 중장년 세대가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점 전환을 위한 학습과 다양한 일자리의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대체로 지역단위에서 중장년을 위한 전환학습 기회와 일자리 지원사업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한 패키지로 재정립함으로써 중장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상담, 계속교육지원 및 일자리 진입 지원 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3)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 기반 조성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음. 특히 중장년(50+세대)은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써 노인층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음. 즉 가족 및 친구 관계, 사회참여,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소득 준비와 관리, 건강, 가치관, 여가·문화 등의 측면에서 교육 참여를 비롯하여 관련 사회참여활동 및 창업·창직·일자리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중장년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치유와 힐링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관리, 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한 노후 설계 준비를 위한 인생학교, 인간관계 맺기 훈련, 사회참여 활동 준비교육 및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 지원이 필요함. 또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제고와 적정한 교수방법, 그리고 교육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

○ 제주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유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중장년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 정책 참여 기관들이 분담하는 수행 방식으로 인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 업무 수행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즉 중장년 당사자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년 생애재설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4)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연계 ·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전달체계가 중요함.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주로 부처별, 운영기관별로 실행해 오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법에 노후준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자리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중심

이 되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참여한 여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중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확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반영하였음

-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가 단위 사업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의제로 삼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특히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를 전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구심적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해 오고 있음. 물론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 전달체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음.
- ❍ 제주에서의 '탐나는5060 프로젝트'에서 이어진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사업'은 도 노인장수복지과 담당 업무로서 인생재설계 지원을 위한 '탐나는5060 인생학교'를 비롯한 교육 및 재능나눔 등 사회 참여활동 지원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그리고 일자리 지원은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등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취업 지원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서, 창업지원은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제주지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혁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과 연계된 행정의 관련 담당부서 간의 협력을 비롯하여 공기관·민간기관(단체)과 행정의 긴밀한 협력, 동시에 민간기관(단체)들 간에도 선의의 연계와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임. 향후 공동의 방향성 설정과 사업 간의 호환을 위해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갖춘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나.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

- ❍ 제주 중장년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맞아 달라진 생애의 삶의 목표 재설정 및 생애재설계, 새로운 일 탐색과 사회 참여 활동 등 전 생애에 걸친 인생재설계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 삶을 위해 학습의 선행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는 전환학습으로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역량 기르기가 중요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들은 앞서 언급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질적 향상, 중장년의 학습-일 경험-관점 전환 중심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나누어 제언하였음

1)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초고령 사회와 인구 소멸현상이 대두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시대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미진한 여건임. 그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대상 복지 정책 및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음으로 해서 중장년을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음

○ 근래 중장년 세대가 급격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점 전환이 요구됨. 그러므로 중장년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이 중요함. 그리고 중장년 삶과 연계한 교육 지원을 통한 생애재재설계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는 정책 과제의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중장년 삶과 연계한 교육 지원 접근 필요

○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학력은 높으나 인생 전반 삶에 대한 설계를 비롯하여 진로설계와 경력관리 등에 대해 배워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중장년 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으로 편입되기 시작되었으나, 노후준비가 미흡한 반면에 수명 연장과 건강한 상태의 신체조건, 새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큰 과제로 등장하였음. 그 동안 진행해 노인일자리 중심의 지원 사업은 대체로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남

○ 그러므로 제주 예비노년세대인 중장년의 안정적인 생애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중장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중고령기 노동시장을 단계적으로 벗어나 예비노년층 일자리로 이어지는 종합 노후준비 지원대책에 앞서 중장년의

삶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이 요구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 역할 정립 및 제고

○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 및 교육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음. 즉 각각의 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과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과 교육들이 중장년에게 제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 정책과 사업이 각 부처별로 진행함에 따라 중장년에게는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기도 함

○ 국가 단위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중장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생애재설계 지원이 전개되고 있으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부서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노인지원기관, 일자리관련 기관 등에서 각각의 관련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부서가 다양함에 따라 행정 부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역할 정립을 통해 사업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 결과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활성화 및 중장년 세대의 참여 확대와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중간 매개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와 실행 기관의 지정이 요구됨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중장년세대에게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체로서의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전환학습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됨. 앞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쌓기와 다양한 중장년의 요구를 수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항상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함

○ 제주에서는 2017년 '탐나는5060 프로젝트'로 시작된 '탐나는 5060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장년의 인생재설계 지원을 지속해 왔으나 제한된 예산과 단

위사업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다수의 중장년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음. 중장년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단위 교육지원시설(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에 이르기 까지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체제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중장년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년의 현안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식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요구조사 등 촘촘한 설계가 반영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현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맡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배치된 2명의 사업 담당인력으로는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특화 프로그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고학력 전문직 장년층을 위한 인생재설계 교육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층의 취·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 경험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에의 기회 제공을 통해 중장년의 실질적인 삶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이와 같이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일상에서 성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마련 및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이와 같은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세대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할 수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 위에서 제시한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으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도 노인장수복지과, 일자리과, 평생교육과, 행정시)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부서별 사업 간의 연계성을 보장하고, 사업 실행 기관에서의 협력을 조장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 도 정책 사업은 필요에 따라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 담당 기관에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음. 제주지역의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혁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당사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과

연계된 행정의 관련 담당부서 간의 협력뿐 만 아니라 사업 담당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향후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의 범위 재설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무엇보다 중장년 당사자의 참여 동기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및 지원사업을 요구함.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이 사업 수행 위주로 설계된다면 그 자체가 중장년의 참여 동기의 한계로 나타날 수 있음. 중장년의 전환학습을 통한 삶의 재정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당면 과제와 관심사, 그리고 사회적 요구 중심의 교육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업 추진 방식의 적용이 필요함

2)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의 참여 기회 확대는 기존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공 지원체계로서 언제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대학 중심의 성인학습자 대상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제공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와 같이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성인계속교육 지원이 평생교육 일환으로서 제공되어야 함

○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진로교육이 제공되지 못한 시대를 살아 온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역시나 학교 졸업 이후의 계속교육(평생교육)의 참여기회 제공도 매우 제한적이었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학력이 높은 특정한 부류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음. 이제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누구나 평생에 걸친 학습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필수조건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종합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될 것이며, 경제활동 및 일 경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우선적으로 중장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및 일 경험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사업 및 관련 정보를 집약한 종합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더불어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 정보, 중장년 이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단계별 지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희망하나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함. 중장년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중장년 당사자의 상담 서비스 제공은 같은 중장년으로서 먼저 참여하여 쌓은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동료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시의 50+ 재단에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참여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도 하였음. 더불어 중장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의 활용과 이용자 중심의 쌍방향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종합정보의 제공 등 정보 전달 방법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확대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공간 가까이에 있는 공간에서도 제공될 수 있어야함. 지역사회에서의 성인계속교육 공간은 교육 실시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임. 이를 통해 중장년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여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음. 그래서 중장년 자신이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열려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교육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야함

○ 제주지역은 동 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전문기관이 배치된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읍·면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여건임. 특히 리 단위 마을 주민의 참여 여건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특히 생업과 병행해 교육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위치한 마을회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마을문고) 등에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중장년 상호학습 및 소통을 위한 공유 공간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 중장년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으로 교육 참여자들간의 상시적인 만남과 후속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요청함. 이를 통해 자발적인 학습모임과 자원 활동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또한 중장년세대가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전개에 있어서도 공유 공간 및 필요 시설의 제공으로 나타남. 특히 비용을 지불하여 공간을 대여하고자 하여도 중장년 당사자들이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주말에는 문을 닫아 사용에 어려움이 따랐음. 이와 함께 동아리 연구 주제에 따른 공유주방과 연습실과 같은 공간의 제공은 활동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됨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과 마을회관에서의 공간제공 서비스지원 도입과, 더불어 근래 늘어나는 마을에 위치한 동네서점과 책방들과도 연계한 주민교육 공간의 확장을 통해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3)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질적 향상

○ 앞서 제주지역 중장년생애재설계 지원사업 및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재학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하는 '중장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활동과 일자리 찾기,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하였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학력 차이를 극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만학도로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동료들과의 배움과 성장으로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 산재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안정된 은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노후 준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방향성 정립 필요

○ 이제 급격한 사회변화로 대표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의 등장, 디지털화 등은 세계화 현상과 함께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

는 당면 과제로 특히 중장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중장년 세대의 노년기 삶 준비로서의 생애재설계를 넘어서, 삶의 주체로서 전 생애 발달과정으로써의 중장년기의 삶을 통찰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함. 또한 이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과 일 탐색 경험을 통한 전환학습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는 관점의 전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므로 그 동안 추진해온 국가단위 중장년 대상 지원 정책과 제주지역의 지원 현황을 중장년 당사자의 수요에 맞춰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의 지향점은 기본적으로 중장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당면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기로서 삶의 재정립을 제시할 수 있음

□ 중장년 생애재설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중장년세대는 중장년기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체감하며,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중장년 세대는 직업적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명퇴와 퇴직 이후 새롭게 주어진 과제와 일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그러므로 사회초년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직업의 안정화가 앞으로 남은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전제하여, 배움의 결과를 일의 방향 재설정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이에 길어진 중장년 세대의 삶의 특성과 의제,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해, 초고령화를 앞둔 세대로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점차 높아지는 중장년 학습자들의 수준과 보다 다양해지는 그들의 요구에 알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년 생애재설계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중장년 세대의 노후설계 준비에서부터 노년기 삶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교육의 영역별(여가생활, 인문교양, 문화향휴, 대인관계, 재취업 및 일 경험, 건강관리, 재무관리, 인권, 가족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함

○ 중장년 세대의 사회 참여 및 실천 활동의 확대와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제공이 필요함. 중장년 세대의 사회참여 활동의 지속은 실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제공으로 보장할 수 있음. 이는 학습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며,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당사자의 역량 개발의 과정으로써 이를 통해 생애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마련

○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온 세상이 온라인·온프라인의 경계가 희석되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음.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등장과 키오스크의 사용의 일반화로 새로운 생활방식을 익힐 것을 요구받고 있음. 중장년 세대들은 이미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섰으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이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기회가 부족하였음. 이제 일상에서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컴퓨터 활용 등 OA중심의 컴퓨터 활용교육이 필요함. 실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기초를 익히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요구되는 것임

○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보가 문자와 영상으로 집약되면서 정보 접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중장년이 달라진 세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제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젊은 세대와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집에서 비대면 생활(음식주문, 은행이용 등)이나 재택근무, 정보취득, 일상 업무 처리 등을 하고 모든 의사소통 창구를 디지털(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리고 SNS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됨. 실제 중장년이 디지털 역량강화과정을 수료 후 노년세대를 위한 강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천 활동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하였음. 이어 전문교육과정 참여 후 후속과정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법까지 모색하고 있음.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으며, 재능나눔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을 유익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호학습의 경험을 쌓는 집단학습 과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구현하는 것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의 주제 중심의 숙고와 토론, 나눔 활동 전개통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중장년 당사자들이 학습의 결과와 경험을 나누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속 성장을 도모함. 이는 개인의 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개인과 집단 모두의 성장을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음. 또한 자신들의 요구와 관심이 학습을 통하여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학습에 대한 동기화가 활발해짐

○ 이와 같이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과 상호존중의 훈련으로 갈등 해소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마을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넓혀가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지속되어 온 5060세대를 위한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4) 중장년의 학습–일 경험–관점 전환 중심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오늘날 지역공동체는 단순히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구성체에 머물지 않고, 구성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그 산물이라 할 수 있음. 중장년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배움의 기회로서, 계속 학습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재취업하거나 전문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경제활동을 넘어선 일 경험을 통해 관점 전환을 통해 전환학습을 실현하고 있음. 이는 달라진 중장년기 삶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으로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함

□ 마을에서 시작하는 중장년의 삶과 전환학습 기회 제공

○ '지역공동체'는 실질적인 '자치 활동'에 근간을 두고 있어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을 실현하기에 최적화된 장이기도 함. 즉 중장년 세대가 주민으로서 자신의 삶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활동'을 펼침으로서 비로소 마을공동체의 일원임을 체감할 수 있음

○ 중장년이 은퇴 전 생계 중심의 사회적 경험을 마을 안에서 적용하여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돕는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 또한 주민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자신의 생활공간인 마을에서 '자치 활동'의 참여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임. 이로써 중장년의 삶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동체의 지속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임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중장년 역할 강화

○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화로서 자원봉사도 사회적 일자리로 재정립할 수 있으며, 중장년 세대가 지역사회의 활동 집단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사회적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음

○ 반면에 중장년 세대가 사회적으로 청년회와 노인회 사이에 위치하여, 어느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기도 함. 이와 같이 중장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중·장년회 조직·운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리더로써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키우기가 요구됨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개선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해 중장년세대는 기존 활동공간인 특정 시설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마을에 위치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의 제공도 요구함. 더불어 중장년세대의 인생재설계 준비교육에서의 정보 취득과 지식 습득도 좋지만 교육 참여과정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과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를 선호하고 있음

○ 향후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요구됨.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도청,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영역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음. 이에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장년 당사자들의 참여 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 이를 위한 관계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중장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정책 대상이 불분명하여 지원 정책의 한계가 나타남. 중장년층의 문제는 취약한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이므로 연령대 및 세대별로 다른 욕구와 문제들을 세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중장년 생애재설계를 위한 제 영역별로 균형 잡힌 교육 및 정책적 접근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에서의 직무특화교육과 복지 지원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있어야 함

○ 중장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교육지원 이후의 활동의 지속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으로써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사업 개발 지원 및 공유 공간 제공, 인큐베이팅,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지원이 필요함

□ 학습과 일 경험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성장 지원

○ 성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와 문제 탐구 방법을 배우는 자기주도학습을 자연스럽게 선호하며, 자신에게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 학습에 참여하도록 스스로 동기 부여한다는 특징을 지님. 그러므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은 중장년 세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중장년은 사회적 계몽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중장년 스스로의 학습을 도움으로써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됨. 그래서 생활세계인 마을 안에서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해야함

○ 중장년의 생애재설계는 40대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노년기 진입과 연계하는 중장년 세대의 교육 강화와 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연계 노력이 중요함. 이와 같은 종합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중장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이 요구됨

○ 더불어 중장년 세대가 은퇴 전 사회적 경험을 마을에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고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러므로 우리 제주지역에서의 중장년세대의 삶을 위한 일의 지속과 학습 환경 조성, 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 제공,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가는 방향성 정립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냄. 이는 곧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긍정적 삶으로 다시금 되새김하는 과정이기도 함

○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1>과 같음

<표 5-1>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활성화 대응과제(안)

구 분	주요 과제	비고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중장년 삶과 연계한 교육 지원 접근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 간의 연계와 행정 부서 간의 역할 정립 및 제고	
	· 제주지역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체제 구축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지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종합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확대	
	· 중장년 상호학습 및 소통을 위한 공유 공간 확충 및 학습 환경 조성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질적 향상	· 중장년 당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의 방향성 정립 필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마련	
	· 학습과 실천의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중장년의 학습-일 경험-관점 전환 중심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마을에서 시작하는 중장년의 삶과 전환학습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중장년 역할 강화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개선	
	· 학습과 일 경험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성장 지원	

참고문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20). 신중년 인생3모작 설계지원 안내서.

관계부처 합동(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관계부처 합동(2018).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권기창(2014).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권인탁(2009). 다기능 정규성인학습대학으로서 평생교육원의 재구조화–한・미 대학 평생교육의 비교 관점–. 평생교육학 연구, 15(4), 327-356.

권일진・이광민・황정일・강해정(2020). 50+세대의 진로 전환 사례 연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금민수(2021). 해외 중장년 일자리; 다시쓰는 이력서-PART 6. 미국과 일본의 시니어 일자리,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097. 2021. 12. 13 검색.

김기선(2009). 독일의 노동시장 재정비를 위한 법률.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1월호. 80-88.

김수동(2021). 내가 지켜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년의 변화와 당사자로서의 제안. 50+리포트 2021, 특별호, 4.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수린・배지영・안서연・허선영・김혜인(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린・이철희・변금선・이승호(2019). 신노년세대 노동시장 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애순(2006).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영아・김주봉(2020). 중・고령자의 은퇴의도와 은퇴행동. 한국노동연구원.

김윤정(2008). 일본 평생교육 정책동향.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김은석・서현주・이효남・조아름・박은규・문한나(2020). 생애 경력개발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김인엽・김종욱・송기민(2017). 중장년의 일과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종서・김신일 한숭희・강대중(2009).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남재량・김동배(2020).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민상기・이명훈・문세연・길대환・노경희(2015). 중장년대상 적합 훈련직종 발굴 및 취업연계를 위한 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민경(2021). 미국의 노인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 50+리포트,

2021년 03호, Vol.27.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건복지부(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송민혜・경정아・박선영(2020).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양안나・강소랑・강민지・김민정(2020).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여혜수(2021). 미국의 중고령자 근로 지원(Employment support)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 Vol. 16 pp.113~119.

이기한(2010). 정년제의 법제화 논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연구. 노동법학, 36. 한국노동법학회.

이우영・이문수・이요행・장서영・송슬기(2013). 중장년 생애재설계 및 경력재개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희수(2021). 학습 관계망이 중요한 50+세대. 50+리포트, 2021년 03호, Vol.27.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철영(2021). 대전환 시기의 중장년 정책의 의의와 방향. 50+리포트 2021, 특별호, 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현경(2013). 일본 지역주민들의 마을 놀이터 ‘공민관’. 해외평생학습동향. 수원: 수원평생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2017).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탐나는 5060” 프로젝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계획(2017~2019).

제주특별자치도(2020). 인생 2막 지원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21).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20. 6. 「2017~2037년 제주특별자치도 장래인구 추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20). 2020년 제주지역 성인평생학습 실태조사.

최영준(2021). 프스트 코로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역할. 50+리포트 2021, 특별호, 3. 서울시50플러스재단.

최종걸(2021). 은퇴자를 위한 정책도 대책도 없는 재앙을 막으려면. 50+리포트 2021, 특별호, 2. 서울시50플러스재단.

통계청(2021). 2020년 전국 인구통계.

한성호・박일호・진경배(2020).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50+세대의 실천 과제와 역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홍숙희・라해문・홍선영(2020). 제주지역 마을단위 주민교육 지원 실태조사 연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숙희・정여진・고승한・이화진(2020). 고령사회 제주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황윤주(2021).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직면한 50+세대의 현재, 그리고 미래. 50+리포트 2021, 특별호, 7. 서울시50플러스재단.

Kaner, S. with Lind L, Toldi C, Fisk S and Berger D (2007). Facilitator’s Guide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CA:Community At Work.

Roumell, Elizabeth A. & Martin, Larry G.(2021). Public Polich and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e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020th Edition, 2021) / Tonette S. Rocco & M Cecil Smith 외 pp. 38~46.

연구보고서 JILES 2021-02

제주 중장년 생애재설계 전환학습 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
발행인 허 정 옥
발행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3217)제주시 연삼로 473, 4층(이도2동)
☎ 064-726-9850
Fax. 064-726-9848
www.jiles.or.kr
인 쇄 온누리디앤피(064-722-0086)

ISBN 979-11-972960-6-2 93370
〈비매품〉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